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
Vol.3 December. 2018
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

Articles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Liaoxi(遼西) Hungshan Culture and Hwanung Jo-Yi / Lee, Chan Goo

A Historical Study on the Awareness on the Myth of Dangun / Kim, Myung Ok

Border of Gojoseon and Yan of Warring States Period / Choi, Won Tai

About the time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to Gaya / Jang, Jae Jin

역사와 융합

제 3 호

바른역사학술원

ISSN 2586-2774

<http://misahyeop.com>

역사와 융합

제3호 2018. 12. 30

연구논문

요서 홍산문화와 환웅 조이족의 귀속관계 / 이찬구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김명옥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의 국경 / 최원태

가야 불교의 전래시기에 관하여-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 장재진

서 평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지배 이론을 위해 『삼국사기』를
거짓으로 만들다/ 황순중

-최재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만권당, 2016.



바른역사학술원

ISSN 2586-2774

역사와 융합

제3호 2018.12.30.

바른역사학술원

차 례

[연구논문]

요서 홍산문화와 환웅 조이족의 귀속관계 / 이찬구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김명옥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의 국경 / 최원태

가야 불교의 전래시기에 관하여-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 장재진

[서 평]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지배 이론을 위해 『삼국사기』를 거짓으로 만들다 /
황순중

-최재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만권당, 2016.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 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 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역사와융합』 제3집(2018. 12)

요서 홍산문화와 환웅 조이족의 귀속관계*

이 찬 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차 례

1. 차단된 조이족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
2. 홍산문화와 조이족과의 관계
3. 홍산문화에 나타난 옥조의 공통성
4. 『산해경』의 웅상과 수리부엉이
5. 결론에 대신하여-요서 홍산문화와 환웅 조이족

【국문초록】

이 글은 홍산 문화의 창조주체가 어느 종족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옥기玉器는 온 인류의 보배라고 한다. B.C. 3~4000년 전 홍산 옥기를 지금도 우리가 원형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옥문화가 지닌 위대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옥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홍산문화 중에서 우하량牛河梁 유적에 주목했다. 여기에서 나온 옥기는 시기적으로 우리역사에서 단군이전인 환웅시대에 해당한다.

필자는 우하량유적 등 최소한 5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엉이(玉鶚)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토tem으로 숭배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 부엉이는

『산해경』에서 말한 그 수리부엉이(雒)로 해석해 보았다. 또 『단군세기』에는 『산해경』의 웅상雄常을 환웅의 웅상나무로 보고 있다.

일찍이 중국학자 고힐강顧詰剛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큰 종족大族’이란 환웅의 새토템족인 조이족鳥夷族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민李民도 홍산문화는 동북의 선민先民인 조이 문화로 보았다. 오늘날 한국의 솟대나 서양의 토렘폴에서 그러한 새토템의 잔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이족은 새토템의 동이족이란 뜻을 지닌다.

따라서 홍산옥기의 부엉이가 곧 환웅의 ‘웅새’라고 보려는 것이다. 환웅은 수리부엉이 새를 토템으로 삼은 ‘태양숭배를 계승한 조이족’이었다. 환웅 자신이 요서遼西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 조이족의 최고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홍산문화는 환웅의 조이족에 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환웅을 수리부엉이 새를 토템으로 한 종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이해할 때 한국의 상고사上古史가 확장되라고 본다. 종전의 서자부 환웅, 또는 막연한 천신天神 환웅, 곰족 웅녀의 상대방인 환웅에서 탈피하여 더 넓고 독립적인 환웅상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홍산문화, 옥기, 환웅, 웅상, 수리부엉이, 조이족

1. 차단된 조이족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요서遼西 홍산문화에서 출토된 많은 옥조玉鳥를 통해 우리는 홍산인들이 유독 새를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새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요서지방의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그들의 새숭배문화의 내용이나 새토템 종족이 오늘날

어느 민족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 시기 문화의 정체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의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문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서』나 『사기』 등을 포함한 사적 중에 ‘조이鳥夷’라는 말이 등장한다. 여기서 조이는 새를 숭배하거나 토템으로 여기는 종족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사기』(『오제본기』, 『하본기』)에 나오는 조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남쪽으로는 교지交趾 · 북발北發을, 서쪽으로는 용戎 · 석지析枝 · 거수渠度 · 저저 · 강羌을, 북쪽으로는 산용山戎 · 발發 · 식신息慎을, 동쪽으로는 장長 · 조이鳥夷를 위무하니 온 나라가 모두 순舜의 공덕을 입게 되었다.¹⁾

우禹는 기주冀州에서부터 치수를 행하기 시작했다. 조이鳥夷는 가죽옷을 잘 만든다. 발해에서부터 우측의 갈석산을 끼고 돌아온 후 황하로 들어온다.²⁾

회수와 바다 사이는 양주이다. 도이鳥夷가 입은 풀로 짠 옷, 대광주리에 담은 비단이 있으며, 포장한 굴과 유자도 공물로 바쳤다.³⁾

이와 같이 조이는 또 ‘도이鳥夷’로 혼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왕선겸王先謙이 도이를 조이로 바로 잡았다.⁴⁾ 하지만, 조鳥와 도鳥는, 그 소리가 본래 같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저서『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개벽사, 2018)에서 논의된 내용을 논문형식으로 재구성하고 부분적으로 가감한 것임을 밝힘.

1) “南撫交趾、北發、西戎、析枝、渠度、氐、羌、北山戎、發、息慎、東長、鳥夷、四海之內 咸戴帝舜之功” 『사기』, 『오제본기』.

2) “禹行自冀州始… 鳥夷皮服、夾右碣石、入于海” 『사기』, 『하본기』.

3) “淮海維揚州 … 鳥夷卉服、其篚織貝” 『사기』, 『하본기』.

4) 文日煥, 「朝鮮古代鳥崇拜與卵生神話之起源探究」, 『中央民族大學學報』 권 30, 哲學社會科學版, 2003.

⁵⁾는 주장이 있는 점을 유의하면 서로 혼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왕석금汪石琴 가장본의 「우공도」에는 래이萊夷, 우이嵎夷와 함께 도이島夷가 나오는데, 북도이北島夷가 있고, 남도이南島夷가 나온다.

아울러 『상서』(『우공편』)에도 『사기』와 같이 ‘조의피복鳥夷皮服’이란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일찍이 고희강顧頡剛⁶⁾은 조이鳥夷에 대한 고문헌의 기록 착오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그는 『사기』, 『설원』의 문장에서 의연히 착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조이라는 명사는 보존되어 내려왔지만, 『설원』⁷⁾의 판본도 역시 후인들이 당대唐代에서 고친 「우공」에 근거하여 조이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적이다.⁸⁾ 나아가 그는 고대에 이렇게 ‘큰 종족(一個大族)’⁹⁾의 문헌자료가 극도로 희소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한대漢代 이하의 사람들이 일찍 이런 종족이 있었다는 것마저 잊었거나 흔적마저 소멸하려 하였다면 천박하고 어리석은 행위라고 한탄해 마지않는다.¹⁰⁾ 그러면서 고희강은 조이가 실제상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는 없는 것인바, 필연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폭로되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다.¹¹⁾

그리고 문일환文日煥은 조이鳥夷가 한개 종족의 명칭이며 일찍 중국 은대殷代에 이미 존재했으며, 은상殷商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히 추측할 수 있

6기, 79쪽.

5) 유창균, 『문자에 숨겨진 민족의 연원』, 집문당, 1999, 378쪽.

6) 근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 고희강(顧頡剛, 1893~1981년)은 많은 책을 두루 읽어 상식을 얻되,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생전에 우하량유적을 보지 못했다.

7) “北至山戒肅慎 東至長夷島夷” 『설원』19권, 조이를 도이라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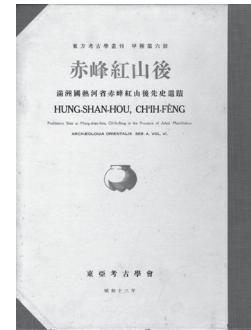
8) 顧頡剛, 「鳥夷族的圖騰崇拜及其氏族集團的興亡」 『史前研究』, 2000.09, 150쪽. 그의 비판은 이어진다. 또 『대대례기』(오제덕)의 저자는 순(舜)의 덕화를 빌어 사방의 저명한 소수민족을 서술하려 하였지만, 알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너무나 조리가 없이 말해 놓았는데, 그나마 「오제덕」중에 동방의 장이(長夷), 조이(鳥夷), 우민(羽民) 3종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9) 고희강의 주장에 따르면 ‘조이’ 또는 ‘조이족’으로 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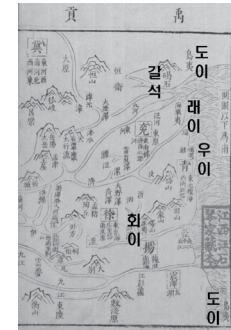
10) 顧頡剛, 위의 책, 151쪽.

11) 顧頡剛, 위의 책, 150쪽.

고, 이 추측은 많은 사료들로부터 이미 실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 조이가 생활한 지역은 대개 발해만 연해평원이며, 그들은 해곡海曲에 거주하며 피복, 용모와 행동거지가 모두 새를 닮았다고 한다.



1938년 『적봉 홍산후』라는 고고 보고서 표지



강서 왕석금汪石琴 가장본 우공도禹貢圖

이런 문헌상의 논의와 달리 고고학적 접근이 시도된 것은 1930년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다. 그들(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미즈노 세이치水野清一)은 1938년(소화13년)에 『적봉 홍산후赤峰紅山後』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적봉제1차문화 : 채도문화, 적봉제2차문화 : 홍도문화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고대 주민이 도작稻作을 한 농경민으로 한족漢族이 아닌 장두형長頭型)의 동호(東胡 오환, 선비족)라고 제시하고, 동호와 서쪽의 흉노나 동쪽의 예맥과의 인종적 관계에 대해 신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장래의 발굴작업에 기대한다는 여운을 남겼다.¹³⁾

이에 대해 북한의 리지린은 “제1차 문화(채도 문화) : 그 연대는 대략 기원전 3000년대이다. 그 문화는 북방계이며 동북 및 조선의 신석기 문화와 연계가 있

12) 文日煥, 「朝鮮古代鳥崇拜與卵生神話之起源探究」, 『中央民族大學學報』 권30, 哲學社會科學版, 2003, 6기, 79쪽. 은상(殷商)과의 관계는 앞의 진몽가의 갑골문 발견으로 입증된 셈이다.

13) 濱田耕作 · 水野清一, 『赤峰紅山後—滿洲國熱河省赤峰紅山後先史遺跡』, 甲種第6册, 東亞考古學會, 1938, 84쪽.

다. 이 문화의 소유자는 유목민이 아니며 농경민이다”¹⁴⁾라고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리지린은 우선 동호가 어느 민족의 선조인가를 단정하지 못한 것에 의문을 갖는다.¹⁵⁾ 이런 가운데 문숭일文崇一은 조이족이 활동하던 때는 맥족을 볼 수 없었는데, 그 후 맥족이 점령한 곳은 일찍이 조이족이 살았던 곳이라는 지적은 참고할만하다.¹⁶⁾ 중국학자 하광악何光岳도 여러 새토텐족들을 동호東胡라고 부르는데 동호東胡와 동이東夷는 같은 뜻이라고 보았다.¹⁷⁾ 이는 동호가 조이의 일파였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써 조이족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관점이다.

중전까지 중국대륙 동부 연해 발해만으로부터 산둥반도 일대 이남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의 동이족은 새를 토tem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조이족”이라 불려 왔다. 하지만 시간과 지역상으로 보면 홍산문화의 새토텐은 이들보다 이른 것으로 마땅히 북방민족 새토텐의 효시라는 관점이 있다.¹⁸⁾

특히 홍산문화를 창조한 주도세력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 조이족이 오늘의 역사에서 어느 민족으로 귀속되는가 하는 점도 이제 밝혀야 할 차례가 되었다. 우하량, 동산취 홍산문화 유존은 5000여년 전 내지 4000여 년 전 동북 선민先民의 일종인 조이鳥夷 부락집단의 문화유존이라는 주장은¹⁹⁾ 홍산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문제는 그 조이족이 어느 민족이냐는 것이다. 연변대의 김관웅은 “조선민족의 원시문화는 동아시아 문명의 최초의 발원지라고 상정되는 홍산문화 내지 요하문화를 창조한 주체인 동이족과

깊은 내재적인 연관성이 있다”²⁰⁾고 보았고, 같은 대학의 김미란도 “은상殷商문화와 고조선문화는 모두 홍산문화의 한 개 지류일 수도 있다”²¹⁾고 했다. 이제 우리 역사와의 내재적 연관성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북한의 리지린은 고조선이 형성되기 이전의 원주민이 곧 조이였다고 주장했다.²²⁾ 이는 고조선 이전 시기 우리 조상의 종족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암시가 되고 있다. 고조선 이전은 역사상 환웅시대에 해당하며, 공교롭게도 홍산문화의 시대와도 겹친다. 이런 한민족 조이설에 대해 이기동은, “조이를 고조선 주민의 선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돌하다”²³⁾고까지 반박하고 나선 것은 학문적 논의를 강제로 차단하려는 시도로써 경망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조이족이 활동하던 때는 맥족을 볼 수 없었는데, 그 후 맥족이 점령한 곳은 일찍이 조이족이 살았던 곳이라는 문숭일文崇一의 주장²⁴⁾은 차단된 조이족 논의를 재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며, 나아가 홍산문화에 나타난 새 옥기들은 조이족 논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요서의 홍산문화에 나타난 새토텐을 중심으로 그동안 단절된 조이족에 대한 논의를 부활하고, 조이족과 환웅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2. 홍산문화와 조이족과의 관계

홍산문화의 주도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논문을 발표한 중국학자가 있다. 중국 정주대학교수 이민李民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 「시론 우하량동

14)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평양), 1963, 197~198쪽.

15) 리지린, 위의 책, 197~198쪽.

16) 文崇一, 「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 5집(臺北), 1958 춘, 135쪽.

17) 何光岳, 「鳥夷族中諸島國的名稱和分布」, 『東夷古國史研究』 2집, 三秦出版社(山東), 1989, 64쪽.

18) 楊福瑞, 「紅山文化氏族社會的發展與圖騰崇拜」, 『赤峰學院學報』 35, 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4.571, 21쪽.

19) 李民, 「試論 牛河梁東山嘴紅山文化的歸屬—中國古代文明探源之一」, 『鄭州大學學報』, 1987.271, 14쪽.

20) 金寬雄, 「古朝鮮의 檀君神話와 東夷文化的 聯關性」, 『淵民學志』 15, 2011, 35쪽.

21) 김미란, 「홍산문화로 본 선사시기 동북아시아 민족의 공동토텐연구」, 『한국문화논총』 66, 2014. 4, 26쪽.

22) 리지린, 앞의 책, 109쪽.

23) 이기동,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 『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106쪽.

24) 文崇一, 「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 5집(臺北), 1958 춘, 135쪽.

산취 홍산문화의 귀속」²⁵⁾에서 홍산문화를 주도한 담당세력으로 ‘조이족’에 주목하였다. 이는 중국학계의 편향성을 거부한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고 있다. 그는 홍산문화 영역에서 먼저 우하량과 동산취 유적에 주목한다. 황하유역 멀리에 있는, 요서 우하량牛河梁, 동산취東山嘴에서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였는데, 그중에 여신묘女神廟, 제단祭壇과 적석총 등 중요한 유적이 있었다. 이 중대한 발견이 세인의 주목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국 고대 문명의 기원에 중요한 자료와 얼마간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실물자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우하량유지는 요하遼河 서부 능원현성 이북 15km되는 곳에 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이 곳에서 분포면적 1.2km²에 달하는 홍산문화유적 십여 곳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많은 중요문물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도제 부녀나체 작은 소상,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여신女神채색 소두상塑頭像, 잔체殘體가 있는 사람 실물의 세배 크기에 상당하는 대소상大塑像, 대량의 제사용으로 쓰인 도자기 등이 있으며, 정밀하게 아름다운 옥기로 만들어 특별히 사람의 이목을 끄는 돼지형상의 옥저룡玉猪龍, 옥식玉飾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또 여신묘와 적석총 등 유적이 있다.

동산취유적은 요녕 객좌현 소재지 대성자진 동남 약 4km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하량유적에서 3~40km 밖에 되지 않는다. 1979년과 1982년 두 차례 발굴은 그 면적이 약 2250m²로 대형의 석기건축기지와 대량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도자기는 전체 유물의 90%를 좌우하며 주로 홍도紅陶가 발굴되었다. 문식은 주로 압인 지-자형무늬와 평행줄무늬로 이루어졌다. 도자기외 사람모양과 옥, 석식 등 유물이 있다. 심지어 직경이 2.9m인 원형제단 유적이 있다.

우하량, 동산취의 홍산문화유적과 유물을 종합 분석한 이민은 홍산문화를 중

원中原의 원고遠古 문화와 비교하여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²⁶⁾

- ㉠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원지구에서 비교적 멀고 또 동북지구에서 발견된 하나의 중요한 신석기 문화이다.
- ㉡ 그 연대는 중원지구의 용산龍山문화보다도 이르며, 탄소 14측정을 거쳐 ‘여신묘’와 같은 묘적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5575±80(수료교정을 거쳐)년이 떨어져 있다.
- ㉢ 중원지구의 동일시대의 문화와 비교했을 때, 문화 내재적인 것에 적지 않은 특색과 차별이 있다. 예를 들면 정연한 돌건축 무리를 영조하고 있는데 신비색채를 갖고 있는 여신묘, 사람 실물 크기의 세배되는 큰 코·큰 귀 소상, 진귀한 여신두상 등은 모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중원지구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을 토대로 그는 우하량, 동산취의 홍산문화를 중국 고대문헌에서 종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과 중원문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문화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은 먼저 고문헌에 나오는 원고遠古 선민先民의 종적에 관한 기록들을 검토한다. 『상서』「우공편」의 기주冀州에 나오는 ‘조이피복鳥夷皮服’이란 말을 재해석한다. 즉, 하나는 “조이의 사람은 모두 가죽으로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이의 풍속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²⁷⁾ 다른 하나는 조이를 민족의 이름으로 보고, “조이족의 공물이 가죽옷”이라 여긴 것이다.²⁸⁾ 이렇

25) 李民, 「試論 牛河梁東山嘴紅山文化的歸屬—中國古代文明探源之一」, 『鄭州大學學報』, 1987.271, 8~14쪽.

26) 李民, 「試論 牛河梁東山嘴紅山文化的歸屬—中國古代文明探源之一」, 『鄭州大學學報』, 1987.271, 9쪽.

27) 原注: 屈万里的『尚書 今注今釋』臺灣 商務印書館, 1979, 32면.

28) 原注: 劉起鈺, 『禹貢 冀州地理叢考』『文史』25집.

경우 조이는 ‘동방의 땅’, ‘동방종족’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후한서』(『동이열전』)에는 ‘이자 저야(夷者 柢也)’에 나오는 구이九夷는 건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인데, 비록 조이가 이 아홉 종류에 들어가지는 못하나 구이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夷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민은 조이의 거주지, 「우공」 중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후세의 문헌 기록을 토대로 조이는 우하량, 동산취 홍산문화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본다.²⁹⁾

첫째로, 지리적으로 분석하면 「우공」에서 말하는 조이의 중심 거주지 지금의 요서遼西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하량, 동산취 유적이 바로 요서지역이다.

둘째로, 시대적으로 볼 때 통속적인 설법으로 하夏왕조의 시작은 기원전 2100년가량이며, 어떤 사람들은 2200년으로 추산하였으며, 사학가 손작운孫作雲은 기원전 2300년으로 추산하였다. 종합적으로 하왕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이전이다.³⁰⁾ 「우공」에 반영된 것도 대체적으로 마땅히 하초夏初의 왕조와 방국方國, 각 부락의 구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이의 시대는(우공의 하왕조와 같은) 기원전 2000여 년 이전以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이는 일찍부터 동북 요서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주민으로 그의 출현은 하초보다 늦지 않을 것이며, 혹은 그보다 더 이를 수도 있다.

우하량 홍산문화 유존의 시대는 탄소14로 측정하여 이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4975년±85년이고, 수륜樹輪(나이테)교정에 의하면 5580년±110년이다. 비

교적 늦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4995년±110년이고, 수륜교정은 5000년±130년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우하량 홍산문화 유존遺存은 상당히 긴 시간을 연속해왔으며 우하량 유존 말기의 연대는 문헌에서 추산한 조이의 연대보다 수백 년 더 이르다. 이런 의미에서 우하량, 동산취문화 유존遺存은 바로 조이문화鳥夷文化의 한 갈래이며 혹은 더욱 철저하게 말하면 우하량, 동산취문화 유존은 바로 조이가 이른 선구先驅이다.³¹⁾

셋째로, 문화의 내재적 함의에서 볼 때, 우하량 유존이 조이의 한 갈래 또는 선구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하량, 동산취 홍산문화 유존의 주민은 농업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조이 후예들에 관한 생활습성과 일치한다. 요서의 발굴 중 우하량에서 발견된 저룡猪龍 옥석기, 도기새조각(陶塑鳥), 부신 호두구胡頭溝 홍산문화 옥기 무덤 중에서 발견된 옥호(玉鶚부엉이새), 옥조는 대부분 조이부락 각 씨족토텐의 잔존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고발굴과 전설기록은 역시 대체적으로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민의 주장을 종합하면 우하량, 동산취 홍산문화 유존의 귀속문제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자료들로 논하더라도 이는 문헌에서 말하는 조이의 적지 않은 방면에서 합치된다고 본 것이다. 이 유적유물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 전 내지 4000여 년 전 우리나라 동북 선민先民의 일종인 조이鳥夷 부락집단의 문화유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한편 이민의 논문에 대해, “이 글이 홍산문화를 동이의 갈래인 조이집단과 연결한 최초의 논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학자들의 논리는 홍산문화

29) 李民, 「試論 牛河梁東山嘴紅山文化的歸屬—中國古代文明探源之一」, 『鄭州大學學報』, 1987.2기, 13쪽.

30) 중국에서 堯는 B.C.2357년, 舜은 B.C.2136~B.C.2100, 우는 B.C.2103~B.C.2073. 夏왕조 원년은 B.C. 2070년이므로 이 때 조이(鳥夷)가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와 같이 보거나 더 이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31) 李民, 위의 책, 13쪽.

32) 李民, 위의 책, 14쪽.

의 주도집단이 황제족이라는 논리로 변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³³⁾는 지적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 측의 이족夷族에 대한 기록은 어쩌면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기록이 더 많다고 본다. 『우공』의 조이는 갈석산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지만, 실제로 조이의 영역은 갈석산의 동북쪽까지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갑골문에 의해서도 조이의 실재가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동이문화의 시원이 산동반도가 아니라, 동북지방이라는 주장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⁴⁾

그런데 이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이족이 현재의 누구이며, 그 후대 민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홍산문화의 어느 면을 단정하여 조이의 문화라고 할 것이냐도 문제로 남는다. 다만 이배뢰李倍雷가 홍산문화에 나타난 동이의 옥조玉鳥를 조이鳥夷의 형상물로 보았다는 면³⁵⁾을 착안하여 필자는 홍산문화에서 발굴된 옥기의 형상을 분석하며, 특별히 옥조를 통해 새토텐문화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3. 홍산문화에 나타난 옥조의 공통성

1) 나사대유적의 옥조

1980년 가을에 발현한 내몽고 파림우기巴林右旗 나사대那斯台유적은 홍산문화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동서 1500m, 남북 1000m, 총면적 150만 m²로 광범위한 유지이다. 1987년 조사보고결과 “나사대 유적은 마땅히 홍산문화유존에 속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곳에서는 빗살무늬(之자형)와 그물망무늬가 새겨진 도기들이 출토되었고, 새 모양의 조형석결鳥形石玦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이 석결의 몸체는 구부린 납작 기둥형으로 수미首尾는 가깝고, 뾰족한 부리는 눈에 띄이게 분명하며 이마는 융기되었고, 동그란 눈은 돌을새김으로 새겼으며, 날개 끝은 밖으로 튀어 나왔다. 꼬리끝부분은 원호圓弧모양이며, 어깨부분에는 구멍이 있고, 몸뚱이는 흰색에 무늬가 없는데 조각은 신중하고 온후하며 간결하고 소박하다. 몸 전체의 높이는 5.5cm이고 몸체의 두께는 1.1cm이다.³⁶⁾

조형석결에 이어 또 부엉이 모양의 옥효玉鶚 2개가 있다. 하나는 삼각형의 긴 부리가 아래로 솟아있고, 양 날개와 꼬리부분까지 3선이 드리워 있다. 다른 하나는 머리위에 두 개가 밖으로 볼록 나와 귀가 원호圓弧 모양이며, 배가 약간 나왔다.³⁷⁾ 그리고 또 하나의 ‘조형鳥形장식’이 있는데, 두 눈이 약간 두드러졌고 등은 융기되었으며, 부채형 꽂지는 오목 볼록 무늬로 표시하였고, 복부에는 또 하나의 조각달모양의 음각이 있다. 길이는 2.5cm이고 넓이는 3cm이다.³⁸⁾ 그리고 나사대에서 나온 돌도끼(石斧)의 총체는 편평하고 양면은 약간 불거졌으며 대가리와 날은 호弧형이고 양측변은 평행되며 좁고 긴 모양이다. 총체적 형체는 비교적 짧은데 조보구 유적과 소산小山유적에서 출토한 도끼형 기물과 형상구조가 같다.³⁹⁾

그런데 이 유지에서 곰의 형상과 흡사한 석수石獸⁴⁰⁾가 발견되었다. 앞면에서 보면 곰이 확실하다. 이 나사대유적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나, 새와 곰 모양의

33) 우실하, 「요하문명론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단군학 연구』 21호, 2009.11, 279쪽.

34) 王惠德, 「鳥圖騰的監鯢一兼談東夷文化」, 『昭烏達蒙族師專學報』, 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0.37, 62쪽.

35) 李倍雷, 「紅山文化中玉鳥的圖像學意義與藝術風格」, 『廣西藝術學院學報』, 『藝術探索』 20권 4기, 2006.10, 5쪽.

36) 巴林右旗博物館, 「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遺址調查」, 『中國考古集成』(東北 4권), 北京出版社, 1997, 541쪽.

37) 巴林右旗博物館, 위의 책, 543쪽.

38) 巴林右旗博物館, 위의 책, 542, 544쪽.

39) 索秀芬; 李少兵, 「那斯台遺址再認識」, 『紅山文化論著粹編』, 遼寧師範大學出版部, 2015,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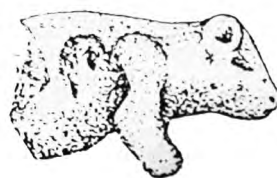
40) 巴林右旗博物館, 위의 책, 543쪽.

도기들이 서로 혼재 또는 연합을 이룬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로 추정되는 석조신상石彫神像⁴¹⁾이 발굴된 것은 여신 중심의 우하량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대조를 이룬다. 물론 남녀를 뚜렷이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남신상과 여신상으로 구별하여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사대 옥효(파림유기박물관)와 조형장식



앞면

나사대 석수石獸-곰상

이상으로 종합해 볼 때, 나사대유적은 지금 서랍목륜하(시라무륜하) 이북에서 발견한 규모가 비교적 큰 원시문화 유물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수토가 비옥하여 고대인들의 농경과 어업생산의 발전을 위해 극히 좋은 자연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유적 중에서는 수량이 비교적 많은 생산도구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당시 서랍목륜하 이북의 원시농업이 이미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돌화살촉은 제작이 정교롭고 세밀하며 형체가 다양한바 이는 어업생산도 당시의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원병형圓鉞形 석기의 출토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이는 일종의 특수용도가 있는 석기일 것이다.

특히 옥기와 돌조각의 발견은 나사대유적의 문화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

다. 이런 옥석玉石제품은 대체적으로 재료가 같고 탁마풍격이 비슷하여 동일시기 또는 동일문화계통의 유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비록 아직까지도 지층자료만으로는 그 연대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많은 홍산문화 유물과 공동으로 존재하므로 이들 옥석제품들이 홍산문화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요녕성 객좌현 동산취와 능원현 삼관전자三官甸子 등 홍산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옥조, 옥효, 삼련벽, 구운형옥기 등 장식품들은 가히 동류옥기 시대구분을 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다.



동산취유적의 옥효(녹송)



나사대 조형석결



오한기 옥효

여기에 나사대유적은 부지면적의 크기나 범위의 광범함, 또한 일부옥기의 발견에서 일반적인 원시문화유적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 이곳에는 밀집한 집터유적과 움유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호 등 방위시설도 있다. 이는 씨족사회의 번영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의 중요한 취락유적이다. 이미 발견된 여러 곳의 홍산문화 유적과 연계시켜 볼 때 서랍목륜하 이북 역시 홍산문화 분포의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가히 긍정할 수 있다.⁴²⁾ 특별히 우하량유적과 같이 새와 곰의 토토크간의 연합성을 통해 홍산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과 빗살무늬(之자형) 도기들이 출토된 면에서 이 곳 일대도 우하량유적과의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고, 옥조 중에서는 부엉이 옥기인 옥효玉鶚가 특징적이다.

41) 田廣林 외, 『紅山文化論著粹編』, 遼寧師範大學出版部, 2015, 화보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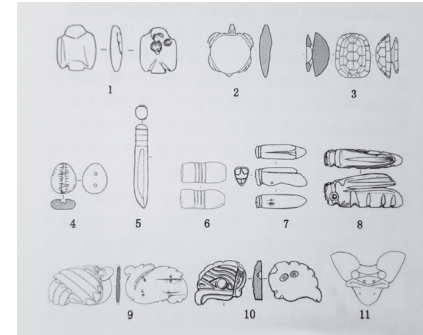
42) 巴林右旗博物館 「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遺址調查」 『中國考古集成』(東北 4권), 北京出版社, 1997, 543쪽.

2) 우하량유적의 옥조

다음은 우하량 유적에서 출토된 옥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물형 옥기의 제재는 매우 풍부하고 구조와 스타일이 다양하며 조형이 독특한바 구상具象, 추상, 구상과 추상의 결합 등 여러 가지 표현형식이 있다. 이런 동물형 옥기 중에 구상적 사실주의 조형의 옥기는 두 가지 표현수법이 있다. 하나는 동물의 전체적整體的 형태를 조각하는 것으로 옥조玉鳥, 옥거북이, 옥조개, 옥잠, 옥여치, 옥메뚜기 등이며, 다른 하나는 동물의 국부局部형태를 조각하는 것인데 동물의 머리 부분을 표현한 수면獸面형 옥기, 옥봉수玉鳳首가 있으며, 누움자세 형태를 나타내는 옥봉玉鳳이 있다. 구상적 사실주의 조형의 옥기는 입체조각을 위주로 하였는데 조형이 간결하고 세련되었으며 각기 특색을 갖고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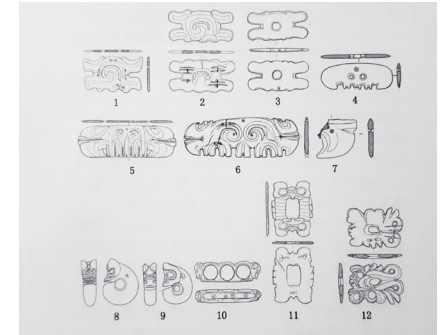
다음은 최암근崔岩勤이 제시한 우하량유적의 동물형옥기 도형들이다. 동물형 옥기의 조각 공예는 주요하게 입체조각, 편각(片雕), 섬새김(鏤雕, 양각), 가슴과 내기, 무늬장식각화, 구멍뚫기, 광택내기 등이다. 입체조각 옥기는 동물몸태를 삼유입체三維立體형식으로 표현했다. 우하량유적에서 출토된 동물형 옥기는 주요하게 옥룡(그림 2:8-9), 쌍저수삼공옥기(그림2:10), 옥거북이(그림1:2-3), 옥잠(그림1:5-6), 옥여치(그림1:7), 옥메뚜기(그림1:8) 등으로 옥기의 조형은 생동하며, 동물의 머리 부분에 간략한 무늬장식을 새겼다.⁴⁴⁾ 이 무늬장식의 하나가 그물망무늬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수면獸面형 옥기(그림 11번)는 곰 얼굴상으로 보이는데,⁴⁵⁾ 돼지상이라고도 한다.⁴⁶⁾ 이 곰얼굴의 옥패식은 망자亡者의 하단전 위에 올려 있었다. 옥여치(그림1:7)는 호형虎形으로 잘못 잘려지기 쉽다. 쌍저수

삼공옥기(그림2:10)는 돼지猪상이 아니라 곰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1. 玉鳥(N16-79M2 : 9)
 2. A型 玉龜(거북이)(N5Z1M1:6)
 3. B型 玉龜殼(거북껍질)(N2Z1M21 : 10)
 4. 玉貝(조개)(N2Z1C : 4)
 5. A型 玉蠶(누에)(N2Z1M11 : 3)
 6. B型 玉蠶(N5SCZ1 : 3)
 7. 玉螞(여치)(N5Z2M9 : 1)
 8. 玉蝗(메뚜기)(N16Z1① : 47)
 9. 玉鳳(N16M4:1)
 10. 玉鳳首(N2Z1 : C8)
 11. 獸面形器(N2Z1M21 : 14)
- (머리나 꼬리의 형태등을 중심으로 A, B로 나눔)

우하량유지 출토 동물형옥기1(崔岩勤)



1. Aa型 勾雲形器(N2Z1M24 : 3)
2. Ab型 勾雲形器(N1679M2 : 1)
3. B型 勾雲形器(N2Z1M21 : 3)
4. A型 帶齒類獸面形器(N2Z1M9 : 2)
5. B型 帶齒類獸面形器(N2Z1M27 : 2)
6. B型 帶齒類獸面形器(N16M15 : 3)
7. B型 帶齒類獸面形器殘件(N16M13:1-1)
8. A型 玉龍(N2Z1M4 : 2)
9. B型 玉龍(N2Z1M4 : 3)
10. 雙猪首三孔器(N16-79M1 : 4)
11. 雙鴉首形器(N2Z1M26 : 2)
12. 龍鳳形器(N2Z1M23 : 3)

우하량유지 출토 동물형옥기2(崔岩勤)

홍산문화 중에 우하량유적은 소하서문화, 흥룡와문화, 사해문화, 부하문화, 조보구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유적지별로 보면, 우하량 제1지점에서는 여신상이 있는 여신묘가 발굴되었다. 이곳에서 곰뼈, 곰 발바닥이 함께 나왔다. 적석총군과 원형제단이 발굴된 제2지점에서는 돼지 또는 곰같은 옥용용(또는 옥저룡), 옥고, 옥환, 옥벽, 쌍연벽, 고籊형기, 능菱형기 등이 발굴되었다. 조鳥형상으로는 우하량 제2지점에서 효(梟올빼미)형옥패, 조소문옥패, 쌍효수 옥패, 옥봉수玉鳳首 등이 발굴되었고, 수면獸面(곰)옥패식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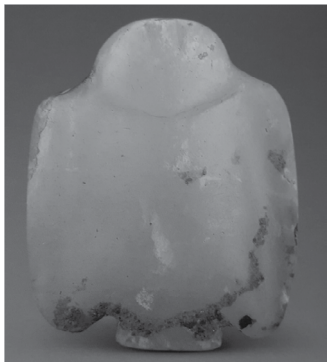
43) 崔岩勤, 『牛河梁紅山文化遺址出土動物形玉器探析』,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38권, 2017.05, 2쪽.

44) 崔岩勤, 위의 책, 5쪽.

45)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5, 2쪽(화보).

46) 趙春青·秦文生, 『圖說 中國文明史』(1), 創元社(東京), 2006, 157쪽.

왔다.⁴⁷⁾ 또 제16지점(성자산 삼관순자 유적)에서는 옥인玉人, 옥봉玉鳳, 옥조玉鳥(무면조), 효鶯형옥패 등이 발굴되었다.⁴⁸⁾ 돼지는 북두칠성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소중하게 여겼다.



우하량 옥조(16지점)



우하량 쌍효수雙鶯首 옥식(2지점)

우하량유적을 포함한 홍산문화의 동물형 옥 중에 중요한 것으로 옥조玉鳥가 있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우하량 2지점의 쌍효수雙鶯首이다. 두 마리 부엉이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만들었다. 또 우하량 16지점 4호묘에서 나온 옥봉인 봉황⁴⁹⁾이 있다. 새 모양으로서는 절정을 이룬 것 같다. 그리고 2지점에서 나온 얼굴없는 새인 무면조無面鳥는 한 개의 직선과 두 개의 사선斜線으로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여 새의 날아가는 형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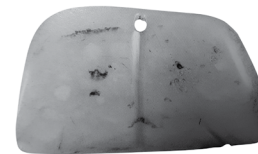
47) 『牛河梁』,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2014, 94~97쪽.

48) 『牛河梁』, 위의 책, 106~108쪽.

49) 陳逸民 외, 『紅山玉器圖鑑』, 上海文化出版社, 2006, 83쪽.



우하량 봉황(16지점 4호묘)



우하량 무면조無面鳥(2지점)

이와 같이 우하량유적에서 나온 옥기는 모두 183건이다. 이 중에 2지점에서 98건, 3지점 9건, 5지점 23건, 16지점이 53건 발굴되었다. 종류별로는 인형人形, 동물형, 옥벽 등으로 구별된다. 이 중에 동물형 19건 중에 용 3건, 새 6건, 수면獸面 2건, 거북 4건, 누에 2건 등이다.⁵⁰⁾

옥기 중에 중요한 것으로 옥조玉鳥가 있는데, 광대순郭大順은 이를 전조형全鳥形과 비전조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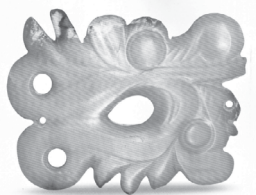
하나는 온전한 새 모양의 전조형全鳥形이다. 가장 많이 보인다. 비교적 전형적인 것으로는 호두구 제1호 묘에서 3개가 출토되었고, 삼관전자(우하량 제 16지점) 제 1호 묘에서 1개가 출토되었으며 부신현 복흥지에서 1개, 내몽고 파림우기 나사대 유적에서 2개 출토 되었다. 이들은 모두 새가 정면으로 날개를 펼친 형태이며 세세한 부분은 대부분 개략적으로 표현하였고 치켜 올린 꼬리에 새겨진 무늬는 깃털이다. 오관은 뚜렷하고 귀가 서 있어서 ‘부엉이’라 할 수 있는데 눈, 입 부분은 어렵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하량 16점의 옥봉은 상세하나, 다른 옥조(무면조)는 새 모양의 윤곽만 지니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새머리만 표현한 것으로 오직 1개만 보이는데, 우하량 유적 제 2지점 1호층 제 15호 묘에서 출토(쌍효수)되었다. 부리는 굵은 갈고리 모양이고 머리 위에 관이 있으며 신토자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어 마땅히 매 종류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새 문양이다. 역시 우하량 유적(2지점)에서만 보이는데 용봉 문양의 패옥인데, 그 속의 새머리 형상은 옥조의 머리와 비슷하다. 부리는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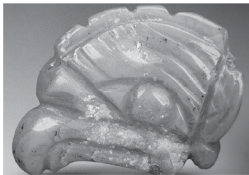
5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牛河梁—發掘報告』(中), 文物出版社(北京), 2012, 473~475쪽.

갈고리이고 둥근 눈을 갖고 있어 역시 매 종류이다.⁵¹⁾ 우하량의 무덤에서 옥조가 발견되는 것은 토テム을 상징하는 동시에 삼한시대의 사람들이 장례를 지낼 때 큰 새의 깃털을 묻어준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⁵²⁾

한편으로 김선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중국인들이 용龍이나 용봉龍鳳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북방 샤머니즘과의 연계를 꺼리는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⁵³⁾



우하량의 용봉패옥(2지점)



우하량 매형상의 옥봉수(2지점)



우하량 쌍련벽(16지점)

앞의 1지점 여신모 구역도 그렇지만, 16지점에서도 곰토템과 새토템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여기서 16지점의 우하량의 쌍웅상雙熊像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쌍웅상의 정식 명칭은 쌍웅수삼공옥식雙熊首三孔玉飾⁵⁴⁾이다. 대개 이 삼공기三孔器은 대개 무구巫具, 조상 제사용 예기로 알려져 있다. 양옆에는 돼지나 사람 얼굴 등을 새기는데, 이것을 종전에 돼지라고도 했지만 곰의 머리인 쌍웅상雙熊像이 분명하다. 또 사람의 머리를 새긴 것을 쌍인상雙人像이라고 한다. 이 쌍인상은 우하량 2지점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는 ‘곰이 곧 사람’이라는 웅족인熊則人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쌍효수와 쌍웅상과 함께 쌍인상, 쌍련벽의 출현은 우하량에서 새로운 사상이 배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음양이라는 상대적 개념

51) 郭大順 주편, 이종숙 외 역, 『紅山文化』, 동북아역사재단, 169쪽.

52)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 또는 『通典』 卷185, 邊防 — 東夷 上 辰韓편에도 나온다.

53) 김선자, 「홍산문화의 황제영역설에 대한 비판—곰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공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224쪽.

5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市文化局 編, 『牛河梁遺址』, 學苑出版社(北京), 2004, 75쪽.

즉 양태극 개념의 발아와 연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삼공기나 삼련벽의 출현은 삼태극 개념의 실마리가 아닌가 한다. 2와 3의 상대성과 상의성相依性, 통합성의 개념 파악은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우하량 삼원공三圓孔의 쌍웅상雙熊像(16지점)



우하량 삼원공三圓孔의 쌍인상雙人像(2지점)



우하량 삼련벽(16지점)

이상에서 보듯이 나사대유적과 우하량유적의 옥조 중에서 공통점은 부엉이새의 출현이다. 이 부엉이 옥효는 나사대유적과 우하량유적 뿐만 아니라 동산취유적과 호두구묘장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호두구 옥효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4. 『산해경』의 용상과 수리부엉이

그러면 홍산문화를 주도한 그 조이족은 누구이며, 혹시 우리 역사의 누구와 연계가 가능한 것인가? 우선 홍산문화의 편년을 유국상劉國祥의 설명에 의하면 기원전 4500년~3000년에 해당한다.⁵⁵⁾ 이를 『삼국유사』의 「단군고기」로 견주어 보면, 단군의 고조선 건국연대인 기원전 2333년 이전인 환웅의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환웅의 개념어들로 ‘삭(수)의천하數意天下’, ‘탐구인세’, ‘삼위태백’, ‘홍익인간’, ‘천부인天符印’, ‘술도삼천率徒三千’, ‘태백산정’, ‘신단수’, ‘위지신

55) 劉國祥, 「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 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 『赤峰學院學報·紅山文化研究專輯』, 赤峰學院·赤峰市文化局, 2006.8.

시謂之神市’ 등이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조이족을 설명할만한 개념어는 없다.⁵⁶⁾ 다만 최남선은 「단군 고기」를 단군 원사原史와 환웅신화로 나누어 보고, 환웅신화의 궁극적 의의는 태양토텐과 곰토텐의 결합에 의한 조선의 출현에 있다고 보았으나,⁵⁷⁾ 문제의 새토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토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태양토텐과 새토텐은 연합토텐’이라는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하여 필자는 『규원사화』 등을 참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규원사화』는 태백산에 강림한 환웅을 신시씨神市氏라고 칭하는데, 이 중에 의미있는 구절이 있다.

(신시씨)가 금수와 가축의 이름으로 벼슬을 이름 하였으니, 호가虎加 · 우가牛加 · 마가馬加 · 응가鷹加 · 노가鷺加 등의 명칭이 있게 되었다.⁵⁸⁾

이와 같이 신시씨神市氏에는 호가, 우가, 마가, 응가, 노가 등 오가五加가 있었다는 것은 사료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신시씨라는 말이 환웅을 주체로 하면서도 환웅 당시 오가 시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오가가 모두 환웅족인지 아니면 환웅족에서 갈려져 나온 것인지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새(매)를 이고 있는 홍산의 옥기⁵⁹⁾가 있는 것에서 조이족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를 이고 있는 홍산의 조이족



새를 이고 있는 남녘의 조이족(필자소장)

오가 중에서 조이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매(독수리)의 응가鷹加와 백로(해오라기)의 노가鷺加 정도이다.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틀림없이 새를 토텐으로 한 부족이 있었고, 거기서 토텐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오가의 근원인 환웅은 어느 새에 해당하는가? 현존하는 문헌 중에 가장 오랜 문헌으로 알려진 『산해경』(『해외서경』)을 보자.

숙신국肅愼國은 백민白民의 북쪽에 있다.

이름을 웅상雄常【혹은 낙상雒常】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성인이 대를 이어 즉위하게 되면 이 나무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⁶⁰⁾

여기에 숙신肅愼과 웅雄이 나온다. 하광약은 숙신을 조이의 일파라고 했고,⁶¹⁾ 북한의 리지린도 조이는 숙신의 별칭이거나 고명(古名)이었다고 추정하였다.⁶²⁾ 다음은 웅雄과 상常에 관한 이해이다. 웅은 수컷이므로 어떤 동물이고, 상은 땃땃하다는 뜻이겠으나 사실은 나무樹를 뜻한다. 웅을 나무의 이름에 붙여놓아 웅

56) 필자는 다른 기회에 『삼국유사』(고조선조)속의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에 대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57) 최남선,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296~297쪽.

58) “此時, 神市氏之降世, 已數千載, 而民物益衆, 地域愈博. 於是, 復置主刑·主病·主善惡及監董人民之職, 以獸畜名官, 有虎加·牛加·馬加·鷹加·鷺加之稱” 『규원사화』, 태시기.

59) 張雪秋, 張東中 『紅山文化玉器』黑龍江大学出版社, 2010, 278쪽.

60) “肅愼之國 在白民北 有樹名曰雄【或作雒】常 先入(或聖人)伐(代)帝 于此取之” 『산해경』, 『해외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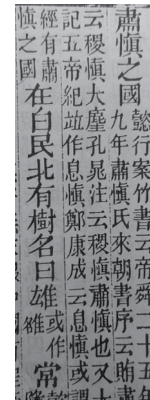
61) 何光岳, 「肅愼族的起源與北遷」, 『黑河學刊』 40, 1991.2, 97쪽.

62) 리지린, 앞의 책, 2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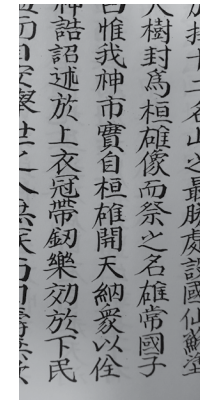
雄의 상常, 웅상雄常이라고 했다. 그래서 웅상, 웅상수, 웅상나무가 된다. 그런데 이 웅상을 또는 낙상雒常이라고 했다. 웅雄이 곧 낙雒이라는 뜻이다. 웅상나무가 곧 낙상나무가 된다. 낙雒은 수리부엉이, 또는 올빼미를 가리킨다. 부엉이도 올빼미과에 속하므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홍산 옥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뿔있는 부엉이, 즉 수리부엉이로 본다. 다시 말하면, 웅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즉 웅상수雄常樹라는 나무 위에 수리부엉이를 새기거나 올려놓았기 때문에 낙상雒常이라고 불렀다는 뜻이다. 요즘의 솃대를 연상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토템폴Totem pole이라고 한다.

따라서 웅雄이 가리키는 새는 ‘수리부엉이’ 곧 낙雒임을 『산해경』이 알려주고 있다. 현재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2호이다. 박시인에 의하면, “처음에는 세상에 땅이 없었다. 한 바다 위에 아주 작은 물건이 있었다. 까마귀가 그 위에 내려앉았다. 땅이 되라 하니 땅이 되었다”라는 신화는 신대륙 북부 태평양 연안지방의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까마귀는 대지를 창조한 천신이며, 자신의 역할을 했으나 아시아 알타이인의 신화에서는 이 까마귀 대신에 제비, 오리, 수리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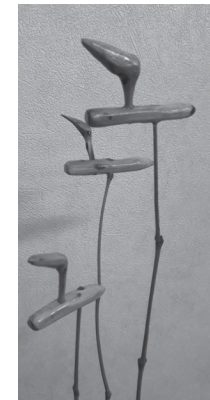
수리부엉이의 ‘수리’나 사람 머리위의 ‘정수리’는 공통적으로 높다, 신神을 뜻하며, 단오절을 ‘수릿날’이라고 할 때는 태양을 상징한다. 따라서 ‘수리부엉이’라는 말은 새에 태양, 신, 높이의 다중적 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해경』(『해외서경』)



『단군세기』



솃대



벤쿠버의 토템폴

그러면 『산해경』에서 말하는 수리부엉이 웅雄은 무슨 나무인가? 아니면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가? 이암의 『단군세기』가 답을 주고 있다.

경인庚寅 원년(B.C. 1891) 단군께서 오가五加에게 명하여 12명산을 골라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골라 국선國仙의 소도蘇塗를 설치하게 하였는데, 주위에 박달 나무를 많이 심어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환웅桓雄의 상像으로 봉하고 제사지냈다. 이름을 웅상雄常이라 하였다.⁶⁴⁾

『단군세기』는 웅상이라고만 하고, 웅상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나무의 의미만 강조되고, 구체적인 형상을 말하고 않았다. 아무튼 환웅桓雄의 상像을 봉하고 제사지냈다는 말에서 이 웅이 환웅임을 『단군세기』(11세 도해단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웅雄이라는 인물의 실존實存을 밝혀주는 것이며, 그 웅은 한국역사에서 환웅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웅의 상像은 무엇인가?

63) 박시인, 『알타이인문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368~369쪽.

64) “庚寅元年帝命五加 擇十二名山之最勝處 設國仙蘇塗 多環植檀樹 擇最大樹 封爲桓雄像而祭之 名雄常” 『단군세기』, 「11세 도해단군」.

『단군세기』는 다만 박달나무檀樹와 큰 나무大樹라고만 하고, 그 형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군세기』의 웅상이 『산해경』의 웅상에서 온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웅상이 곧 낙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나무 중에서 선정된 ‘가장 큰 박달나무’가 맨 박달나무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 있었을 것이다. 나무에 수리부엉이 형상을 새겨서 봉안했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수리부엉이 상을 올려놓고 봉안했는지 알 수 없으나, 환웅의 웅상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웅雄=낙雉=환웅桓雄이 된다.

이처럼 환웅은 단순한 천신족이 아니라, 새토템이었기 때문에 천신족이 되어 삼위태백산의 신단수로 강림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삼위三危의 산에는 『산해경』(『서산경』)에 세 마리 푸른 새가 사는 곳이라고 했다.⁶⁵⁾ 이는 삼위산이 가지고 있는 지명보다도 푸른 새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엉이(鵂)는 청색의 새라고도 한다. 고구려 씨름벽화에도 네 마리 새가 나무에 앉아 있고, 신라 금관에도 뿔 산山자가 3개 위에 3마리 새가 앉아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나무에 새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단수神壇樹, 웅상수雄常樹의 새도 환웅의 새인 수리부엉이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웅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태양을 뜻하는 환桓과 수리부엉이를 뜻하는 웅雄의 결합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환웅을 지칭할 때, 웅雄이라고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서 알 수 있다.⁶⁶⁾ 이는 환웅의 본래 이름이 웅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이름의 근원은 수리부엉이 새였던 것이다. 따라서 환웅은 태양의 밝음을 계승한 새토템의 조이족이라 할 수 있다. 이 수리부엉이 형상의 옥효는 요서遼西의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앞의 나사대유적이나 우하량유적 뿐만 아니라 부신현 호두구 묘장에서도 부엉이 옥효가 출토되었다. 이는 토끼 귀처럼 귀뿔있는 부엉이

새토템의 지역적 분포가 광범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두구묘장 M1-9호 출토 옥효(부엉이)



호두구묘장 M1-8호 출토 옥효(부엉이)

그리고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에도 조이鳥夷를 뜻하는 글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진몽가陳夢家是 『추이고佳夷考, 1936년』에서 ‘北佳夷북추이’ ‘西佳夷서추이’의 추이佳夷가 곧 조이鳥夷라고 해석했다.⁶⁷⁾ 이는 조이의 근원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또한 진몽가는 추佳와 달리 조鳥의 조건으로 뿔뿔한 부리, 긴 꼬리와 많은 깃털, 벼슬(冠)이 있는 것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⁶⁸⁾ 이는 새에 대한 인식이 추佳에서 점점 조鳥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고추’라 할 때의 ‘추’에 남근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추佳’나 ‘조鳥’나 다 같은 남근男根의 의미로 동시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공통성을 인식할 수 있다. 고구려 관직이름에 고추가古鄒加가 있다. 또 추이佳夷의 새 추佳자는 환웅의 이름자 웅雄과 관련하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65) “三危之山 三青鳥居之 是山也 有鳥焉 一首而三身 其狀如(樂鳥) 其名曰鵂” 『산해경』, 『서산경』.

66) 雄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雄 乃假化而婚之.

67) 陳夢家, 『佳夷考』, 『陳夢家學術論文集』, 中華書局(北京), 2016, 123쪽.

68) 陳夢家, 위의 책, 126쪽.

가 지닌 위대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옥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홍산문화 중에서 나사대那斯臺유적과 우하량牛河梁유적에 주목했다. 이들 옥기는 시기적으로 우리역사에서 단군이전인 환웅시대에 해당한다. 파림우기 나사대유적은 홍산문화 중에서도 중요한 곳으로, 빗(빛)살무늬 도기陶器는 물론 곰과 새, 남녀 신상이 동시에 발굴되었다. 서랍목문하를 경계로 북쪽의 나사대유적과 남쪽에 있는 우하량유적에서 새와 곰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나사대유적과 우하량유적은 다같이 부엉이옥기와 곰 옥기가 출토되었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동산취유적이나 호두구묘지에서도 부엉이 옥효가 추가로 출토되었고, 오한기에서도 옥효가 전해움에 따라 부엉이 옥기가 유일하게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필자는 우하량유적 등 최소한 5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엉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토렘으로 숭배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부엉이가 『산해경』에서 말한 그 수리부엉이로 판단하며, 『단군세기』에 따라 『산해경』의 웅상雄常을 신단수神壇樹와 같은 환웅의 웅상나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사대로부터 오한기, 동산취, 우하량, 호두구 일대를 포괄하여 환웅의 새토렘 영역으로 추정하며,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못내 아쉬워한 고힐강이 말한 ‘큰 종족一個大族’이란 환웅의 새토렘족인 조이족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솟대나 서양의 토렘폴에서 그러한 잔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환웅을 수리부엉이 새를 토렘으로 한 부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은, 종전의 서자 환웅, 또는 막연한 천신족⁷²⁾ 환웅, 곰족 웅녀의 상대방인 환웅에서 탈피하여 더 넓고 독립적인 환웅상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리지린이 제기한 조이설에 대한 논의를 홍산옥기로 입증함으로써 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조이족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차단해온 우리 사학계에게는

72)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64, 21쪽.

경종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 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홍산문화에 대한 황제귀속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도 후반에 중국 정부는 소위 요하문명을 자국 역사로 수용해 ‘황하문명과 요하문명은 중국 문명의 뿌리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중국인은 곰의 후예이다”라는 말로 황제黃帝를 곰신화⁷³⁾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짜맞추기 공정을 가한 것이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의 결론이다.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야심은 한국 내 식민사학자들과 손잡고 남한과 북한을 중국의 역사권에 편입해 패권을 추구하려는 데 있다. 그런 중에 모든 곰족은 황제의 후손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과 황제도 곰족(웅녀)의 후손이라는 한국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환웅이 새토렘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감에 따라 새토렘과 무관한 곰신화만의 주인공인 황제문화는 들어설 곳이 없게 되었다. 우리부터 곰토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 일제의 조작된 신화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중국으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환웅 새토렘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민족은 본래 환인의 태양토렘과 환웅의 새토렘으로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삼국유사』는 아버지 환웅 새토렘 계열과 어머니 웅녀 곰토렘 계열의 결합을 민족의 역사 기원起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단군세기』에 단군왕검의 아버지는 단웅檀雄이며, 어머니는 웅씨왕의 딸熊氏王女이라 한 것도,⁷⁵⁾ 이 역시 단군의 아버지를 웅雄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권덕규는 환웅의 신시시대와 단군 조선시대의 사이에 500년 ‘단(壇, 檀)’ 나라가 있

73) 김선자, 『홍산문화의 황제영역설에 대한 비판—곰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곰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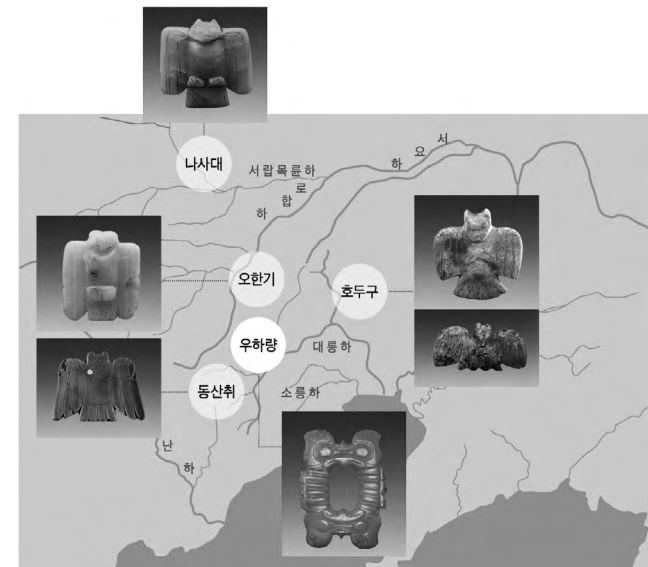
74) 이유진, 「예수센의 곰 토렘, 왜 문제적인가」, 『中國語文學論集』 77, 2012.12 참조.

75) “古記云 王儉父檀雄 母熊氏王女. 辛卯(紀元前37年)五月二日寅時 生于檀樹下 有神人之德 遠近畏服.” 『단군세기』, 『단군왕검편』.

었다고 했다.⁷⁶⁾ 윤내현도 한국 고대사회의 사회발전 단계의 특징을 ‘환인시대→무리사회’, ‘환웅시대→마을사회’,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시대→고을나라’,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대→국가 사회’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환웅과 웅녀의 결혼(결합)시대를 별도로 구분했다는 것은 홍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의 있는 관점이다.⁷⁷⁾

결론적으로 홍산옥기의 부엉이가 곧 환웅의 ‘웅새’라고 보는 것이다. 환웅은 수리부엉이 새를 토tem으로 삼은 ‘태양족을 계승한 조이족’이었으며, 환웅 자신이 요서遼西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 조이족의 최고 지도자였다. 따라서 홍산문화는 이민李民의 주장대로 조이족에 귀속되며, 그 조이족은 다시 환웅의 조이족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수리부엉이’가 환웅과 신시의 새토tem이었음을 옥기라는 유물과 문헌 자료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요서의 홍산문화는 실존했던 환웅의 신시홍산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웅의 실존이 입증된 만큼 아슬거린 단군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시비가 무의미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전국 각지에 부엉산(대략 8곳), 부엉골(대략 34곳) 등이 산재해 있다는 면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부엉이 숭배관념은 매우 오랜 것으로, 홍산옥기의 6000년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환웅의 조이족이라는 말과 신시 오가五加(호가, 우가, 마가, 웅가, 노가 등)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부엉이 옥효로 본 환웅과 신시문화의 영역(추정)

76) 권덕규, 『조선유기』, 상문관, 1924, 4쪽; 『조선사』, 정음사, 1945, 4쪽.

77)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131 · 141쪽.

〈참고문헌〉

1. 원전

『규원사화』

『단군세기』

『사기』

『산해경』

『삼국지』

『설원』

『通典』

2. 국내, 북한 논문, 단행본

郭大順 주편, 이종숙 외 역, 『紅山文化』, 동북아역사재단.

권덕규, 『조선유기』, 상문관, 1924.

권덕규, 『조선사』, 정음사, 1945.

金寬雄, 「古朝鮮의 檀君神話와 東夷文化의 聯關性」, 『淵民學志』 15, 2011.

김미란, 「홍산문화로 본 선사시기 동북아지역 민족의 공통점연구」, 『한국문화논총』 66, 2014. 4.

김선자, 「홍산문화의 황제영역설에 대한 비판—금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금신화와 중화 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정열, 「홍산문화의 이해」,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1), 2017.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평양), 1963.

박시인, 『알타이인문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손성태, 『우리민족의 대이동』(멕시코편), 코리, 2014.

우실하, 「요하문명론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단군학 연구』 21호, 2009.11.

유창균, 『문자에 숨겨진 민족의 연원』, 집문당, 1999.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64.

이유진, 「예수센의 곰 토템, 왜 문제적인가」, 『中國語文學論集』 77, 2012.12.

이찬구,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개벽사, 2018.

최남선,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5.

3. 해외논문, 단행본

『牛河梁』,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2014.

顧頡剛, 「鳥夷族的圖騰崇拜及其氏族集團의 興亡」, 『史前研究』 2000. 09.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北京), 1996.

譚其驤 主編, 『簡明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北京), 199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牛河梁—發掘報告』(中), 文物出版社(北京), 20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市文化局 編, 『牛河梁遺址』, 學苑出版社(北京), 2004.

劉國祥, 「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 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 『赤峰學院學報·紅山文化研究專輯』, 赤峰學院·赤峰市文化局, 2006. 8.

李民, 「試論 牛河梁東山嘴紅山文化的歸屬—中國古代文明探源之一」, 『鄭州大學學報』 1987. 2기.

李倍雷, 「紅山文化中玉鳥의 圖像學意義與藝術風格」, 『廣西藝術學院學報』, 『藝術探索』 20 권 4기, 2006. 10.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

文崇一, 「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 5집(臺北), 1958 춘.

文日煥, 「朝鮮古代鳥崇拜與卵生神話之起源探究」, 『中央民族大學學報』 권 30, 哲學社會科學版, 2003. 6기.

濱田耕作·水野清一, 『赤峰紅山後—滿洲國熱河省赤峰紅山後先史遺跡』(甲種第6册), 東亞考古學會, 1938.

索秀芬·李少兵, 「那斯台遺址再認識」, 『紅山文化論著粹編』, 遼寧師範大學出版部, 2015.

楊福瑞, 「紅山文化氏族社會的發展與圖騰崇拜」, 『赤峰學院學報』 35, 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4. 5기.

王惠德, 「鳥圖騰의 濫觴—兼談東夷文化」, 『昭烏達蒙古族師專學報』, 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0. 3기.

張雪秋·張東中, 『紅山文化玉器』, 黑龍江大學出版社, 2010.

田廣林 외, 『紅山文化論著粹編』, 遼寧師範大學出版部, 2015.

趙春青·秦文生, 『圖說 中國文明史』(1), 創元社(東京), 2006.

朱成杰, 「從玉神物說來理解紅山文化玉器的本質內涵」, 『中國玉文化玉學論叢』 3편 상, 紫禁城出版社, 2005.

陳夢家, 『佳夷考』, 『陳夢家學術論文集』, 中華書局(北京), 2016.

陳逸民 외, 『紅山玉器圖鑑』, 上海文化出版社, 2006.

崔岩勤, 「牛河梁紅山文化遺址出土動物形玉器探析」,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38권, 2017. 05.

巴林右旗博物館, 「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遺址調查」, 『中國考古集成』(東北 4권), 北京出版社, 1997.

何光岳, 「肅慎族的起源與北遷」, 『黑河學刊』 40, 1991.2.

何光岳, 「鳥夷族中諸鳥國的名稱和分布」, 『東夷古國史研究』 2집, 三秦出版社(山東), 1989.

[Abstract]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Liaoxi(遼西) Hungshan Culture and Hwanung Jo-Yi

Lee, Chan Goo

The study is to elucidate what clan created Hungshan(Hongsan) Culture(紅山文化) in reality. Jade tools(玉器), the treasure of all history, is widely said to represent Hungshan Culture. The Jade Culture which originated around at B.C. 3000 through B. C. 4000 has such a integrity that we can now appreciate the Hungshan Jade as it was and as it has been.

This article focused on Niuheiliang(牛河梁) historic sites among Hungshan Culture in the process of analyzing Jade tools. The times of Niuheiliang Jade represents those of Hwanung(桓雄) antecedent to Dangun(檀君) in Korean history.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worshiped Owl(玉鴞) as totem which was simultaneously excavated at least five regions including Niuheiliang historic sites. The Owl can be interpreted as the Bubo bubo in Shanhaijing(山海經). Dan-gun segi(檀君世紀) says Ungsang(雄常) in Shanhaijing stands for Hwangung tree(雄常樹).

At an early time Chinese historian Gu Jiegang(顧詒剛) pointed out that ‘Great-clan’ vanished from history is Hwangung’s Bird-totem group, Jo-Yi. Li min(李民) from China also believed that Hungshan Culture is Jo-Yi Culture(鳥夷文化) of ancient people in northeastern Asia. Bird-toem traces can be caught at both Korea Sot-Dae and occidental Totem Pole. It is repeatedly said that Jo-Yi clan(鳥夷族) means Bird-Totem of Dong-Yi(東夷).

Accordingly the owl of Hungshan Jade can be regarded as the ‘Ung-Bird’ of

Hwanung, Hwanung was Sunworship-successor Jo-Yi Clan that took Bubo bubo Bird as their Totem. It can be accepted that Hwanung was a Jo-Yi supreme leader who exerted wide influence on the whole Liaoxi. Consequently Hungshan Culture belongs to Hwanung's Jo-Yi.

Korea Ancient History can widen and deepen itself after it is understood that Hwanung or the great clan leader, took Bubo bubo Bird as their Totem. The study can be expected to accelearte to pave the way for more comprehensive and more independent Hwanung, apart from the images of previous Seoja-Bu Hwanung, inexplicit God Hwanung, the counterpart of Bear-totem group Ungnye(熊女).

Key Words : Hungshan Culture, Jade tools, Hwanung, Ungsang, Bubo bubo Bird, Jo-Yi Clan

『역사와융합』 제 3집(2018. 12)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 명 옥(전국대)

－ 차 례 －

1. 여는 글
2. 일제 강점기 단군신화 인식
3. 북한, 단군의 역사성 논증
4. 남한, 단군 역사성의 허구
5. 닫는 글

【국문 초록】

이 글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남·북한에서 단군신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다. 일제식민사학자들은 식민지배이데올로기로서 일선동조론을 창안한다. 한편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일본 국체가 다른 나라의 영향 없이 유구한 존재로 형성되었다는 논리를 보증하기 위해 일선동조론을 비판하고 단군부정론을 만든다. 단군부정론은 두 가지다. 단군은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몽전설의 이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민족사학자들은 단군부정론을 비판하며 역사적 실체로서 단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북한은 1960년대 초에 고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

고, 그 과정에서 단군신화도 연구되었다. 북한은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단군신화를 인식했다. 그러나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창안하면서 북한은 고조선의 중심을 평양으로, 고조선 건국시기를 30세기로 끌어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반면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창안한 단군부정론을 그대로 계승했다. 단군신화가 주몽설화 이본이라는 설과 묘향산의 산신 연기설화 혹은 불교의 영향설을 그대로 추종한다. 한편 ‘단군의 역사성’이란 말로도 단군부정론을 호도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민족의 침략과 일제강점기처럼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군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이것이 단군의 역사성이라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단군신화가 국가의 위기 때마다 호명되어 전승되는 것을 ‘단군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강단사학계가 주장하는 ‘단군의 역사성’은 만들어진 단군신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즉 ‘단군신화 전승사’를 단군의 역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제어 : 단군신화 전승사, 단군의 역사성, 단군부정론, 일선동조론, 남 · 북한 단군신화 인식

1. 여는 글

이 글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남 · 북한에서 단군신화¹⁾에 대한 인식을 살펴, 단군신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고갱이로써 연구 단초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로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단군의 역사성’이다. ‘단군의 역사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고조선 건국의 실체로서 실재 단군을 인식하는 것이 그 하나요,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단군이 시대에 따

라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로 보는 것이 다른 하나다. 전자는 민족사학자 또는 ‘비강단사학자’들의 인식이고, 후자는 강단사학자들의 인식이다.

단군의 실존을 둘러싼 논쟁, ‘역사 실존’으로서 인식과 ‘만들어진 신화’로서 인식 논쟁은 강단사학자 대 ‘비강단사학자’의 대결양상처럼 보인다. 강단사학자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반면에 비강단사학자들은 비합리적이고 객관성 없는 ‘비실증적’이라고 주장한다.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은 정말 실증적인 근거가 있고, 비강단사학자들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단군역사성에 대한 논쟁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그 지형을 살펴야 ‘단군의 역사성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글이다.

단군의 역사성 논쟁은 구한말에 일본 학자들이 단군을 정한론의 근거로 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군을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이용하다가 강점 후 ‘만들어진 신화’로 부정하였다.²⁾ 민족사학자들은 한민족의 시조로 역사의 실존자로³⁾,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적 사관에 따라 단군을 인식했다.⁴⁾

단군신화의 역사성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을 남과 북에서 어떻게 계승하는지 살피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북한 건국 초기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단군신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가 기원과 역사지리 등에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인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식의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전향한 중요

2)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단군고』, 1894; 오다 쇼고(小田省吾), 『단군전설에 대하여』, 124; 이마니시 류(今西龍), 『단군고』, 1929;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구마나리고』, 1935 등이 대표적이다.

3) 최남선을 비롯해 신채호, 박은식, 김교헌 등이 대표적이다.

4)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를 다루면서 서론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표했다.

1) 필자는 단군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의미로 ‘단군신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 연구자는 이경섭이다.⁵⁾ 북한에서 단군신화 논의는 중요한 시기마다 굴절되는데 이경섭의 논의는 1980년대와 단군릉 발굴 이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단군릉 발견 이후 단군 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정빈과 이재원의 논의가 있다.⁶⁾ 이정빈은 단군릉 발견 이후 단일혈통이 한층 강조됨을 특징으로 잡고 단군을 초역사적, 민족을 역사적 실재로 전화시키는 매개 고리로 보았다. 단군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민족'을 위한 것으로 민족주의를 독점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한다. 이재원은 단군릉 발굴 이후 단군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남·북한·일본·중국 등이 단군신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연구사 중심으로 서술한 연구자는 조범중이다.⁸⁾ 그는 연구사 정리를 통해 단군신화에 대한 방법론의 변화가 없는 한 단군에 대한 두 가지의 인식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관점의 문제임을 간과한 제언이다.

이 글은 '단군신화의 역사성'에 대한 검토다. 이는 남과 북이 공동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민족 시조에 대한 인식의 거리가 있음을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인식의 거리가 낡는 기원과 과정을 살핌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라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5)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Vol.45, 한국고대학회, 2015.

6)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1993년 이후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Vol.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7)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 『고조선단군학』, Vol.13, 고조선단군학회, 2005.

8) 조범중,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Vol.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2. 일제 강점기 단군신화 인식

일제 강점기 단군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고조선 건국의 주체인 단군을 역사적 실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이다. 단군신화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이며 따라서 단군은 허구라는 일본 식민사학자들과 우리 민족 시조로서 단군의 실존을 인식한 민족사학자들 그리고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해 단군신화를 해석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그것이다.

먼저 일본이 어떻게 단군을 인식하고 부정했는지, 그 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개항한 일본은 제국주의 패권을 접하면서 아시아 내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정한론을 내세우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필요했다. 언론을 이용해 조선인에 대한 멸시감을 조성하는데,⁹⁾ 『조선朝鮮』의 편집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와 샤쿠오 순조(釋尾春苐)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감 조성이 식민정책 입안

9) 메이지 시대 활동한 소설가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는 1892년 6월 25일에 『오사카아사히신문 大阪朝日新聞』에 『계림정화 춘향전雞林情話 春香傳』을 번역 연재하고,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 『호사취<胡砂風吹>風』를 발표하였다. 조혜숙, 「메이지(明治)시대 조선 문화의 소개양상-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胡砂風吹<風>에 대해서」, 『일본사상』 Vol.16, 한국일본사상학회, 2009. 조혜숙이 요약한 소설 내용에 따르면 부산의 왜관에 머물고 있던 마사쿠로는 묘지참배가 허락된 7월 15일에 우연히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있던 원소연을 구해준다. 정사석의 계략으로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멸망했으며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하자 도망한 것이다. 이에 마사쿠로는 소연을 몰래 일본관까지 데려오고 얼마후 둘 사이에 임정원이 태어난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마사쿠로는 조선인 부인을 데려 갈수 없다는 국법 때문에 임정원을 일본인 어부에게 부탁해서 몰래 일본으로 보낸다. 임정원은 13세까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마사쿠로의 죽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다는 생각에 조선어를 배워 조선으로 건너간다. 나카라이 도스이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조선의 토지, 풍속, 인정의 변화, 제도, 문물, 공예 등을 소설 끝에 덧붙이겠다고 밝힌다. 그가 소개한 조선문화는 '일본은 문명'이고 '조선은 야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908년에 창간한 『조선朝鮮』은 종간되는 1911년 12월까지 일관되게 그 기조를 이어간다. 1908년 8월에 속선俗仙이 쓴 「반도생활회고록」(1)을 보면 "한인이란 높은 자못 파렴치한 인종이고 게으르다. 한두 마디 말해서 듣는 동물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개돼지와 비슷하다. 말보다는 주먹이 쏙이 빨리 정리가 된다"(俗仙, 「半島生活回顧錄」1, 『朝鮮』 1-6, 1908.8, 61~64쪽.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Vol.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111쪽에서 재인용.)라든가 조선 최초로 들어온 화가로 알려진 도리고에 세이시(鳥越靜岐)는 조선인에 대해 시감이 둔해서 색의 배합도 몰라 흰옷만 입고, 청감이 둔해 음악이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이라 짜증이 나며, 후감이 둔해서 번기를 방에 두니 불결하고 미감이 둔해서 고추를 즐겨먹고 맛을 식별할 줄 모르며 촉감이 둔해서 여름에 목욕하지 않고 겨울에 흰옷만 입는다고 한다.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Vol.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에 적극 활용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¹⁰⁾

언론인인 기쿠치¹¹⁾와 사쿠오¹²⁾는 침략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조선문화와 역사를 연구한다. 기쿠치는 조선 내의 청일 · 러일전쟁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일본이 승전한 발자취를 기록하고 일본신이 강림했다고 하는 소시모리(曾尸茂梨)와 임나일본부의 유적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관계를 강조”¹³⁾ 한다. 이것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¹⁴⁾ 임나일본부설에 기대서 조선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제공하려고 그 유적지를 찾아 소개하려는 것이었다.

스사노오의 유적지 소시모리가 강원도 춘천이라고 주장한 이는 호시노 히사시(星野恒)다.¹⁵⁾ 소시모리는 “신대에 스사노오(素戔鳴尊)가 한국을 왕래하고 지배했다”는 고대 일본의 조선 진출설에 기반한 것이다.¹⁶⁾ 소시모리는 우리말 소머리에 해당한다. 한자로는 우두(牛頭)인데, 『삼국사기』에 신라의 우두방, 낙랑의 우두산성, 우두주 등이 나타난다. 호시노 히사시는 낙랑지방에 우두산이 없으므로 신라의 우두방이 지금의 춘천이라고 본 것이다.¹⁷⁾ 그러나 ‘소시모리=춘천’설은

10) 최혜주, 위의 책.

11) 기쿠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으며 『한성신보』(1900)과 『대동신보』(1904)사장으로 역임하면서 조선침략과 식민통치 합리화를 선전하는 한편 한국연구회 · 조선연구회 · 조선고서간행회 등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조선에 대한 입문서를 저술했다. 최혜주, 위의 책.

12) 사쿠오는 哲學館(東洋大學의 전신) 출신으로 조선과 중국에 관심을 두고 신문 사업에 종사했다. 1900년에 부산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듬해에 대구의 달성학교로 전근한다. 1903년에는 교사를 그만두고 경성으로 올라와 조선과 조선인을 연구했다. 1908년에 조선연구회를 만들고, 고서 간행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혜주, 위의 책.

13) 최혜주, 위의 책, 85쪽.

14) 황순중,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만권당, 2017, 71쪽.

15)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Vol.21, 역사문제연구소, 2009, 380쪽.

16) 장신, 위의 책; 박규태, 「스사노오 신화해석의 문제 : 한반도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종교와문화』 Vol.1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17) 星野恒, 「本邦ノ人種言語二府鄙考ヲ術テ世ノ眞心愛國者ニ質ス」, 『史學會雜誌』 11, 1890, 20쪽을 장신, 위의 책, 380쪽에서 재인용.

조선신궁 제신논쟁 과정에서 다카기 마스타로(高本益太郎)에 의해서 확산되었고 1926년에 춘천군이 신북면 우두산을 소시모리라 부르면서 정설처럼 굳어졌다.¹⁸⁾

일선동조론자들은 스사노오가 일본 개국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동생이며, ‘스사노오가 곧 단군’이라고 주장한다.¹⁹⁾ 메이지 시기에 주창되고 한일병합의 직전에 본격적으로 고조된 일선동조론은 조선침략을 정당화한 논리로 제공되는데, 큐스일보 사장 겸 주필이었던 후쿠모토 니치난(福本日南)은 1906년에 ‘관서신직연합회’ 제1차 대회의 연설에서 소시모리 전승을 들면서 신도로써 한국보호정책에 임해야 한다며 ‘단군=스사노오’설을 내세운 것이다.²⁰⁾ 그러나 단군이 스사노오라는 것과 춘천이 소시모리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일선동조론은 메이지 초기 ‘국사’편수 과정에서 일어난다. “1889년 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설치된 국사과 교수인 구메 구니타케(久米那武)와 호시노 히사시(星野恒)”²¹⁾의 주장을 보자. 구메는 1889년 『사학회잡지』 창간호와 2호에 「일본폭원의 연혁」을, 호시노는 11호에 「우리나라의 인종, 언어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고 진정한 애국자에게 묻는다」를 실었다. 구메는 『고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신찬성씨록』을 통해 일본국가의 일체성을, 호시노는 언어나 인종의 동일성이란 결론을 도출한다.

일선동조론은 기존의 국학자들과 대립된 논리였다. 구메는 1891년에 “신도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통점인 하늘을 모시는 풍속

18) 장신, 위의 책.

19) 장신, 위의 책.

20) 박규태, 「스사노오 신화해석의문제 : 한반도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종교와문화』 Vol.1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21) 미쯔이 다카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학문적 기반에 관한 시론—한국병합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Vol.3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6.

의 하나에 불과”²²⁾하다는 논문을 『사학회잡지』(제23~25)에 발표한다.²³⁾ 구메는 신도가들의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추방된다. 그의 동료였던 시게노와 호시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화사건을 겪은 것이다.

필화사건 이후 일선동조론은 제국대학 국사과가 아니라 민간인들과 언론에 의해 유포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며 한일병합의 논리로 제공되었다가 병합이후에는 일본의 국체론과의 연관성에서 부정된다. 국체론은 가족국가관 특히 황실과 국민의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 황실과 국민사이에 충효사상을 넣어 ‘충군 애국’사상을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체론은 일본국민과 천황사이에 가족이지 식민지 국민과는 국체가 될 수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되면서 일선동조론은 비판을 받게 된다.²⁴⁾

일선동조론의 비판론자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다. 애초에 일선동조론자였던 그는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는 것이 일본 국체의 역사성을 찾는 것이며, “일본 국체가 다른 나라의 영향 없이 유구한 존재로 형성되어 있다는 논리를 보증하기 위해”²⁵⁾ 일선동조론을 비판한 것이다. 1891년 구메의 필화사건으로 일선동조론이 한풀 꺾일 즈음 나가 미츠요²⁶⁾는 「조선고사고」(1894)을 통해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된 뒤에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²⁷⁾라고 단군의 실존성을 부정한다. 그는 『동국통감』의 서문에 “우리 동방은 단군에서 시작하여, 기자를 거쳐, 삼한에 이르렀으나”²⁸⁾라고 씌여 있지만 “이를 징험할 전적이 없다”고 비판한다. 『사기』·『한서』·『삼국지』의 ‘조선·한·예’지에서 뽑은 것은 있어도 삼한 이전의 역

사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오직 그 서문 단군의 전기만은 중국 사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지은 것이다”²⁹⁾라고 단군의 실체를 부정한다. 『동국통감』의 단군기사는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뽑았다”³⁰⁾는 것이다.

나가 미츠요의 「조선고사고」(1894년)는 논문이 아니라 2쪽짜리 단상이다. 그의 단상을 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조선 국체가 다른 나라의 영향 없이 유구한 존재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學習院輔仁會雜誌』(1894)에 「단군고」를 발표한다. “단군전설은 승려의 허구로 태백산에 향목이 많이 나므로 이를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기고 그 향목을 우두전단의 종류로 보고, 그 나무 아래 내려온 인연으로 단군이라고 이름 지은 것”³¹⁾이라며 “단군의 일은 모두 불성의 우두전단에 근거한 가공의 이야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³²⁾고 했다. 그리고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불교가 조선에 도래했으니 단군전설은 이후에 만들어 졌을 거라며 구체적인 단군신화 창작 연대설을 제시한다.³³⁾ 승려가 만들어 냈다는 단군신화에 대한 나가 미츠요의 단상을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그 창작연대 연대시기까지 구체화한 것이다.

나가 미츠요의 단상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사학자들의 지침서처럼 어떠한 이견 없이 절대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단군신화는 ‘승려들이 만든 이야기’라는 기본 전제 아래, 요다 쇼고는 1924년에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와 평양 선인의 전설이 합해진 평양의 개벽연기전설로 고려 원종(1259)부터 충렬왕(1308)년 사이에 창작되었다고 보았다. 이마니시 류는 고려 인종(1122)부터 고종(1259) 사이에 만들어 졌으며, 주몽신화의 변형이 단군신화라고 주장한다. 미시나 쇼에이는 구체적인 단군신화 창작연대는 말하지 않지만,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생겼다고

22) 미쓰이 다카시, 위의 책, 253쪽.

23) 제목은 「신도는 하늘을 모시는 옛 풍속」이다.

24) 미쓰이 다카시, 위의 책.

25) 미쓰이 다카시, 위의 책, 261쪽.

26) 那珂通世의 발음 표기를 만권당은 나가 미츠요, 민속원은 나가 미쓰요, 동문선은 나가 미치요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용하는 책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27) 나가 미쓰요, 「조선고사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65쪽.

28) 나가 미츠요, 위의 책, 165쪽.

29) 나가 미쓰요, 위의 책, 165쪽.

30) 나가 미쓰요, 위의 책, 166쪽.

31) 시라토리 구라키치, 조경철, 「단군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4쪽.

32) 시라토리 구라키치, 위의 책, 15쪽.

33) 시라토리 구라키치, 위의 책, 19쪽.

한다. 다카하시 도루도 주몽이 단군에 해당하는데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일대의 착오가 있고, 부루를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거가 없으므로 부여 개국설이 단군고기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³⁴⁾

일제식민사학자들은 일관되게 단군신화는 승려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라고 한다. 몽고 침략으로 민족 결집을 위해 묘향산 산신의 연기 설화나, 주몽신화 그리고 부여 개국신화 내용을 끌어와 단군신화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은 조선 역사의 시·공간 축소를 위한 것인데, 1차 사료까지 조작했다.

왕험성에 대해서 신찬은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³⁵⁾고 주석을 달았다. 그런데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신찬이 말하길 ‘왕험성재낙랑군패수지동야(此溟水爲鴨綠江).’”³⁶⁾라고 사료를 조작했다. 즉 “신찬이 말하길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패수는 압록강이다”라

34) 단군신화에 대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허황된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김명옥, 「단군이 신화의 세계로 쫓겨난 이유는?」,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만권당, 2017, 187쪽에서 인용.

식민사학자 명	단군에 대한 날조 내용	출처
나카 미치요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다.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1894)
시라토리 구라키치	불설의 우두전단에근거한 가공의 선담으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부터 양원왕 7년(552), 특히 장수왕(413~491)시대에 만들어졌다.	「단군고(檀君考)」(1894)
오다 쇼고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와 평양 선인의 전설이 합해진 평양의 개벽연기전설로 고려원종(1259)부터 충렬왕(1308) 사이에 창작되었다.	「단군전설에 대하여」(1924)
이마니시 류	단군은 부루의 아들이며 주몽신화의 변형이 단군신화로 고려 인종(1122)부터 고종(1259) 사이에 만들어졌다.	「단군고(檀君考)」(1929)
미시나 쇼에이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단군신화가 생겨났다.	「구마나리고(久麻那)利考」(1935)
다카하시 도루	주몽이 단군에 해당하는데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일대의 착오가 있고, 부루를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거가 없다. 부여 개국설이 단군고기의 존재가 된 것이다.	「삼국유사의 주(註)와 단군전설의 발전」(1955)

35) 『사기』, 「조선열전」

36) 시라토리 쿠라키치, 위의 책, 28쪽.

고 해서 마치 신찬이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신찬은 “왕험성은 패수 동쪽에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시라토리는 신찬이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료를 조작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패수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고대 중국의 어느 주석가도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1차사료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단군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축소시키려는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하기 위해서였다.

시라토리 쿠라키치는 단군기사가 수록된 『연려실기술별집』 권19의 ‘삼한고기’에 대해서 “삼국의 건국이 서한말보다 뒤의 일이라면 고기의 연대를 아무리 끌어올리더라도 단군시대(요순하시대)와 비교하면 너무 연대차이가 난다. 단군과 삼국의 사이에 조선반도는 기자의 조선과 위씨의 조선이 있었고 마침내 중국 한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중국 한나라 땅의 일부 분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³⁷⁾고 한다. 단군조선의 시기는 BC2333년이 될 수 없고, 고조선의 강역은 ‘조선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해 마침내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조선의 국체’와 ‘조선 민족의 기원’을 부정하기 위해 단군을 허구의 인물로 만든 것이다.

일본이 식민지배 논리를 만들기 위해 조선은 고대로부터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지배를, 남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논리를 앞장서서 만든 이들이 일제식민사학자들이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동조론을 내세웠다. 침략 후에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제공으로서 단군을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단군을 왜곡했던 것이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단군 신화 왜곡에 민족사학자들은 강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최남선은 오다 쇼고가 1926년 2월 『문교의 조선』에 발표한 「단군전설에 대하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37) 시라토리 쿠라키치, 위의 책, 10쪽.

이번 二月號에 실린 京城帝國大學 豫科部長이라는 小田 某의 〈所謂 檀君 傳説에 對하여〉라는 論文과 같은 것은 그 중에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妄論 悖說임을 辨破치 아니치 못할 者라 할 것이다.³⁸⁾

이 글은 1926년 2월 11자 『동아일보』에 「檀君 否認의 妄」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최남선은 단군 신화를 묘향산 산신 연기설화와 평양 선인 전설이 합해진 평양 개벽연기전설이라는 요다 쇼고 말이 사리에 어긋난 망령된 말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최남선의 「단군론」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단군부정론을 정면 비판한 글로서 1926년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7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그는 나가 미즈요를 비롯한 시라토리 쿠라키치, 이마니시 류 등의 주장을 ‘문헌 편중의 폐’와 ‘민족학적·민속학적 관찰의 결여’라고 방법론적으로 지적한다. 전자는 ‘記錄 本位の 弊’로써 일본학자들은 『삼국유사』 자료를 단군의 畵生明³⁹⁾으로 본 것과 ‘字面 本位の 弊’로써 표면의 자구에 너무 얽매어 도리어 기록의 性質 곧 배경 및 성립 내역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⁴⁰⁾

후자에 대해서는 어느 민족이나 천지개벽·인문 기원·씨족 본원에 관한 신화나 전설을 배경으로 한 원시 신앙·원시 법제를 담고 있는데, 조선인에게만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奇現象이라고 한다. “몇천 년 전의 국조신화, 극히 유지하다고 하고 소박하다고 할 건국신화가 몇천 년 뒤 다 밝은 세상에 홀연히 특수한 작자의 손에 출현하여 금시에 일반 민중의 시사적 맹종을 사게 되었다는 기설이 성립”⁴¹⁾ 된다는 말이 신기하다며 설사 단군신화가 필요에 따라 창작했을 지라도

38) 최남선, 「단군 부인의 망-(문교의 조선)의 광론-」, 『전집』 2, 77쪽.

39) 최남선은 ‘단군의 전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전생명은 단군이 태어나 고조선을 세우고 다스리다 산신이 되는 일천구백여덟 살을 뜻하는 것 같다.

40) 최남선, 「단군론」, 『전집』 2, 93쪽.

41) 최남선, 위의 책, 93쪽.

“백지의 맹랑한 말이 개벽한 사회에서 전민중의 신앙을 살수 없음”⁴²⁾을 안다면 “그 대본 혹은 의거 골자로서의 그 본생적·전사적 방면에 웬만한 주의를 더함이 우리 양심의 명령”⁴³⁾일텐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덮어놓고 없애버리려고 해서 전설적 생명까지도 제 값을 못할 뿐아니라 그들에게 “단군이 얼마만큼이라도 사실의 배경을 가졌다면 애초에 문제도 될 리 없었다”⁴⁴⁾는 것이다.

또 최남선은 “국조 단군의 설이 민족적 반향 정신의 산물이라 함은 실로 본말이 전도”⁴⁵⁾된 것이라면서 일제에 항거하는 수단으로서 단군을 국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선의 오래된 전설, 고유한 신념에는 단군을 국조로 하는 밖에 아무 다른 것이 없”⁴⁶⁾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단군전설이 점차 세력을 잃은 데에는 중국과의 영향으로 기자설이 발생한 것 때문이고 수많은 기록이 소진된 가운데도 남아 있는 약간의 문자는 “외교적 필요와 유교적 의리 하에 작성”⁴⁷⁾했기 때문이다. 단군신화가 민속적 전설적 색채를 띠게 된 이유이자 단군을 문헌적 본위·문자적 본위로의 고찰은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⁴⁸⁾

중국에 대한 사대의 폐는 극심해서 중국적인 것이 되거나 중국의 관념 하에 기형적 존립을 계속하였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모두 소멸되는데, 강인한 심고의 본질을 가진 이를테면 단군고전 같은 것은 이런 “무서운 시련과 도태를 지내면서도 그래도 질긴 생명을 하대에까지 보유한 것은 민족적 또는 사회적으로 뽑으려해도 뽑을 수 없다.”고 한다. 또 일제식민사학자들이 단군신화를 만들어진 신화라는 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42) 최남선, 위의 책, 93쪽.

43) 최남선, 위의 책, 93쪽.

44) 최남선, 위의 책, 93쪽.

45) 최남선, 위의 책, 95쪽.

46) 최남선, 위의 책, 95쪽.

47) 최남선, 위의 책, 95쪽.

48) 최남선, 위의 책, 95쪽.

조선은 說話的으로 生長한 나라가 아니라 漸滅해 온 나라이니, 壇君 기타의 建國傳說 같은 것이 中間에 發生성립된 것이기는커녕, 없어지다 없어지다 못 하여, 남고 없애려다 없애려다 못하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⁹⁾

중간에 발생하기는커녕 없어지다 못하고 없애려 해도 그럴 수 없으며 일제식 민사학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단군이 무엇임을 알 수 없어서, 없다고 작정해버린 것이 단군신화라고 한다.⁵⁰⁾ 일본인들은 우리 역사를 편견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 문물이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는 억지로 묵살해 버리고, 중국의 기록에 없거나 있어도 이형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민족을 억지로 양분해서 남북으로 나누고 단군고전은 북방에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적으로 볼 단군을 중국 눈으로, 자주성으로 볼 것을 의타적으로, 대동적으로 볼 것을 할이적으로 보려한다는 것이다.⁵¹⁾ 일본은 일본역사가 조선에 비하여 연대상 후배가 아니고 싶고, 고대에 문화적 은택을 입은 일이 없노라고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학자들이 학자적 양심과 정치적 요구에 갈등 없이 순응하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남선은 “朝鮮의 人文的 모든 것이 壇君에 비롯하였다 함은 우리의 오랜 傳統的 信念입니다. 이것으로써 歷史의 起頭를 삼으며, 이것으로써 氏族의 淵源을 삼아서 아무도, 또 조금도 疑心하려 아니”한다. “壇君을 제쳐 놓으면 朝鮮이란 長江의 샘 밑이 막히는 것”⁵²⁾으로 보았다. 최남선은 단군이 우리 역사의 기원이며 민족의 원류임을 의심치 않았다.

신채호는 “우리 동국을 개창하신 시조는 단군이 아니신가”⁵³⁾라며 단군이 우리

시조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단군신화를 『삼국유사』 「고기」편에 “제석이니 웅이니 천부니 하는 따위가 다 불전의 명사이며(중략) 이것이 순수한 조선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 불교가 수입된 이후에 불교도의 손에 점철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⁵⁴⁾면서도 “조선 고대에 단군왕검을 종교의 교주로 존송하여 왔음은 사실이고 ‘왕검’을 이두문의 독법으로 해독하면 ‘임금’될 것”⁵⁵⁾이며, “따라서 임금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당시에 유행하는 수두의 미신을 이용하여 태백산의 수두에 출현하여 스스로 상제의 화신이라 칭하고 조선을 건국”⁵⁶⁾했다고 본 것이다. 왕검을 임금이라는 대명사로 보고 또 당시에 유행하는 ‘수두’라는 미신을 이용한 것이지만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으로, 단군신화를 고조선 건국신화로 인식했다.

일제 강점기에 단군 신화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이는 백남운이다.⁵⁷⁾ 그는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연구방법론 뒤에 「단군 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라는 장을 구성해 단군신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백남운은 “설화적 관념 표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실증주의적 편견에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대립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⁵⁸⁾면서 전자는 신채호와 최남선이 대표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의도는 “단군 신화를 조선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을 독자적으로 신성화함으로써 동방 문화에의 군림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하나의 특수 문화 사관으로 그쳐 버렸다.”⁵⁹⁾는 것이다. 후자에 대한 비판도 보자.

54) 신채호, 『조선상고사』, 비봉, 2006, 94쪽.

55) 신채호, 위의 책, 95쪽.

56) 신채호, 위의 책, 95쪽.

57) 『조선사회경제사』는 1933년 동경 개조사(改造社)에서 발행되었다. 1990년대 초 하일식이 백남운 저서와 산문 및 잡지 등의 글을 모아 ‘이론과실천’ 출판사에서 『백남운전집』 4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경섭, 「白南雲의 단군신화 인식」, 『동국사학』 Vol.6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이 글은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을 참고하였다.

58)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 32쪽.

59) 백남운, 위의 책, 32쪽.

49) 최남선, 위의 책, 95쪽.

50) 최남선, 위의 책, 96쪽.

51) 최남선, 위의 책, 96쪽.

52) 최남선, 「壇君 及其研究」, 『전집』 2, 242쪽.

53) 신채호, 『조선상고 문화사』, 비봉, 2007, 94쪽.

혹은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든가(나카 미치요 那珂通世; 1851-1908, 동양 역사학자), 혹은 임시로 단군을 고구려의 국조(國祖)로서 만들어 낸 인물로 간주(시라도리 구라키치 白鳥庫吉; 1865-1942, 동양사학자)하는 것이다. 현재 경성대학의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 저서《朝鮮史大系4, 最近世史》)는 단군을 묘향산의 산신이라고 단정하며 무슨 커다란 발견이나 한 듯 자만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의 환상적인 독자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후자의 합리주의적인 거짓 물상도 반대하는 것이다.⁶⁰⁾

인용문은 일본 학자들의 단군 신화에 대한 해석론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백남운은 단군신화에 대한 독자적 해석도 실증주의라는 탈을 쓰고 거짓으로 평가하는 것도 비판한다. 그는 신화를 인간의 자연에 대한 또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생산 관계적 행동의 반영, 혹은 지배 복종 관념 형태로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⁶¹⁾ 그러나 백남운도 신화가 ‘현실 생활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형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단군신화를 부정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 우리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을 실존으로 인식했던 민족사학자들, 단군신화에는 원시사회의 반영으로 본 유물사관 등의 관점들이 해방 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장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살핀다.

60) 백남운, 위의 책, 33쪽.

61) 백남운, 위의 책, 33쪽.

3. 북한, 단군의 역사성 논증

북한은 국가건설초기부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특징이다.⁶²⁾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투쟁과 반제국주의로 방향을 정하는 한편 민족주의와 결합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로 이행하는데 북한의 경우 계급의 이익, 계급적 모순을 우선시 하되, 선진적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로 나아간다. 이러한 기조에서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으며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⁶³⁾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역사가 중점 논의되었다.

북한은 초기부터 역사연구기관을 설치하고⁶⁴⁾ 식민사관 극복과 유물사관에 의

62) 정영일, 「북한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민족공조’와 ‘김일성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Vol.56, 한민족연구원, 2013.

63) 최영목, 「북한의 역사연구기관 · 연구지 및 연구자 양성과정」, 『역사와현실』 Vol.3, 한국역사연구회, 1990.

64) 북한은 역사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1947년 1월 7일에 〈조선력사편찬회에 관한 결정서〉를 공포하고 역사연구기관인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역사편찬의 기본사상은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 즉 유물론적 사관에 의거해 “조선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옮겨 표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조국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들과 해방군의 과업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사의 편찬시기와 조직 및 기타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최근사는 1947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인원수는 2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청원”으로 임명한다. 당시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서는 역사연구자들이 폭 넓게 포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수립 후 1948년에 내각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 제 11호)를 채택하여 교육상 백남운에게 편찬위원회를 선임케 한다. 이 결정서에 따라 교육성에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자료수집원과 정리원을 두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관케 하였다. 또 교육상(백남운)이 편찬위원회를 선임하도록 한 것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연구했으며, 기본 과업으로는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일본식 사학 및 그 영향의 잔재를 일소하는 동시에 서구학자들의 동양사에 관한 부르조아적 견해와 편견적인 방법의 영향을 철대로 배제”가 주어졌다. 전쟁시기인 1952년 3월에는 력사편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력사연구소를 구성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과학자 · 기술자대회를 통해서 조선과학원을 창설하고 개원하였다. 과학원은 력사연구소와 고고학 및 민족학연구소를 포함한 9개의 연구소를 산하에 설치하였다. 〈조선력사편찬회에 관한 결정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 182호)를 최영목, 「북한의 역사연구기관 · 연구지 및 연구자 양성과정」, 『역사와현실』 Vol.3, 한국역사연구회, 1990에서 재인용하고 요약 정리함.

한 역사서술로 연구 방향을 잡았다. 대상은 원시사회를 포함한 조선역사발전의 전 과정과 계급사회 형성이며 그 목적은 생산 발전단계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것이었다. 전쟁 후 몇 해에 걸쳐 당 사상 사업으로 ‘주체확립’과 당의 혁명전통이 강조되는 속에서 1957년에 ‘과학발전 10개년 전망계획’을 착수한다.⁶⁵⁾

이러한 기조에서 당시 북한은 고조선 위치와 강역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문헌 중심의 역사학자들은 고조선 중심지를 요녕일대로, 고고학자들은 평양일대로 비정하면서 두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1963년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가 발행되면서 고조선 중심지 논쟁은 요녕설로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군신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⁶⁶⁾

1962년, 북한은 과학원 역사연구소 주최로 4차에 걸쳐 ‘단군신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⁶⁷⁾ 토론회에 고대사 연구실장 리지린 · 박시형 · 김석형 등을 비롯해 고고학 연구소와 력사 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⁶⁸⁾ 토론회 목적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형성 발전과 유구한 연원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위하여 그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되는 신화 전설들을 필요하다.”⁶⁹⁾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단군 신화 속에 고대국가의 형성발전 과정이 있으며 단군이 신화가 아닌 고조선 건국신화이자 역사임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군’이 ‘신화’가 아닌 ‘역사’임을 해명하는 작업의 이유는 일제 식민사학자들

이 고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단군을 날조된 것으로 만들어 전파한 일을 바로 잡고 우리 민족 시각에서 단군신화를 해석하려는 데에 있었다.

주제 발표자인 리상호는 단군 신화의 역사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해 가는 과정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단군 신화를 고려 시대에 《날조》한 설화로 《론단》한 과거 일제 어용 학자들은 단군에 대한 조선 인민들의 저와 같은 오랜 전통적 관점을 고려 시대 또는 리조 시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사상》과 《신앙》으로 묘사하고 있다.⁷⁰⁾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을 고려시대에 날조한 설화로 만들어 버린 것을 비판하면서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밝히려 한 것이다. 과학원 고대사 연구실의 리상호는 1962년 『력사과학』 3호와 4호에 「단군 설화의 력사성」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수록했고, 5호에는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를 게재했다.

『력사과학』 3호와 4호에서 그는 단군 설화가 지닌 역사성을 추출하기 위해 신화에 대한 관점문제를 비롯해, 단군신화 기사가 수록된 『위서魏書』와 『고기古記』가 실재한 사서(史書)였음을 논증하고, 단군신화 내용 중 허구와 역사를 분리해서 설명한다.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는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대에 관한 논증이다. 다시 말해 그는 신화의 역사성 논증을 통해 신화 형성시기와 고조선 건국시기 그리고 사회 발전단계를 유물론적 사관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

리상호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신화’ 혹은 ‘전설’ 또는 ‘설화’로 불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⁷¹⁾라는 관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선의 눈으로 자주성을 가지고 단군신화를 보자던 최남선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리상호는 단군 기사를 “력사를 초월한, 또는 력사로부터 고립된 신화나 전설이란 있을

65) 최영목, 위의 책.

66)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리상호와 이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Vol.45, 한국고대학회, 2015.

67) 장주협, 「《단군 건국 신화》에 대한 과학 토론회 진행」, 『력사과학』 Vol.6, (평양)과학원, 1962.

68) 「단군 신화에 대한 학술 토론회 진행」이란 제목의 짧은 소개 기사에 참석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대사 연구실 리상호 연구자의 주 토론을 청취하고 박시형, 도유호 박사들, 정렬모 교수, 신구현, 리응수, 황철산 부교수들, 사범대학 류창선, 박택진 동지들, 의학 과학 연구원 리필근 연구사, 고대사 연구실 리지린 실장, 고고학 연구소 정찬영 연구사, 력사 연구소 김을천, 손영중 연구사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단군 건국 신화》에 대한 과학 토론회 진행」, 『력사과학』 Vol.5, (평양)과학원, 1962, 107쪽. 북한자료에 따라 이름 표기는 북한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한 표기 대신 남한 표기대로 붙어서 쓴다.

69) 장주협, 앞의 책, 90쪽.

70) 리상호, 「단군설화의 년대 문제」, 『력사과학』 Vol.5, (평양)과학원, 1962, 97쪽.

71) 리상호, 「단군설화의 력사성」, 『력사과학』 Vol.3, (평양)과학원, 1962, 42쪽.

수 없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⁷²⁾ “그 어떠한 신화나 전설이라도 현실적, 역사적 계기를 초월하여 발생하거나 형성될 수”⁷³⁾ 없기 때문에 “신화나 전설은 해당 역사 이후에 발생”⁷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허구적으로 보이는 신화적 표현에는 이보다 선행한 역사적 자료들이 혹은 과장 혹은 윤색, 왜곡되어 그것들이 각이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채 무질서하게 반영되어 있을 뿐”⁷⁵⁾이라는 것이다. 신화가 과장 혹은 윤색 왜곡된 것은 시대에서 추구하는 사회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혹은 기록자나 편찬자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단군신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계기는 “《단군이 조선 나라를 창건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⁷⁶⁾이며, “력사는 언제나 신화를 선행한다.”⁷⁷⁾는 것이다. 신화 형성의 물질적 기초가 현실적인 해당 역사이기 때문인데, 가령 주몽이 태어난 후에야 주몽신화가 생길 수 있는 위치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단군은 역사적 실존자이며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단군신화’의 형성 조건이 된다. 다만, 신화를 구성한 요소들 중 ‘곰과 호랑이(熊虎), 마늘과 쑥(蒜艾), 금기(禁忌), 주원(呪願), 천강(天降) 등의 화소는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것 보다 선행한 요소로 “역사적 사실보다 더 오랜 고대사회의 생활단면들은 반영한”⁷⁸⁾ 다고 보았다.

한편 단군 기사를 전하는 『위서』와 『고기』는 『삼국유사』 저자의 ‘날조’라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그 책들이 현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증한다. 일연이 위서 계열 문헌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한 것과 일연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자기 관점과 입장을 보이는 것, 이미 실전된 위서

계열의 문헌이 20여종이나 된다는 점, 『삼국지』 위지동이열전 서문에서 진수가 지적한대로 기원 246년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전쟁은 위시대에 역사문헌들이 우리나라 고대 사료를 집중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던 조건이 유리한 점 등이 그것이다. 또 이 시기에 펴낸 『위서』 계열 일문들이 고조선에 관한 유일한 자료들을 전하고 있는 『위략』 같은 서적의 성격으로 보나 『삼국유사』가 단군 기사를 『위서』로부터 인용한 데 대하여 의문시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⁷⁹⁾ 이에 김석형은 현존하는 『위서』가 없다고 해서 일연이 날조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일연이 현존하지 않는 『위서』를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리상호 논거를 지지한다.⁸⁰⁾

단군기사의 원전에 대해서는 원래 고구려나 마한의 문헌이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일연시대에 와서 다시 역수입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계서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요(堯)와 같은 때였다고 한다.”⁸¹⁾라는 기사 서술태도를 들었다. 중국은 이민족에 대해서 폄하하는 서술 태도를 취하는데 이 문구는 “유구한 역사를 노래하는 리규보나 리승휴의 애국 서사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양식”⁸²⁾이라는 것이다. 『위서』가 채록한 단군기사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천부인(天符印)’, ‘웅호(熊虎)’ 신화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순수한 역사기록의 면모만 갖추고 있는 점도 그 근거로 본다.⁸³⁾

리상호는 단군신화를 신화, 전설, 역사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신화는 “옛날에 환인 있었다”에서부터 “이내 아들을 낳았다.”까지다. 역사는 “단군왕검이라

72) 리상호, 위의 책, 43쪽.

73) 리상호, 위의 책, 43쪽.

74) 리상호, 위의 책, 43쪽.

75) 리상호, 위의 책, 43쪽.

76) 리상호, 위의 책, 44쪽.

77) 리상호, 위의 책, 44쪽.

78) 리상호, 위의 책, 44쪽.

79) 리상호, 위의 책, 49쪽.

80) 장주현, 앞의 책, 91쪽.

81) 일연, 이재호, 『삼국유사』, 서울, 1997, 6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82) 리상호, 앞의 책, 50쪽.

83) 리상호, 위의 책, 50쪽.

고 불렀다”에서부터 “천오백년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까지며 “주무왕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부터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까지는 전설이라고 보았다. 또 그는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 형성 시기를 서기전 18세기로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으로 기록된 『위서』는 왕칭의 『위서』 이든 『위략』의 범칭이든 기원 3세기 중엽에 편찬된 문헌들로 기원 3세기부터 2천 년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7~18세기가 되기 때문에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을 창건” 한 시기는 이때가 된다는 것이다.⁸⁴⁾

이에 리지린을 비롯한 리웅수 리필근 박윤원은 기원전 8세기 단군 신화 형성 설을, 황철산은 기원전 3세기 설을 주장하였다.⁸⁵⁾ 단군신화 형성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고조선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본 연구자는 김석형과 림건상이다. 이들은 신화가 장구한 세월을 걸치면서 윤색되고 풍부화되었지만, 고조선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손영중, 신구현, 류창선, 박진택, 리규복도 단군신화 형성시기를 특정 하지 않았지만 유구한 고대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⁸⁶⁾

북한에서는 4회에 걸친 토론으로 단군신화를 ‘원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고조선의 건국신화’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즉 북한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인식했으며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한 인물이며 고조선의 시조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전사-고대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⁸⁷⁾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이 신화에는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고조선국가가 형성되어간 역사발전 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고조선의 종족문제, 역사지리문제

등이 밝혀져있다”⁸⁸⁾고 서술돼 있다.

1980년대 말 단군신화에 대한 강인숙의 연구내용은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때는 중·소 분쟁시기를 거치면서 대외전략으로 자주성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기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에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의 대응 논리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자극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화되었다.⁸⁹⁾

다시말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선진적 전통 및 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를 기조로 하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것이다.⁹⁰⁾ 1991년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 과제로 민족의 자주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조아래 단군신화는 다시 한 번 호명되는데 강인숙은 단군신화 형성시기⁹¹⁾와 그것의 원형을 발표⁹²⁾한 이후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3회에 걸쳐 발표한다. 1988년 3호⁹³⁾, 4호⁹⁴⁾에 1회와 2회를 발표하고 2년 후인 1990년⁹⁵⁾ 3회를 발표한다. 그의 논조는 리상호와 『조선전사』기조의 틀안에서 이루어졌다. 단군이 요하하류동쪽 일대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점과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나 단군의 중심지는 요동설에서 평양설로, 고조선 건국시기는 기원전 2333년보다 선행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강인숙은 1990년대 발표한 「단군신화와 역사 3」에서 단군

84) 리상호,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 『역사과학』 Vol.5, (평양)과학원, 1962, 94쪽.

85) 장주현, 앞의 책, 1962.

86) 장주현, 위의 책, 1962.

87) 『조선전사-고대편』,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79.

88) 위의 책, 24쪽.

89) 정영일, 「북한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민족공조’와 ‘김일성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Vol.56, 한민족연구원, 2013.

90) 정영일, 위의 책.

91)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Vol.123,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7.

92)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역사과학』 Vol.124,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7.

93)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 1」, 『역사과학』 Vol.127,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8.

94)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 2」, 『역사과학』 Vol.128,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8.

95)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 3」, 『역사과학』 Vol.133,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90.

이 요하하류동쪽 일대에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하였으나 1995년에 발표한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단군조선의 존재기간」에서는 “마침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건국을 선포”⁹⁶⁾하였다고 한다.

“단군이 평양지방에서 고조선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100여 만 년의 장구한 원시시대가 끝장나고 이 땅위에 국가시대의 력사가 펼쳐지게 된”⁹⁷⁾ 것이며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이 우리 민족사에서 국가시대, 문명시대의 시점으로 되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의 첫 출발로 된다”⁹⁸⁾는 것이다. 김병룡도 “평양은 인류력사의 려명기였던 100여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이 땅에서 문명사회가 시작되던 반만 년 전에 단군인 《조선》(고조선)을 세우고 도읍한 민족의 성지”⁹⁹⁾라고 한다.

그동안 기원전 20세기 이전으로 통용되어 왔던 건국시기도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단군릉에서 나온 유골의 연대 측정이 기원전 2333년보다 700년이나 앞서기 때문이다.¹⁰⁰⁾ 북한은 고조선 건국 년대를 기원전 3000년경으로 끌어 올린 한편 “평양은 단군이 도읍한 이래 3,000년간에 걸쳐 줄곧 고조선의 수도로 변영”¹⁰¹⁾했다고 말한다.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고조선 중심지를 평양으로, 건국시기를 기원전 3000년으로 끌어올린 데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 동지”¹⁰²⁾라고 함으로서

96)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단군조선의 존재기간」, 『력사과학』 Vol.153,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45쪽.

97) 강인숙, 위의 책, 46쪽.

98) 강인숙, 위의 책, 46쪽.

99) 김병룡, 「단군조선의 중심지와 령역에 대하여」, 『력사과학』 Vol.153,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49쪽.

100) 강인숙, 앞의 책, 46쪽.

101) 김병룡, 앞의 책, 52쪽.

102) 김정일, 『김일성선집』 Vol.13,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27~428쪽을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 1993년 이후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Vol.32,

민족 시조를 김일성과 비견한다. 또 “민족의 혈통은 다름 아닌 그 생명인 지도사상, 정치 리념에 의해 고수되고 빛나게 된다. 위대한 지도사상, 정치이념에 의해 향도되는 민족이라야 자기의 혈통을 끝까지 순결하게 이어 나갈 수 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고 빛내여 나갈 수 있”¹⁰³⁾기 때문이다.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단일민족의 역사가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발견”¹⁰⁴⁾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단군신화 연구는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함에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본 전제는 변함이 없다. 다만 대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고조선 중심지와 건국시기가 달라진다. 북한 단군신화의 연구사를 볼 때 단군을 실존자로 인식하지만, 고유명사라기보다 지도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단군을 보고 있다.

4. 남한, 단군 역사성의 허구

북한에서는 단군신화를 상징성과 역사적 반영으로 해석한다면 남한의 강단사학계에서는 그것을 ‘허구’로 단정하고 시대마다 어떻게 인식 했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태도의 뿌리는 일제 식민사학자와 닿아 있다.

이병도의 주장을 보자. 이병도는 “고 자산 안확씨는 한옹의 한은 ‘궂’, 옹은 ‘숫’으로 혼동하면 (아래에 말한) 해모수와 같다고 하였는데(과연 유사에는 ‘환옹’을 ‘신옹’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 ‘옹녀’와 ‘하백녀’와는 같다고 인

한국사학사학회, 2015. 91쪽에서 재인용.

103) 김창호, 「김일성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혈통을 고수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 『력사과학』 Vol.2000-2,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8쪽을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 1993년 이후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Vol.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91쪽에서 재인용.

104) 이정빈, 앞의 책, 91쪽

식된다.”¹⁰⁵⁾고 한다.

이지영은 이병도를 근거로 “한웅과 해모수가 모두 남신인 ‘곰수’를 뜻하며, 이와 함께 웅녀가 신성한 존재(신녀)를 뜻하는 ‘곰녀’ 곧 ‘곰(검·금)녀의 차자(借字)’이고 그것은 ‘河伯(ρ)女’에 적용될 수 있다 하였다. 그(이병도)가 ‘해모수와 하백녀의 혼사와 한웅과 웅녀의 혼사가 똑같다’고 본 데에는 이러한 언어학적 인식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¹⁰⁶⁾고 하였다.

‘웅녀=하백녀’설을 창안한 이는 이마니시 류이고 계승 발전시킨 이는 미시나 쇼에이다. 일제 강점기의 관변학자들의 주장은 단군신화는 ‘고려시대 승려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에서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와 평양 선인의 전설이 합해진 ‘평양의 개벽 연기전설’로 진화해서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단군신화가 생겨났다’로 발전한다. 단군신화는 후대에 만들어진 창작인데 크게 봐서 두 개의 설로 나뉜다. 하나는 13세기 평양의 개벽 연기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하나는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단군은 ‘허구’라는 소리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단군은 허구’임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웅녀와 하백녀를 동일 인물로 만든다.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몽신화 영향설이다. 고조선의 시조모인 웅녀를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라고하면서 주몽신화의 영향으로 단군전설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다. 또 주몽신화나 단군신화는 북방민족의 시조출생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왕검 선인 단군에 관한 전설의 시원은 만주·여진·몽고 등 아세아 북방 민족

의 시조출생담에 공통하는 동물(獸類)의 배에서 출생한다는 것이며, 아버지를

105) 이병도,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문당, 1972, 41쪽.

106) 이지영, 「하백녀, 유화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Vol.1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26-27쪽.

신으로 하고 어머니를 곰(熊)으로 삼는 것이다. 고구려 시조 주몽 전설도 아버지를 신(神)인 해모수로 하고 어머니를 수달로 하고 있는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추한 꼴로 만들어 하백녀를 유화로 고쳐버린 점은 1915년에 간행된 『예문(藝文)』 6년 11호에 개재된 줄고 “주몽전설 및 노달치 전설에 대해서”에서 이미 설명했다.¹⁰⁷⁾

인용문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마니시 류의 속내가 있다. 단군과 주몽은 아버지를 신으로, 웅녀와 하백녀는 곰과 수달로 등치시켜 이들이 같음을 주장한 것이 그 하나다. 고조선 역사를 지우는 표현인데, 하백녀가 수달이었다는 사료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본래 수달인 하백녀를 김부식이 유화로 고쳤음을 논증했다고 한다. 그가 논증했다는 글, 1915년 『예문』에 발표한 「주몽전설 및 노달치 전설에 대해서」를 보면 하백녀가 본래 수달이란 내용도, 김부식이 수달인 하백녀를 유화로 고쳤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도 없다.¹⁰⁸⁾

다른 하나는 “왕검 선인 단군에 관한 전설의 시원은 만주·여진·몽고 등 아세

107) 王儉仙人檀君の傳説の原始のものは 滿洲・女眞・蒙古等亞細亞北方民族の始祖出生談に共通なる獸類の腹より出生せしものにして、父を神もし母を熊もせしものなり、高句麗始祖朱蒙傳説も父を神たる解慕漱もし、母を獺獸もなせども、支那文化の影響を受けて、之を陋とし、河伯女柳花に改めたるものなるこもは、大正四年刊行の藝文第六年第十一號に載せた拙稿「朱蒙傳説及老獺稚傳説に就きて」の中に既に之を説けり、今西龍、『檀君考』、澤田佐市、1929, 33-34.

108) 이마니시 류(1929)는 회령 부근 노달치 출생담에서 오랑개 종족 발생 설화를 “실상 하나의 주몽전이다(1998: 121)”고 하고, “オランカイ(오랑개)는 올랑합(兀良哈)이란 명칭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고 하여 노달치전설과 올랑합전설이 주몽 전설과 비슷하다고 한다. (今西龍, 이복규 옮김(1998)). “(번역) 〈朱蒙傳説〉과 〈老獺稚傳説〉”, 국제어문 제19호, 103-124.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마니시 류의 「주몽전설 및 노달치 전설에 대해서」는 이복규가 번역한 것을 참고하였다. 國書千行會에서는 1970년에 『朝鮮の研究』을 출간하였는데, 1915년에 나온 《예문》 6년 11호에 발표된 논문을 재수록 하였다. 이복규는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노달치 전설은 다음과 같다. 20세 처녀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물에서 오랑개가 나와서 기절하였다. 처녀가 깨어나서 보니 옆에 큰 개가 죽어 있었다. 처녀는 개를 묻어주었는데 열 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물으니 처녀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아이가 명당을 찾아 아버지를 묻어주고 대하를 건너 종족을 번식시켜서 누처에 걸쳐 번방을 침입하였다. 올랑합 전설은 천정에서 거미가 내려와 잘 생긴 소년으로 변신하여 여승과 교접하였다. 여승이 낳은 아들이 만주로 들어가 제실을 일으켰다다는 내용이다. 김명옥, 「하백녀 유화」 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Vol.38(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386쪽.

아 북방 민족의 시조출생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대 조선민족 선조의 주체인 한민족과는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다¹⁰⁹⁾”로 연결된다. 다시말해 단군신화는 중국신화라는 말로 단군신화를 왜곡하고 있다. 한사군의 설치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인데 단군신화를 인정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역사는 고대부터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마니시 류의 글을 단초로 미시나 쇼에이는 웅녀와 하백녀를 확실하게 동일 인물로 만든다.

주몽전설에서의 웅신연의 신녀가 후자에서는 웅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웅녀가 처음 곰 형태로 출현하고 뒤에 신녀를 취하고 있는 점이야말로 앞서의 웅신연의 신녀를 웅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상정에 다름 아니다.^{110) <7>}

웅신연의 신녀는 하백녀이고 후자의 신녀는 웅녀다. 그러니까 주몽전설에서 웅신연의 하백녀가 후자 단군설화에서 웅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미시나 쇼에이가 말하고 있듯이 “웅신연의 신녀를 웅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상정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그런 상정은 상당한 개연성을 지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약간 관련 된 상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몽 전설의 한 변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단군 전설의 일절을 음미할 수 있다.”¹¹¹⁾고 한다. 상정했더니 상당히 개연성을 지닌다는

뜻은 사실이 아니라 그럴듯한 허구, 즉 그 스스로 단군신화가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근거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미시나 쇼에이는 “단군 전설의 모태인 주몽 전설에는, 현존하는 문헌의 범위 내에서, 주몽의 어머니는 웅신연의 신녀라든가 물속의 입술이 긴 동물로 표현되고 있을 뿐 곰 형태의 여신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몽전설이 엉터리가 아니므로, “단군전설의 근거가 되었던 주몽전설의 이본(一異傳)에는 웅신연의 여신에 해당하는 것이 웅형의 신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군전설이 독창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¹¹²⁾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해 내려오는 주몽전설은 하백녀가 곰의 형태가 아니지만, 분명히 하백녀가 곰의 형태로 된 다른 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선 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주몽신화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단군신화는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제식민사학자들은 있는 단군신화는 부정하면서 없는 이본을 근거로 단군을 부인한다. 역사학적 방법론에 대한 부정이다. 그들은 단군이 “조선민족 선조의 주체인 한민족과는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다.”¹¹³⁾면서 단군신화를 후대 창작설로 몰고 간다. 우리 첫 역사인 고조선을 지우기 위해서다.

이병도와 이지영의 주장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이병도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편수회에서 그들을 스승으

109) 今西龍, 『檀君考』, 澤田佐市, 1929, 34.

110) 朱蒙傳說での熊神淵の女神が、後者に於ては熊女となつて居るが、實際熊女なるもの最初熊形で出現し、後女身をとつて居るこの點こそ、先きの熊神淵の女神を熊形なりしと考へた想定に答へて呉れぬものでなくてはならない。三品彰英, 『久麻那利考(下)』, 『靑丘學叢』Vol.20, 大阪屋號書店, 1935, 95쪽.

111) 少くともさうした想定は相當な蓋然性を持つものである。そこで今少しかゝる想定を確定的ならしめる爲に、朱蒙傳說の一變形と考へられて居る檀君傳說の一節を吟味しよう。三品彰英, 『久麻那利考(下)』, 『靑丘學叢』20, 大阪屋號書店, 1935, 94쪽.

112) 檀君傳說の母胎である朱蒙傳說には、現存する文獻の範圍に於ては、朱蒙の母は熊神淵の女神とか、水中の(口+解)の長い動物とか語られて居るだけで、はつきり熊形の女神とは明記して居ない。ところが檀君傳說では上記の如くそれが熊形の女として語られて居り、且それが出鱈目の話でないことは、朱蒙傳說の内に於て既に充分豫想して居たところの要素であつたのである。されば現存する文獻での朱蒙傳說では、熊形の女神と云ふ點は表面に現はれて居ないが、恐らく檀君傳說の據ろとなつた朱蒙傳說の一異傳には、熊神淵の女神に當たるものが、熊形の神として語られて居たと考へるより外はなく、固より檀君傳說の獨創に出づるものではない。미시나 쇼에이, 『久麻那利考(下)』, 『靑丘學叢』20, 大阪屋號書店, 1935, 95-96쪽.

113) 이마니시 류, 1929, 34쪽.

로 모셨으니 식민사관을 내면화한 식민주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의식도 없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광복 70년이 지난 현재의 소장학자들조차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강단사학을 주름잡는 이들의 학문적 풍토가 이견(異見)을 내면 이단으로 몰아서 학계에 받을 못 붙이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

단군신화가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는 설이 단군의 실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13세기 평양의 개벽 연기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창작되었다는 설은 단군기사가 수록된 『삼국유사』의 기사를 부정함으로써, 고조선의 건국 연대와 그 공간축소를 위한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고조선 연구는 청동기 BC 3~4세기에 건국되었고, 그 중심지는 한반도 평양이라는 설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문헌자료와 고고학을 통해 현재 요동과 요서지역에서 고조선의 실체가 드러나자 단군조선과 단군신화를 마냥 부정할 수 없었던 강단사학계는 단군의 역사성을 신화 전승의 역사성으로 대체했다.¹¹⁴⁾

이기백이 주도한 『한국사 시민강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되었으며, 이때부터 13세기에 창작되었다는 단군신화 창작설은 “건국신화의 존재가 그 국가의 건국 자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¹¹⁵⁾으로 바뀌었다. 일연이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군신화가 13세기에 조작되었다는”¹¹⁶⁾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마치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기백은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임을 인정하지만 단군신화 기사 모두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기록에 전하는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는 다르다”¹¹⁷⁾면서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위로 올리는 것은 역사가 오래면 오래 수록 그 왕조가 권위가 있으며 그 민족도 위대하다는 생각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 단군기사에 고조선 기록이 서기전 2333년이라는 기록은 국가와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총론에서는 일본인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듯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약간의 형태를 고쳐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다. 이기백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후에 단군신화는 ‘만들어진 이야기’로서의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¹¹⁸⁾ 즉 ‘시대에 따라 단군을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단군신화의 역사성이다. 이 역시 일본인들의 주장과 같다.

이에 서영대는 단군이 우리민족 시조라는 인식은 고려 때 생겼으며 삼국 계승 후 신라 부흥운동이 장기화 되자 고구려 계승자로서 무인정권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지역통합을 위한 역사적 근거로 단군이 주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군을 “평양지역을 개척한 신격” 즉 단군이 평양의 조상인데 고려시대 몽고 침략과 내부의 결속을 위해 단군이 인식되었고 조선시대에도 민족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단군은 역사의 시발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근원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게”¹¹⁹⁾ 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단군은 민족의 위기 때마다 민족의 결속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는 것이다.¹²⁰⁾

송호정은 단군이 각 시대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는데 때로는 실제 인물인 개국시조로 부각되고, 때로는 신인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보자.

그는 삼국시대에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서로 강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여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시조로서 단군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 ‘동천왕’

114) 김명옥, 앞의 책, 2017, 181쪽.

115) 이기백, 「고조선의 국가 형성」, 『한국사 시민강좌』 2집, 일조각, 1988, 6쪽.

116) 이기백, 위의 책, 5쪽.

117) 이기백, 위의 책, 6쪽.

118) 김명옥, 앞의 책, 182쪽.

119) 영대,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고조선단군학』 Vol.1, 단군학회, 1999, 77쪽.

120) 서영대, 위의 책.

21년(247) 기사를 보면 “평양자본선인왕협지택야(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¹²¹⁾라고 했다. 선인은 단군인데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라는 인식이 사료에 적혀있다. 또 『삼국유사』 왕력편에도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했다.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인데, 삼국 초기에는 그들 개국 왕조를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단계이므로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열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 근거해서 삼국사기 초기에도 단군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군에 관한 전승은 고려 지역에서 주로 전승했는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진 단군 신앙의 중심지가 모두 고구려의 옛 지역인 평양과 구월산 일대이기 때문이다.¹²²⁾ 고려시대에는 평양의 신이나 고구려와 관계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삼한 계승 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던 고려시대에는 삼국 이전 시기의 민족의 공통 경험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¹²³⁾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몽골의 침입과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이전의 역사와 단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대몽항쟁시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 하면서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 나타났다”¹²⁴⁾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역사의 기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단군신화 자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왜 · 호란을 겪으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군을 중심으로 한 상고사 연구가 재연되었고 단군조선과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했다는 것도 ‘단군신화의 역사성’의 예로 들고 있다.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시대에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

졌는데, 이 시기의 단군 인식의 고양은 고려시대 몽골 지배 하에서, 또 조선시대 이민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민족의식 고취의 구심점으로 단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점과 일맥 상통하다는 것이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단결을 촉진하는 일민주의¹²⁵⁾와 결합되었는데, 이는 단군 자손 전체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촉발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침으로 민족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요 기재로 작용한 것이지 단군과 단군조선을 실재한 역사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단군신화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녔으며, 정치적 ·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¹²⁶⁾한 것으로 본 것이다.

단군신화의 역사성은 단군을 시대마다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성이지 단군신화를 실재 역사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군신화는 단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이지만 “신화와 역사는 별개”라고 단정한다.¹²⁷⁾

송호정은 단군신화가 우리민족이 외세의 부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이 단군신화의 역사성이라면서 단군신화는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이다. 민간들에 의해 단군이 전승되었고, 단군 신앙의 중심지가 모두 고구려의 옛 지역인 평양과 구월산 일대라면서 고려시대에는 단군이 평양의 신이나 고구려와 관계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평양의 신과 구월산”이라는 표현은 오다 쇼고가 주장한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와 평양 선인의 전설이 합해진 ‘평양의 개벽 연기전설’의 다른 말이다. “고구려와 관계 있는 존재”는 이마니시 류와 미시나 쇼에이가 만든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단군신화가 생겨났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121) 『삼국사기』 동천왕조

122) 평양과 구월산일대가 정말 단군신앙의 중심지인지에 대해서는 김명옥, 「단군이 신화의 세계로 쫓겨난 이유는?」,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만권당, 2017, 206~207쪽을 보라.

123)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131쪽.

124) 송호정, 위의 책, 133쪽.

125) 일민주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토, 하나의 정신, 하나의 생활을 강조한 것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거나 선전 차원의 주장이다. 송호정, 위의 책 140쪽.

126) 노태돈,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 시민강좌』 27집, 일조각, 2000, 6쪽.

127) 송호정, 앞의 책, 2004.

또 “단군신화를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고려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란 뜻이다.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군신화 날조 주장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팩트는 그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옹호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¹²⁸⁾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의 번역 출간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에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왜곡한 글을 2009년에 번역 출간한 책이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다.¹²⁹⁾ 이 책에 다나까 토시아끼의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가 수록되어 있다. “단군신화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논문의 주요 골자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단군신화를 만들어냈던 사회와 그 형성 조건이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조선의 아명이 단국이었고, 단군기원이 법령화되기도 하였고, 단군교와 대종교가 20세기 초에 제창된 것은 단군신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인식되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이다.¹³⁰⁾ 그는 단군기사가 수록된 『위서』는 위만조선의 기록이라고 보고,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 『단군기』의 단군기사는 일연이 가필했으며,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는 일연이 가필한 것에 수식을 더 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삼국유사』의 기록은 본래의 단군신화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송호정의 주장과 똑같다. 다나까 토시아끼의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

러싸고』는 1982년 6월 『한국문화』 33집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글 이후 1988년 이기백을 비롯하여 서영대, 송호정, 이승호¹³¹⁾로 등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단군신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 이데올로기 제공 목적으로 쓰여진, 폐기되어야 마땅할 글들을 해방이 된지 70여년이 된 지금 왜 번역 출간하였을까? 그 의도는 서문에 쓰여있다. 서문에 “단군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데, “이 책은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번역하여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고 번역 의도를 명확히 밝혀 놓았다.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가운데 주요한 것들”이란 단군신화 연구의 ‘바ible’이며 ‘금과옥조’이자 ‘시금석’이라는 그들의 고백이자 절대적 이론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강단사학자들의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표현만 달리 했을 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쓴 내용의 반복은 그것의 반증이다.

5. 닫는 글

일제강점기에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세 관점이 존재했다. 하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내세운 ‘날조된 신앙’으로서 단군신화다. 일제는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고려때 승려들이 단군신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로 창안한 것이다. 이에 민족사학자들은 중국의 사대 폐로 모든 것이 중국적인 것이 되거나 소멸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강인한 심고의 본질을 지닌 단군신화와 같은 민족적인 것만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즉 단군은 우리의 국조이기 때문에 질긴 생명력으로 전승되는 것이며, 따라서 단군신화를 고조선 건국신화로 인식했던 것이다. 유물론적 사관에서 본 백남

128) 『단군, 만들어진 신화』는 대중서이다.

129) 목차는 다음과 같다.

단군고(檀君考),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조경철 번역
단군전설에 대하여, 오다 세이코[小田省吾]/윤수희 번역
단군고(檀君考), 이마니시 류[今西龍]/김희선 번역
삼국유사의 주(註)와 단군전설의 발전,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김진광 번역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 나가 미쯔오[那珂通世]/신종원 번역
조선의 건국신화,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김진광 번역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 다나까 토시아끼[田中俊明]/송지연 번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꿈과 범 그림, 사이토 타다시[齋藤忠]/김진광 번역
『본기(本紀)』단군즉위년(檀君即位年)의 복원(復元), 하라다 가즈요시[原田一良]/김진광 번역

130) 다나까 토시아끼, 송지연 역,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사료비판의 재검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31) 이승호,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5

운은 일제 식민사학자와 민족사학자 모두 비판하면서 신화는 ‘현실 생활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형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방 후에는 단군신화 부정론은 자연히 소멸되었을 것이며, 북한에서는 유물론적 관점이, 남한에서는 민족사학자들의 관점이 계승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북한은 역사를 건국이념의 사상 기반으로 삼아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자 했다. 역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식민사관 극복과 유물론적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 이는 민족사관의 관점과 유물론적 사관을 계승한 것인데, 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모순을 우선시 하되 문화유산의 긍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향 설정은 우리역사 첫머리에 놓인 단군조선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으며, 고조선 중심지를 문헌과 고고학적 논증을 통해 요동일대로 확정지었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이며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는 자주성이 강조되면서 고조선 건국시기를 기원전 20세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1993년 단군릉 발굴 이래 고조선 중심지는 재평양설로 바뀐다. 또 고조선 건국 시기는 기원전 2333년보다 700년이 앞선 기원전 3000년경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국가건설 초기에는 사회주의 애국주의에 따라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70년대 이후에는 중·소 분쟁에 따라 주체에 입각한 민족을 강조한다. 80년대 말부터는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대응 논리로서 북한 주민의 민족 자긍심을 자극해 그들을 결속시켜 조선민족은 다름을 이해시키는 한편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논리로서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과 민족시조인 단군을 비견함으로써 ‘조선민족=우리식 사회주의(우리 민족 제일주의)=김정일 수령 체제’라는 등식을 내면화한 것이다.¹³²⁾

132) 정영일, 앞의 책, 2013.

분단된 한반도만큼이나 남과 북은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남한에서는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창안한 이론이 절대적 힘을 발휘한다. 보편적으로 식민지 지배논리로서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창안한 단군신화 부정론은 해방 후 사라질 거라는 자명한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고려시대에 승려들이 날조한 묘향산 연기설화를 단군신화로 만들었다는 설을 그대로 반복한다. 따라서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고 민족의 위기 때마다 호명된 점이 단군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즉 몽골의 침략과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저항으로서 단군을 호명했다는 점이 단군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단군부정론자들이 말한 단군의 역사성이란 ‘만들어진 단군신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 즉 그 ‘허구의 단군 전승사’를 일컫는 것이다.

해방 후 70여년이 지났다. “우리는 오천년을 함께 살고, 칠십년을 헤어져”¹³³⁾ 살았다. 오천년에 비해 칠십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다른 체제, 다른 이념으로 산 남과 북은 이제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여정에 들어섰다. 7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메우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의 첫 머리에 있는 단군신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단군신화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직시하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초기에 문헌적 고고학적 논증으로 고조선의 강역을 확정하고 단군신화를 고조선 건국신화로 연구하지만 대내외적 상황과 맞물려 단군릉 발굴 이후에는 고조선 중심지가 재요동설에서 재평양설로 바뀐다. 고조선 중심지는 BC 5~4세기까지 지금의 난하 지역이었다가 BC 2세기경에 대릉하로 옮겼다는 리지린의 인식과 같다.

남한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을 여전히 절대적인 이론으로 신봉한다. 식민사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폐기되어야

133) 문재인,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문〉, 《MBN TV》, 2018.9.19

마땅할 ‘일제 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의 설’들을 번역 출간하여 단군신화 연구의 지침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남한은 식민사관을, 북한에서는 세습 체제를 위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남과 북이 단군신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동의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조선전사-고대편』,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79.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단군조선의 존재기간」, 『역사과학』 Vol.153,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_____, 「단군신화와 력사 1」, 『역사과학』 Vol.127,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8.

_____, 「단군신화와 력사 2」, 『역사과학』 Vol.128,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8.

_____, 「단군신화와 력사 3」, 『역사과학』 Vol.133,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90.

_____,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역사과학』 Vol.124,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7.

_____,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Vol.123, (평양)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7.

김명옥, 「‘하백녀 유화’ 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Vol.38(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_____, 외,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만권당, 2017.

김병룡, 「단군조선의 중심지와 영역에 대하여」, 『역사과학』 Vol.153,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52쪽.

노태돈,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 시민강좌』 27집, 일조각, 2000.

리상호,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 『역사과학』 Vol.5, (평양)과학원, 1962.

_____, 「단군설화의 력사성」, 『역사과학』 Vol.3, (평양)과학원, 1962.

_____, 「단군설화의 년대 문제」, 『역사과학』 Vol.5, (평양)과학원, 1962.

미쯔이 다카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학문적 기반에 관한 시론-한국병합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Vol.3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

박규태, 「스사노오 신화해석의문제 :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종교와문화』 Vol.1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

서영대,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고조선단군학』 Vol.1, 단군학회, 1999.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신종원 역, 조경철 옮김,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신재호, 『조선상고 문화사』, 비봉, 2007.

_____, 『조선상고사』, 비봉, 2006.

육당전집편찬위원회, 『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3.

- 이경섭, 『白南雲의 단군신화 인식』, 『동국사학』 Vol.6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 _____,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Vol.45, 한국고대학회, 2015.
- 이기백, 『고조선의 국가 형성』, 『한국사 시민강좌』 2집, 일조각, 1988.
- 이병도,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문당, 1972.
- 이승호,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5.
-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 『고조선단군학』, Vol.13, 고조선단군학회, 2005.
-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1993년 이후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Vol.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 이지영, 「하백녀, 유화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Vol.1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Vol.21, 역사문제연구소, 2009.
- 장주협, 「《단군 건국 신화》에 대한 과학 토론회 진행」, 『력사과학』 Vol.6, (평양)과학원, 1962.
- 정영일, 「북한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민족공조’와 ‘김일성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Vol.56, 한민족연구원, 2013.
- 조법종,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Vol.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조혜숙, 「메이지(明治)시대 조선 문화의 소개양상-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胡砂風吹く風』에 대해서」, 『일본사상』 Vol.16,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9.
- 최영목, 「북한의 역사연구기관 · 연구지 및 연구자 양성과정」, 『역사와현실』 Vol.3, 한국역사연구회, 1990.
-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Vol.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 황순중,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만권당, 2017.

今西龍, 『檀君考』, 『田佐市』, 1929.

三品彰英, 『久麻那利考(下)』, 『靑丘學叢』 Vol.20, 大阪屋號書店, 1935

문재인,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문〉, 『MBN TV』, 2018.9.19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Awareness on the Myth of Dangun

Kim, Myung 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awareness on the myth of Dangu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colonial era and after the liberation. Pro-Japanese historians created the theory ‘common ancestry of Japanese and Koreans’ as the ideology of colonialization. Shiratori Kurakichi criticized the ‘common ancestry of Japanese and Koreans’ and created the Dangun denialism to support that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Japan was formed as the immoral existence without any influence from other countries. Dangun denialism is classified into two assertions: assertion that Dangun was the myth made by the influence of Buddhism during Goryeo period; and assertion that Dangun was the different version of the Jumong tale. then, the nationalism historians criticized the Dangun denialism and started the research on Dangun as the historic existence.

In early 1960s after liberation, the research on the hub and territory of Gojoseon started and in that process, the myth of Dangun was also investigated. North Korea recognized the myth of Dangun as the birth myth of Gojoseon. However, as the Korean-style socialism was generated with the collapse of socialistic bloc in 1990s, North Korea utilized the myth of Dangun for political purposes by insisting that the hub of Gojoseon was Pyeongyang and Gojoseon was founded in 30 A.D.

On the contrary, the school historians in South Korea inherited the Dangun denialism created by Pro-Japanese historians without any reluctance. They followed the view that the myth of Dangun was the different version of the Jumong tale and the view that it was the guardian spirit tale of Myohyangsan

mountain or influence of Buddhism. Meanwhile, Dangun denialism was misled by the word ‘historicity of Dangun’.

When Koreans were united around Dangun whenever the country and people came to a crisis including invasion by other countries during Goryeo and Joseon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misled as the ‘historicity of Dangun’. It was mentioned as ‘the historicity of Dangun’ that the myth of Dangun generated during the Goryeo period was summoned whenever the country was in danger and inherited. The ‘historicity of Dangun’ insisted by the school historians is the ‘transmission history of the myth of Dangun’, that is, ‘how the myth of Dangun created during the Goryeo period was recognized depending on the periods’.

Key Words: Transmission History of the Myth of Dangun, Historicity of Dangun, Dangun Denialism, Common Ancestry of Japanese and Koreans, Awarenes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Myth of Dangun

『역사와융합』 제 3집(2018. 12)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의 국경

최 원 태(한국고대사 연구가)

－ 차 례 －

1. 머리말
2.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나라 상황
3. 다른 학자들의 견해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조선과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국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대 중국의 동쪽 경계는 우리 고대사인 고조선의 강역을 살피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후기의 강역을 명확히 밝혀야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학자들은 현재 자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고대의 다른 나라 민족의 역사를 모두 자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시의 중국 사료들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전국7웅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소국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식민사학자들은 고대의 요동을 현재의 요하 동쪽으로 인식하여 연장성의 동단인 양평을 요하의 동쪽인 요양으로 비정하고, 그 경계를 우리나라 청천강 유역인 평북 박천까지인 한반도 서북

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식민사학자들이 중국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내용의 비판도 없이 그대로 추종·동조하여 중국학자들이 주장들을 뒤에서 받들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의 여러 사료들을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주제어) 고조선, 전국시대 연나라, 연장성, 요동, 진개

1. 머리말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기원전 24세기에 건국되어 기원전1세기까지 존속하였다. 고대부터 중국의 요서(遼西)지방을 경계로 하여 발전해온 나라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고조선시기 중국과의 경계를 중국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까지 끌어 들어 작고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였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시대에 조선은 과거 고대에 북방지역은 중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남쪽지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식민사관에 빠진 식민사학자들은 지금도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 평양에 있는 소국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얼마 전 중국의 동북3성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를 중국의 민족과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이 전국시대 연나라의 경계를 한반도 북부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도 일부 식민사학자들은 동조를 떠나 맹종하고 추종하는 실정이다. 노태돈은 “연·진장성(燕·秦長城)의 동단(東端)은 장성의 유지(遺址)에 대한 보고에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늘날 요하(遼河)선에 이르렀음을 실물유적을 통해 확인 된다고 했다”¹⁾

이는 그 당시의 1차 문헌사료들보다는 중국의 현재 요서와 요동지방에서 발굴되는 유지,유물들을 장성의 유적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송호정은 연의 장성을 “동호(東胡)를 물리친후 동북지방을 견고하게 통치하기 위해 연북장성을 서쪽 독석구에서 시작하여 동쪽 요하(遼河)유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수천km에 이른다”²⁾라고 했으나, 이는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경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과의 역사상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경계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중국의 고대 여러 문헌들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경계와 연장성의 동단이 지금의 요서지방인 난하 유역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장성의 동쪽 끝이 현재 요하의 동쪽인 요양(遼陽)이 아니다.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당시의 유세가(遊說家) 소진(蘇秦)이 말한 연의 영토가 2천리라고 말했는데, 연나라장수 진개(秦開)가 조선을 쳐서 그 본국의 영토만큼 2천리의 땅을 취하고 장성을 쌓을 수 있는 그렇게 강한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연나라가 연소왕(기원전311~279)³⁾ 28년에 제나라를 칠 때도 연나라가 단독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고 진(秦), 초(楚), 한(韓), 조(趙), 위(魏)등 5개국과 함께 힘을 합쳐 연합(聯合)으로 공격해서 가능한 것이다. 연소왕(燕昭王)시대 잠시 국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현재 요양까지 장성을 축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장성은 각 지점별로 요새를 만드는 것이 아닌 연결해서 이어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물자 등을 동원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소왕 사후 연나라는 제·조 등 인근 두 나라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상태가 멸망 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동호 등 북방민족들과 조선 등 여러 나

2) 송호정,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03쪽.

3) 君主들의 在位는 史記의 表를 基準으로 하였음.

1)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4, 50~51쪽.

라들이 장성을 쌓는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사료들을 중심으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

2. 고조선과 전국시대(기원전403~221) 연나라 상황

춘추 ·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으로써, 기원전 11세기경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동생 소공석(召公奭)을 연의 제후에 봉한 주의 동성 제후로 기원전 222년 진나라에 멸망한 나라이다.

2-1) 춘추 · 전국시대 연(燕)나라와 주변 제(齊) · 조(趙)나라와 침공관계

먼저 춘추시대를 보면, 『사기』 「연소공세가」와 「제태공세가」에 의하면 “연장공(기원전690~658)27년에 산용(山戎)이 연나라를 침범하자 제나라 환공이 연나라를 구원하여 산용을 쳐서 북쪽으로 쫓아 고죽까지 이른다음 돌아왔다.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는 연나라가 산용의 공격을 단독으로 막을 수 없는 작은 약소국으로 춘추패자인 제환공의 도움으로 산용을 물리친 것이다. 『사기』 「연소공세가」를 보면 전국시대에 연나라 상황을 알 수 있다.

“연희공(燕釐公)(기원전402~373)30년 임영(林營)에서 제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연역왕(燕易王)(기원전332~321)때 제선왕(齊宣王)(기원전342~324)의 공격을 받아 연나라의 10개성을 빼앗겼다가, 소진이 제나라를 설득시켜 10개성을 연나라로 되돌려 주었다. 즉위한 지 10년되던 해부터 연나라 임금을 왕이라 칭하기 시작하였다” 연쾌왕(燕噲王)(기원전321~312)때 연나라는 초

(楚) 및 한(韓) · 위(魏) · 조(趙) 삼진(三晉)과 더불어 진(秦)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고,……재상(子之)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 국왕의 직권을 행사하였고, 연쾌왕은 늙어서 정사를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子之의 신하 신세가 되었다……제나라왕이 장자(章子)로 하여금 5도의 군사와 북방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연나라 군사들은 방어 할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문도 닫지 않고 활짝 열어 놓았고, 마침내 연왕 쾌가 죽고 제나라는 대승을 거두었다.”⁵⁾(『사기』 「연소공세가」)

이때 연나라는 왕이 신하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등 나라가 혼란과 내분에 휩싸인 터라 제나라한테 크게 패해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음 사료를 보자.

“연소왕(기원전311~279)은 나라가 침략을 당하여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공손한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갖추어 현자들을 널리 초빙 선왕의 치욕을 씻고자 나라를 강하게 하여. ”연소왕28년 악의(樂毅)를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진(秦) · 초(楚) 그리고 한(韓) · 조(趙) · 위(魏) 다섯 나라와 연합(모의)해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제나라는 전쟁에 패하였고, 제민왕(齊湣王)은 도성을 버리고 외지로 달아났다. 연나라 병사들만은 패주하는 병사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제나라의 도읍인 임치(臨淄)까지 진입하여 보물들을 노획하고, 궁실과 종묘를 불살라 버렸다. 제나라의 여러 성중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요(聊), 거(莒), 즉묵(即墨)등 3개의 성 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연나라에 예속되었다. 그런 상태는 6년간 지속되었다.”⁶⁾

5) 『사기』 「연소공세가」 釐公三十年，伐敗齊于林營。易王初立，齊宣王因燕喪伐我，取十城；蘇秦說齊，使復歸燕十城。十年，燕君為王。燕噲三年，與楚、三晉攻秦，不勝而…子之南面行王事，而噲老不聽政，顧為臣，國事皆決於子之…王因令章子將五都之兵，以因北地之眾以伐燕。士卒不戰，城門不閉，燕君噲死，齊大勝。

6) 燕昭王於破燕之後即位，卑身厚幣以招賢者。燕國殷富。二十八年，於是遂以樂毅為上將軍，與秦、楚、三晉合謀以伐齊。齊兵敗，湣王出亡於外。燕兵獨追北，入至臨淄，盡取齊寶，燒其宮室宗廟。齊城之不下

4) 莊公二十七年，山戎來侵我，齊桓公救燕，遂北伐山戎而還。燕君送齊桓公出境

이 연소왕 재위 33년 정도가 연나라의 가장 전성기인 시기인데 즉위 후 바로 제나라를 공격한게 아니고 현자(賢者)들을 등용하고 준비해서 28년이 지나 전국 시대 제나라를 제외한 6개국이 연합해서 공격 한 것이다.

그러다가 연소왕이 죽고 아들인 연혜왕(燕惠王)이 즉위하였는데 “연혜왕(기원전 278~272)은 태자 때부터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신임하지 않았으므로 기겁(騎劫)으로 하여금 악의가 맡고 있던 상장군직을 대행하자 악의는 조나라로 도망갔다. 이때 제나라 전단(田單)은 즉묵에서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 군사를 물리쳤고, 대장인 기겁이 죽자 연나라 군사들은 모두 자기나라로 철수 하였으므로 제나라는 예전의 성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다.”⁷⁾ 다음 기사도 보자.

“연혜왕은 재위 7년 만에 죽었다. 한·위·초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연무성왕(燕武成王)(기원전 271~258) 7년에 제나라의 전단이 연나라에 쳐들어와서 중양(中陽) 땅을 차지하였다.” “연효왕(燕孝王)(기원전 257~255) 원년에 한단(邯鄲)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 군사들의 포위망을 헤치고 달아났다가 3년후 세상을 떠났고, 왕위는 아들인 금왕인 희(喜)가 물려받았다.”⁸⁾

연나라 멸망 과정은 이랬다.

“연희왕(燕喜王)(기원전 254~222) 4년 연나라 군사가 송자(宋子) 땅에 이르자, 조나라에서는 염파(廉頗)를 보내어 응전하게 하였는데 그는 호읍으로 가서 올

복(栗腹)이 이끄는 연나라 군사를 격파하였다…… 염파는 연나라 군대를 500여리나 뒤쫓아가서 연나라 수도를 포위하였다. 그리고 연희왕 12년에 조나라가 장군 이목(李牧)을 보내어 연나라를 공격하여 무수(武遂), 방성(方城), 두 곳을 점령하였다 …… 연나라는 극신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조나라는 방환을 보내어 연나라 군사들을 대항에 싸우도록 하여 연나라 군사 2만 명을 무찔렀고 극신을 죽였다. …… 23년 태자 단(丹)이 진나라에 인질로 붙잡혀 갔다가 연나라로 도망쳐 돌아왔다. …… 진나라는 장군 왕전(王翳)을 보내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29년에 진나라가 연나라의 도읍지인 계(薊)를 점령하였다. 연나라 왕이 요동(遼東)으로 도망쳐 태자 단을 죽여 그 머리를 진나라에 바쳤다. 33년에는 진나라가 요동지역을 점령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음으로써 드디어 연나라를 멸망(기원전 222년)시켰다.”⁹⁾

이렇게 연나라는 연소왕(기원전 311~279) 사후에 제·조나라의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인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진(秦)나라에 멸망당한 것이다.

이외에 「연소공세가」에서 빠진 사항을 『사기』 「전경중완세가」와 「조세가」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자.

제환공(齊桓公)(기원전 378~343) 5년 제나라는 연나라를 습격 연나라의 상구(桑丘)(현 하북성 서수현 남쪽)를 취하였으며” 조경후(趙敬侯)(기원전 386~375) “9년 제나라를 정벌하였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는 연나라를 구원하였다.” 조무령왕(趙武靈王)(기원전 325~299) “…… 26년 다시 중

者, 獨唯聊、莒、即墨, 其餘皆屬燕, 六歲

7) 惠王立 惠王為太子時, 與樂毅有隙; 及即位, 疑毅, 使騎劫代將. 樂毅亡走趙. 齊田單以即墨擊敗燕軍, 騎劫死, 燕兵引歸, 齊悉復得其故城.

8) 惠王七年卒. 韓、魏、楚共伐燕. 燕武成王立. 武成王七年, 齊田單伐我, 拔中陽. 孝王元年, 秦圍邯鄲者解去. 三年卒, 子今王喜立.

9) 今王喜四年, 燕軍至宋子, 趙使廉頗將, 擊破栗腹於鄆. 廉頗逐之五百餘里, 圍其國. 十二年, 趙使李牧攻燕, 拔武遂、方城. 燕使劇辛將擊趙, 趙使龐煖擊之, 取燕軍二萬, 殺劇辛. 二十三年, 太子丹質於秦, 亡歸燕. ……使將軍王翳擊燕. 二十九年, 秦攻拔我薊, 燕王亡, 徙居遼東, 斬丹以獻秦. 三十三年, 秦拔遼東, 虜燕王喜, 卒滅燕.

산국(中山國)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탈취한 땅이 북쪽으로는 연(燕)과 대(代)에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운중(雲中)과 구원(九原)에 까지 이르렀다.” 조혜문왕(趙惠文王)(기원전298~266) “3년 중산국을 멸하고 그왕을 부시(膚施)로 이주시켰다.” “5년 막(鄭)과 역(易)을 연나라에 주었다” “…… 26년 동호(東胡)에게 점령당하였던 대(代)땅을 도로 빼앗았다.¹⁰⁾ …… 28년…… 연나라 대신 성안군 공손조가 그의 왕(연혜왕 추정)을 시해하였다”……조도양왕(趙悼襄王)(기원전245~236) “9년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이양성(狸陽城)을 탈취하였다.¹¹⁾ 『사기』 「전경중완세가」

『연소공세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침략을 받고 일부는 구원받고 있는 기록과 연나라왕이 대신한테 죽임을 당하는 기록을 볼 때 연나라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체제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개(秦開)가 동호를 천여리나 물리치고 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조세가」 기록인 “조혜문왕(기원전298~266) 26년 동호에게 점령당하였던 대(代)땅을 도로 빼앗았다.”¹²⁾로 되어 있는데 이시기는 기원전 273년경으로, 연소왕(기원전311~279)시기 이후가 된다. 연소왕시기에 연장성을 수축 했다고 했으나, 이 기록을 볼 때 그 당시(기원전273년경)이전에도 동호는 조나라와 연나라의 접경지역인 태행산맥 북부지역부근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는 연나라 연혜왕(기원전278~272)시기 인데 왕이 신하에게 죽음을 당하는 시기이다.

연나라 장수 진개가 언제 동호를 친 것인지 의심이 간다. 정말로 동호를 천 여

리, 조선을 2천 여리 공격하여 땅을 취한 유명한 장수가 왜 사기에 본인이름의 열전도 없고 단순히 흉노열전에 한 줄 이름만 나오고, 연나라 제후들의 주요기록인 『연소공세가』에 왜 한 줄도 안 나오는 것일까? 그냥 단순한 주변의 동호나 조선과 지엽적인 분쟁,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기』나 『삼국지』는 그것을 확대 · 과장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래 사료가 그것을 증명한다.

연문후가 말하기를 과인의 나라는 작은데다가 서쪽으로 강한 진나라의 강한 압박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 · 조 두 나라와 접경하고 있소. 제 · 조 두 나라는 강국이고, 지금 그대가 조왕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소. 과인은 합종으로 연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이요, 그대 말을 좇아 나라를 들어 합종시킬 생각이요.¹³⁾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

태사공이 말하기를,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백 등 여러 종족들과 대항하고 제(齊) · 진(晉)나라에 대항하면서 강국사이에 끼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느라 국력이 가장 약하였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 경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¹⁴⁾ 『사기』 「연소공세가」

위 기록들에 의하면 연나라는 조나라와 제나라의 두 강국에 끼어있는 약소국이다. 그러다가 연소왕(기원전311~279)때 전왕 시절의 내분과 제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연소왕은 본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국토가

10) 인용자 강조.

11) 桓公午五...齊因起兵襲燕國，取桑丘。(『田敬仲完世家』). 敬侯..九年，伐齊.齊伐燕，趙救燕.武靈王..二十六年，復攻中山，攘地北至燕、代，西至雲中、九原.惠文王.五年，與燕鄭、易.二十六年，取東胡歐代地.二十八年.燕將成安君公孫操弑其王. 悼襄王.九年，趙攻燕，取狸陽城(『趙世家』).

12) 인용자 강조.

13)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 燕王曰：“寡人國小，西迫強秦，南近齊、趙，齊、趙，強國也。今主君幸教詔之，合從以安燕，敬以國從。”蘇秦將爲從。

14) 『사기』 「연소공세가」 太史公曰：燕(北)[外]迫蠻貉，內措齊、晉，崎嶇疆國之間，最爲弱小，幾滅者數矣。

좁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원수를 갚을 수 없다고”¹⁵⁾하면서 현자들을 널리 초빙하여 정책을 펼쳐서 일시적인 부국강병을 이루어 연소왕 28년에 악의를 상장군으로 삼아 진·초·한·조·위 등 다섯 나라와 연합해 제나라를 공격을 감행, 제나라 수도 임치 등을 점령하여 6년간 연나라의 예속 하에 두었으나, 연소왕이 죽자 다음 연나라 왕인 연혜왕(기원전278~272)초에 점령했던 제나라 땅은 모두 전단에게 다시 빼앗겼다. 그 이후 연무성왕(기원전272~258)7년에 제나라의 전단이 연나라에 쳐들어와서 중양(申陽)땅을 차지하였고, 연희왕(기원전254~222)때 조효성왕(기원전266~245)시절 조나라 장수인 염파 등의 수차례 공격으로 대패하여 연나라의 도읍을 포위까지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조도양왕(기원전244~236)때 이목이 연나라를 공격 무수와 방성을 탈취하고, 또한 방환이 연나라를 공격해 장수 극신을 죽이고, 연나라의 이양성을 탈취하는 등 전국시대 후기 연나라는 조·제나라의 공격으로 많은 땅을 빼앗겼다. 이러한 상황은 연나라가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전국책』『연책』에서 보듯이 연문후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기』의 편찬자인 사마천도 만맥등 여러 나라 등과 대항하고 제·조 두 나라의 강국사이에 끼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느라 가장 국력이 약하였고, 거의 멸망직진에 이른 경우도 한 두 차례가 아니었다고 평한 것을 볼 때 과연 연나라가 동호를 천 여리 이상 쫓아내고 연나라 도읍으로부터 수 천리 떨어진 현재의 요하동쪽인 요동지역까지 점령하여 성을 쌓아 경계를 삼았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

2-2 고조선과 연나라 위치(영역)

이제 고조선과 연나라 위치를 보자. 『전국책』『연책』에 전국시대의 연나라의 위치를 보면 “주현왕 35년(기원전334)에 소진이 합종을 성사시킬 생각으로 북쪽으로 연문후를 찾아가 이같이 말했다. 연나라는 동쪽으로 조선(朝鮮)과 요동(遼東)

이 있고, 북쪽으로 임호(林胡)·누번(樓煩), 서쪽으로 운중(雲中)과 구원(九原), 남쪽으로 호타하(呼沱河)와 역수(易水)가 있습니다. 영토는 사방 2천리입니다. ... 남쪽으로 갈석산(碣石山)과 안문(雁門)이 있어 풍요롭기 그지없고 북쪽으로 조율이 풍성합니다.”¹⁶⁾고 되어 있다.

『전국책』『조책』 조무령왕(趙武靈王)(기원전325~299)때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황하와 박락수로 각각 제나라와 중산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수군이 없소, 또 상산에서 대와 상당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연 및 동호(東胡)와 경계를¹⁷⁾ 이룬다고 했다.

『사기』『소진열전』에는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임호와 누번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하와 역수가 있습니다 …… 남쪽으로는 갈석, 안문과 같은 비옥한 토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대추와 밤의 수입이 있습니다”¹⁸⁾고 했다.

『사기』『흉노열전』에는 “진(晉)나라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 등의 용족이 있었고, 연나라 북쪽에는 동호(東胡)와 산용(山戎)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떨어져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각각 군장이 있었다. 가끔 100여개의 용족이 합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로 통일 되지는 못하였다”¹⁹⁾고 했다.

위 기록들을 보면 전국시대 연나라는 『전국책』과 『사기』『소진열전』에는 연나라의 위치와 상황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사기』『흉노열전』과 『전국책』『조책』의 기록처럼 연나라 북쪽에는 동호와 산용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임호와 누번

15) 孤極知燕小力少，不足以報。

16) 蘇秦將爲從。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呼沱、易水。地方二千餘里… 南有碣石、鴈門之饒，北有棗、栗之利。

17) 今吾國東有河、薄洛之水，與齊、中山同之，而無舟楫之用。自常山以至代、上黨，東有燕、東胡之境。

18) 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呼沱、易水，地方二千餘里，… 南有碣石、鴈門之饒，北有棗、栗之利。

19) 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燕北有東胡、山戎。各分散居谿谷，自有君長，往往而聚者百有餘族，然莫能相一。

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서 조나라의 북쪽에 표시²⁰⁾하고 있어 조나라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쪽으로 조선과 요동이 있었던 것이다.

『사기』 「화식열전」에는 연나라는 “발해(渤海)와 갈석(碣石)사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²¹⁾

서한시대에 저술된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 “(진나라가) 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 유사(流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요수(遼水)와 만나며, 동쪽은 조선(朝鮮)과 연결되었다.”²²⁾고 서술되어 있다.

서한시대에 저술된 『염철론(鹽鐵論)』 「險固」편에 “연나라는 갈석(碣石)에 의하여 막히었고, 사곡(邪谷)에 의하여 끊기었으며, 요수(遼水)에 의하여 둘러 싸였다.”²³⁾고 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연나라는 발해만 서쪽과 동쪽은 갈석산과 요수(현재 난하)를 기준으로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유시람(有始覽)」에는 당시 국경에 있었던 9개의 요새(要塞)가 기록되어 있는데²⁴⁾, 그 가운데 연나라에 있던 요새로서 거용새(居庸塞)와 영자새(令疵塞)가 나온다.

중국학자 담기양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에 거용새는 현재 북경 북쪽 창평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영자새는 현재 난하유역의 영지(令支)와 함께 표시²⁵⁾되어 있다. 이는 연나라 국경(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서(漢書)』 「영행전(佞幸傳)」과 『사기(史記)』 「경포(鯨布)열전」의 주석에 의하면²⁶⁾ 새(塞)는 변경의 요새(要塞)를 말하는 것으로 장새(鄣塞)를 의미한다고 한다.

20)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p33-34

21) 夫燕亦勃、碣之間。

22) 築修城。西屬流沙，北擊遼水，東結朝鮮

23) 燕塞碣石，絕邪谷，繞援遼

24) 何謂九塞 大汾，冥阨，荊阮，方城，穀，井陘，令疵，句注，居庸。

25)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41-42쪽.

26) 『漢書』 「佞幸傳」 微猶塞也。東北謂之塞，西南謂之微。塞者，以障塞為名。微者，取微遮之義也。『史記』 「鯨布列傳」 微謂邊境亭鄣。以微繞邊陲，常守之也。

『사기』 「조선열전」에 “처음 연나라 전성기때에 일찍이 침략하여 진번과 조선을 복속하고 관리를 두기위해 장새(鄣塞)를 축성했다.”²⁷⁾고 했는데 이 내용은 연소왕때 진개가 조선을 침략하여 그 지역에 관리를 두고 관리하기 위해 변경에 장새를 구축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나중에 진나라가 연을 멸하고 요동외요(遼東外徼)인 변방의 요새(要塞)로 속하게 한 것으로보아 장성을 쌓은 것이 아닐 것이다.

다음은 요수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는 요수를 “유수(濡水)는 지금의 난하(灤河)이다.”²⁸⁾라고 하였으며,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도 “현재의 난하(灤河)위치에 있는 강을 유수(濡水)라고”²⁹⁾ 표기하였다.

『수경주(水經注)』 「유수(濡水)」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수(濡水)는 새(塞) 밖으로부터 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요서군 영지현(令支縣) 북쪽을 지난다.”³⁰⁾ 다고 했으며, “현수(玄水)는 또한 서남쪽으로 흘러 고죽성(孤竹城) 북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흘러 유수(濡水)로 들어간다. 옛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현수(玄水)는 동쪽으로 흘러 유수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모두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영지현(令支縣)에 고죽성이 있고 옛 고죽국이라고 하였다. 사기에서 말하기를 ‘고죽의 군(君) 2 아들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인데... 한(漢) 영제(靈帝) 때에 요서태수(遼西太守) 염번(廉翻)이 꿈속에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죽(孤竹) 군(君)의 아들 백이(伯夷)의 아우라 하였다... 진서(晉書) 지도지(地道志)에서 말하기를 요서(遼西) 사람이 요수(遼水)에 관(棺)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다. 말하기를 나는 고죽국의 임금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깨뜨릴 수 있는

27) 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為置吏，筑鄣塞

28) 臧勵齋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書店出版社, 2015, 1281-1282쪽.

29)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2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27-28쪽.

30) 濡水從塞外來，東南過遼西令支縣北。

가? 그래서 사당을 지어줬는데 사당은 산위에 있고 성은 산의 옆 비여현 남쪽 20리 강물들이 모이는 곳이다.”³¹⁾『수경주(水經注)』「유수(濡水)」

서한의 영향에 의하여 저술된 『설원(說苑)』 「변물(辯物)」편도 보자.

“제(齊) 환공(桓公)이 북쪽으로 고죽을 정벌하러 가는데, 비이(卑耳)의 계(谿) 10리를 아직 못가서 멈추어 잠깐 보고 화살을 들었으나 쏘지 아니하였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일이 이루지 못할 것 같다.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는데 갓을 쓰고 아주 큰 인물이 갖추어 진 좌거의(左袂衣)한 자가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갔다.’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저 사람은 길을 아는 신이다. 말을 달리는 앞으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좌거의한 사람 앞에 물이 있는데 왼쪽으로 건널 것이다.’라고 하였다. 10리를 가니 과연 물이 있는데 요수(遼水)라고 표해놓았다. 왼쪽으로 건너니 복사뼈까지 오고 오른쪽으로 건너니 무릎까지 와서 이미 건너는 일이 과연 이루어졌다.”³²⁾『설원(說苑)』 「변물(辯物)」

『한서』 「지리지」 〈요서군〉조에는 “요서군. 진(秦)나라때 설치했다. 영지(令支)현, 고죽성(孤竹城)이 있다. 비여(肥如)현. 현수(玄水)가 동쪽으로 유수(濡水)로 들어간다. 유수(濡水) 남쪽으로 해양현으로 들어간다”³³⁾라고 하였다.

31) 『수경주(水經注)』 「유수(濡水)」 玄水又西南逕孤竹城北. 西入濡水. 故地理志曰. 玄水東入濡. 盖自東而注也. 地理志曰. 令支有孤竹城. 故孤竹國也. 史記曰. 孤竹君之二子伯夷 叔齊 ... 漢靈帝時. 遼西太守廉翻夢人謂已曰. 余孤竹君之子. 伯夷之弟. 晉書地道志曰. 遼西人見遼水有浮棺. 欲破之. 語曰. 我孤竹君也. 汝破我何為? 因為立祠焉. 祠在山上. 城在山側. 肥如縣南十二里. 水之會也 인용자 강조 포함.

32) 齊桓公北征孤竹. 未至卑耳谿中十里. 闐然而止. 睜然而視有頃. 奉矢未敢發也. 喟然歎曰. 事其不濟乎. 有人長尺. 冠冕大人物具焉. 左袂衣走馬前者.. 管仲曰. 事必濟. 此人知道之神也. 走馬前者導也. 左袂衣者前有水也. 從左方渡.. 行十里果. 有水曰遼水表之. 從左方渡至蹠. 從右方渡至膝. 已渡事果. 인용자 강조 포함.

33) 遼西郡. 秦置. 令支. 有孤竹城. 肥如. 玄水東入濡水. 濡水南入海陽

위 기록을 보면 요수(遼水)는 한나라당시 유수(濡水)로 불렸으며, 요서 · 영지 · 고죽성 · 비여 · 현수(玄水)등의 주요 명칭이 등장한다. 이 명칭은 모두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제2책)³⁴⁾에 표시되어 있는데, 위치는 현재 난하 하류 주변 지역이다.

오늘날의 난하(灤河)가 요수(遼水)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의 전국시대 연나라와 고조선과의 경계는 갈석산과 난하 유역 주변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윤내현의 『한국고대사 신론』 부록에 실린 갈석산과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의 논문을 보자.

중국역사지리학자 담기양은 1976년에 갈석고를 발표해역사상 상당한 영향을 미친 갈석창해설을 부정하고 옛 갈석산을 오늘날 하북성 창려현 북부 발해 근안에 있는 갈석산으로 보았다. 또한 황성장은 1979년 제6기 문사철이란 학보에 갈석고변을 발표해 오늘날 북대하 해안부근 알대에서만 옛 갈석의 유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위 두논문을 검토하면서 오늘날 갈석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일을 해온 우리 현지 거주인들은 여러 해 동안의 현지조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 ·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본적으로 담기양의 결론에 찬동하게 되었다. 갈석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상서 우공의 기록은 상당히 정확하다. ‘견산과 기산을 지나 형산에 이르고, …… 태행산맥과 향산으로부터 갈석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우공 도산에도 보인다. 여기에 언급된 산맥의 형세로 보아 갈석은 당연히 태행 · 향산 양대산맥과 연결되고 그 형세가 이산맥들과 상응하는 높은 봉우리였을 것이다. 향산은 상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태행산맥의 북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연산산맥과

34)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2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9-10쪽, 27-28쪽, 61-62쪽.

연접되어 있다. 그리고 갈석산은 연산의 주봉이 발해 연안으로 뻗어나가 돌출한 지맥이다. 따라서 ‘태행산맥과 항산으로부터 갈석이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중국북부의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전체 산세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일치 한다. 또한 이 우공의 기록은 신당서 지리지 규주 회천군 회용현조에 ‘동남쪽50리에 거용새가 있고 동쪽으로는 노룡·갈석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은 태행산맥·상산에 속해 있으니 실로 천하의 험지이다’라는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 거용새는 거용관인데 그곳은 서쪽으로는 태행산맥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연산의 여러 봉우리[여기서 말하는 노룡은 노룡새인데 바로 연산산맥의 능선이다]와 연결된다. 이로써 일찍이 2,000여년 이전의 갈석산은 바로 발해 북안에 있었던 하나의 유명한 큰 산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옛 갈석산의 소재지는 한서 지리지이하 각 정사의 지리지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갈석산은 모두 동일한 갈석산, 즉 오늘날 창령현 북쪽에 있는 갈석산임을 알 수 있다. …… 옛 기록과 근래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해볼 때 진시황·한무제·조조 모두 옛 갈석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³⁵⁾(『한국고대사 신론』, 484~496쪽.)

이 내용은 중국학자 담기양과 황성장이 쓴 갈석에 대한 논문을 고흥장·동보서 등이 검토한 것으로서 현재 창령현 북쪽에 있는 갈석산이 고대의 갈석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위치는 북쪽은 동호와 산융이 있고, 남쪽은 지금의 역수(易水)부근(滄州)이며, 서쪽은 지금의 울현(蔚縣)(代)를 넘지 못하였고, 동남쪽은 발해(渤海)와 갈석산(碣石山)지역이며, 동쪽은 요수(遼水) 즉 지금의 난하(瀾河)동부 지역으로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서』 「지리지」에 있는 요서군·요동군은 서한 때 위만조선을 멸망(기원전108년)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난하 중·상류쪽과 동쪽으로 영토가 확장될 수도 있어 전국시대 연나라가 설치한 요서군·요동군이 난하 유역의 동서로 일부 조정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진개의 침략과 연장성 축조 및 5개군 설치

『사기』 「흉노열전」을 보자.

“진(秦)나라는 농서·북지·상군을 차지하고 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았다. 또 조(趙)나라의 무령왕(기원전325~299)은 조나라의 풍속을 개혁하여 호복을 입고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가르쳐 북쪽으로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을 무찔러 장성을 쌓고 대(代)에서부터 음산(陰山)산맥 기슭을 따라 고궐(高闕)에 이르는 지역을 요새지로 만들고 운중(雲中), 안문(雁門), 대(代) 등 세 군을 설치하였다. 그 뒤 연(燕)나라는 현장 진개(秦開)가 흉노에 인질로 가 있으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가 연나라로 돌아온 후,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습격하여 패주 시켰다. 이 때 동호는 천 여리나 후퇴하였다…… 연나라 역시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上谷)·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遼東)의 여러 군을 두어 오랑캐를 방어 하였다. 당시 중국에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전국7웅(戰國七雄)이 있었는데 그중 3개국이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 진나라가 6국을 멸망시키고(기원전221년) 시황제는 몽염(蒙恬)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북쪽의 흉노를 치게 하였다. 몽염은 하남(河南)땅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리고 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드는 한편 …… 또한 산맥, 구릉, 계곡을 따라 보충해야 할 곳은 손을 더 보아서 임조(臨洮)를 기점으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만여리에 달하는 장성(長城)

35) 윤내현, 「부록1-갈석고, 고흥장, 동보서」, 『한국고대사 신론』, 만권당, 2017, 484~496쪽, 인용자 강조 포함.

을 쌓았다.”³⁶⁾(『사기』「흉노열전」)

위 기록과 관련하여 전국시대 연나라 전성기인 연소왕(기원전311~279)때 진개의 동호 침략 후 연장성을 서쪽의 기점인 조양(造陽)과 동단(東端)인 양평(襄平)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서쪽기점인 조양(造陽)은 현재 북경 서북쪽 관청수고(官廳水庫)가 있는 회래현(懷來縣)(타록부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장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현재 하북성 적성현(赤城縣) 독석구진(獨石口鎮)³⁷⁾아니라, 훨씬 남쪽으로 북경시와 장가구시(張家口市)의 중간쯤 되는 지점이다.

당나라 때 편찬한 『통전(通典)』의 규주군(雋州郡)을 보자.

규주는 지금의 회용현(懷戎縣)이다... 회용현은 한의 반현땅이다. 한나라의 상곡군성이 이곳에 있다. 탁록산과 치우성이 있으며... 사기에 이르기를 연나라 장성을 축성하였는데 조양에서 양평에 이른다. 조양이 곳 이곳이다. 한무제가 흉노를 파하여 하남의 땅을 취하고, 상곡의 두벽현과 조양땅을 오랑개에게 주었다. 위소가 말하기를 이곳(조양)이 상곡에 있다.³⁸⁾(『통전(通典)』, 규주군)

위의 기록으로 회용현(懷戎縣)이 조양(造陽)임을 알 수 있다. 『신당서(新唐書)』 「지리지(地理志)」 규주 규천군(雋州 雋川郡)조도 보자.

회용현(懷戎縣). 上. 천보연간에 규천현을 쪼개서 설치하였다가 곧 없앴다. 규

36) 是秦有隴西、北地、上郡，筑長城以拒胡。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筑長城，自代并陰山下，至高闕為塞。而置雲中、鴈門、代郡。其後燕有賢將秦開，為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燕亦筑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當是之時，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眾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為塞，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인용자 강조 포함.

37) 구자성, 『상고사를 찾아서』, 이엘씨미디어, 2006, 193-194쪽.

38) 雋川郡. 雋州今理懷戎縣.. 懷戎漢潘縣地. 漢上谷郡城在此. 有涿鹿山及蚩尤城... 史記云: 「燕築長城, 自造陽至襄平. 造陽即此. 漢武破匈奴, 取河南地, 棄上谷之斗僻縣造陽地以與胡. 韋昭云「在上谷」

수가 가운데를 지나간다. 북쪽90리에 장성이 있는데 개원연간에 장설이 쌓은 것이다. 동남쪽50리에 거용새가 있고, 동쪽으로 노룡(새)과 갈석이 연이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행산과 상산이 이어져 있는데 실로 천하에 험한곳이다. 서쪽으로 영무군이 있다. 또한 북쪽으로 광변군이 있는데 옛날 백운성이다.³⁹⁾ (『신당서(新唐書)』 「지리지(地理志)」 규주 규천군)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 보면 회용현이 현재 “관청수고가 있는 하북성 회래현(懷來縣)지역에 표시”⁴⁰⁾되어 있어 여기가 연장성의 서쪽 기점이 된다. 『신당서』에서 북쪽90리에 있는 장성은 당나라 때 쌓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장성의 기점이 적성(赤城)현 독석구진(獨石口鎮)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연장성의 동단(東端)인 양평(襄平)은 위치비정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중국이 서한초(위만조선 건국)이후 동쪽으로의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요동 · 요수 · 양평 등의 명칭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사기』「흉노열전」에는 연장성의 동단을 양평(襄平)이라 하였고, 진장성의 축성시 동단이 요동(遼東)이라 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연나라의 장성은 기원전3세기 초반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보며, 진나라에 의한 멸망은 기원전222년인 것을 감안 할 때, 진장성의 축성은 진나라가 전국시대 6국을 멸하고 통일시킨 기원전 221년 이후에 장수 몽염을 시켜 전국시대 3나라(진 · 조 · 연)의 장성을 보수 연결하여 쌓은 것으로써, 연장성의 동단인 양평과 진장성의 동단인 요동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본다.

양평 관련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자.

39) 懷戎. 上. 天寶中析置雋川縣. 尋省. 雋水貫中. 北九十里有長城. 開元中張說築. 東南五十里有居庸塞. 東連 盧龍 碣石. 西屬 太行 常山. 實天下之險. 有鐵門關. 西有寧武軍. 又北有 廣邊軍. 故白雲城也.

40)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5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48-49쪽.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⁴¹⁾(『사기』「흉노열전」)

양평에 대해 『사기색은』에서 주석하기를 위소는 양평은 지금 요동(군)의 치소라 했다.⁴²⁾ 『한서』「지리지」요동군조도 보자.

“요동군은 진(秦)나라때 설치하였으며, 유주에 속한다. 현은 18개이다. 양평현에 목사관이 있다. 왕망은 창평이라 했다.”⁴³⁾(『한서』「지리지」요동군조)

『진서』「지(志)권14 지리상(地理上)」평주(平州) 조에 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후한말 공손도는 스스로 평주목이라 불렀다, 그 아들 공손강 · 공손강의 아들 공손문의 또한 요동에서 할거하였으며, 동이의 아홉 종족이 복종하였다, 위나라 때 동이교위를 설치하였으며, 양평(襄平)에 거주하고, 요동 · 창려 · 현도 · 대방 · 낙랑 5군으로 나누어 평주로 했다가 후에 유주로 합하였다.”⁴⁴⁾(『진서』「지(志)권14 지리상(地理上)」평주(平州)조)

『후한서』「원소유표열전」도 보자.

“공손강은 요동인으로 아버지는 공손도이다……”⁴⁵⁾(『후한서』「원소유표열전」)

41) 燕亦筑長城，自造陽至襄平。

42) 索隱韋昭云：「今遼東所理也。」인용자 강조.

43) 遼東郡，秦置，屬幽州。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縣十八。襄平，有牧師官，莽曰昌平。인용자 강조.

44) 後漢末，公孫度自號平州牧，及其子康，康子文懿竝據遼東，東夷九種皆服事焉。魏置東夷校尉，居襄平，而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為平州，後還合為幽州。인용자 강조.

45) 公孫康，遼東人。父度……

공손강이 거주하였던 양평에 대해 주석하기를 “양평은 현인데 요동군에 속해 있다. 옛성이 지금 평주 노룡현(盧龍縣) 서남에 있다.”⁴⁶⁾ 주석자는 당나라 고종의 아들 장희태자 이현이다.

『구당서』「지리지」에 당나라의 평주 노룡현은 후한시대 요서군 비여현⁴⁷⁾인데, 노룡현은 지금까지도 명칭 변경 없이 하북성에 있다. 노룡은 현재 난하 하류 유역에 있는데 갈석산과 인접한 지역이다. 당시의 요동군 양평은 지금의 노룡현(盧龍縣) 서남쪽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중국학자 담기양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에 서한 · 동한시대 모두 요서군 비여현과 고죽성, 영지현은 현재 난하(灤河)하류 유역에 있는 걸로 표시⁴⁸⁾되어 있다.

요동의 개념과 장성의 동단에 대한 윤내현의 『고조선 연구』를 보자.

고대의 요동은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연나라나 진제국이 쌓았던 장성은 국경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요동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요수 또는 요하의 동부지역을 뜻한다고 한다, 고대에는 그 개념이 달랐다고 한다. 요동이란 극동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그들이 영토인 천하의 동쪽 끝을 극동이라는 의미로 요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요동은 원래 요수나 요하의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동이라는 말은 요수라는 강명이 먼저 생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동이라는 말은 전국시대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나 요서라는 말은 그 보다 늦은 전국시대 말기에야 보인다. 전국시대 말기에 연나라가 장성을 쌓고 그 안쪽에 요서군을 설치함으로써 요서라는 말이

46) 襄平，縣，屬遼東郡，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인용자 강조.

47) 『구당서』「지리지」, '평주', '노룡현' 조 盧龍後漢肥如縣，屬遼西郡

48) 譚其驤『中國歷史地圖集』제2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27-28쪽, 61-62쪽.

처음 사용되었다…… 요동이라는 말은 두가지 다른뜻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넓은 의미의 요동지역을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동이다. 이 요동은 지리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부분 중국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내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말하는 것이다.⁴⁹⁾

(『고조선 연구』, 180~182쪽.)

이 내용을 보면 고대의 요동은 중국영토 동쪽 끝이라는 의미의 극동이라는 것이다. 일리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쌓은 만리장성의 끝을 동쪽 경계의 끝인 요동이라고 기록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요동일수도 있고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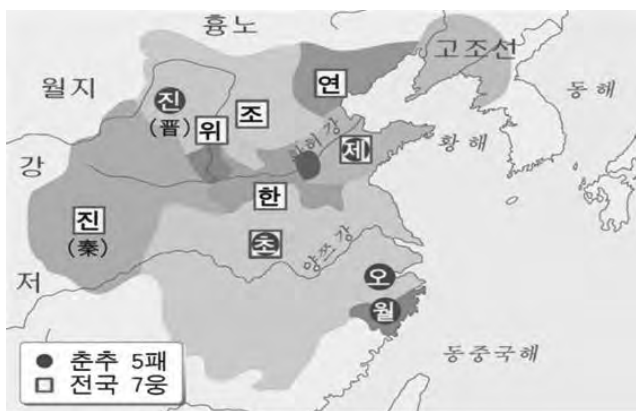


그림 1 춘추전국시대(네이버 인터넷에서 발췌)

2-4. 진개의 침략으로 인한 고조선 · 동호 영역축소 여부

진개의 침략으로 고조선의 서쪽경계와 관련하여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한전에 주석으로 실린 위략에 보면 “연나라는 바로 장수 진개를 파견하여 그 서방

을 공격하여 2천여리의 땅을 취하고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은 드디어 약해졌다.”⁵⁰⁾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처음 연나라 전성기에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기위해 장새(鄣塞)를 쌓았다. 진이 연나라를 멸하고, 요동의 외요(바깥변경요새)에 속하게 했다.”⁵¹⁾

위 두 가지는 진개의 동일한 고조선의 침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서별로 좀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내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진개의 침략후의 고조선의 서쪽 국경이 침략이전과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즉 진개는 고조선을 일시 침략하였다가 다시 후퇴를 했던 것이다. 또한 『사기』 「조선열전」에 나타나는 진번(眞番)과 조선(朝鮮) 복속내용은 조선의 거수국(渠帥國)인 기자조선과 진번을 쳤던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선열전」에 위만이 나라를 세운 후 “이로써 위만은 군세와 재물을 얻고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臨屯)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그 영토가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여기서 이전에 진개가 복속시킨 바 있는 진번을 위만이 다시 복속시킨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이 다시 고조선의 영토로 회복되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⁵²⁾

또한 『염철론(鹽鐵論)』 「비호(備胡)」편을 보면 “대부가 말하기를 옛적에 사이(四夷)가 모두 강하였다, 때를지어 쳐들어와 잔혹한 짓을 하였는데 조선(朝鮮)은 요(徼)를 넘어 연의 동쪽 땅을 빼앗았다.”⁵³⁾

이 기록에 나오는 요(徼)는 고조선과 연나라 사이에 설치되었던 연나라의 요새로서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진개가 고조선을 침략한 후에 설치(장새)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조선은 진개의 침략을 받았으나 이를 반격하여 오히려 연나라 동부지역을 빼앗은 사건으로서 고조선의 서쪽경계는 진개 침략전과 후는 큰 변동이

50)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爲界，朝鮮遂弱。

51) 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鄣塞，秦滅燕，屬遼東外徼。

52) 윤내현, 위의 책, 197~200쪽.

53) 大夫曰：往者，四夷俱強，并爲寇虐，朝鮮逾徼，劫燕之東地。

49)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180~182쪽. 인용자 강조.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의 침공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된다. 연소왕 때 제나라를 쳐서 많은 수의 제나라 성을 점령했다가, 6년 이후 제나라 전단(田單)의 공격으로 모두 다시 빼앗기고 대패하는 경우처럼 이기고 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다음은 동호의 활동영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나라 진개가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습격하여 패주 시키고, 동호는 천여리나 후퇴하였다. 연 또한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의 여러 군을 두어 오랑캐를 방어 하였다.”⁵⁴⁾ 되어있다. 이 사건은 연나라의 전성기인 연소왕(기원전311~279)때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 쌓은 연의 장성은 조양(현재 하북성 회래현)으로부터 연산산맥(거용새→노룡새→영자새)을 따라 양평(현재 갈석산 부근)까지 쌓고, 그 안쪽에 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요서군·요동군을 설치하여 동호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사기』 『조세가』를 보면 “조혜문왕(기원전298~266) 26년(기원전273년 경)에 동호에게 점령당했던 대(代)땅을 도로 빼앗았다”⁵⁵⁾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럼 이 시기 이전에도 조나라의 대(代) 주변에 동호가 계속해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데, 이는 연소왕(기원전311~279)사후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사기』 『염파인상여열전』에 보면 “도양왕(기원전244~236)때 이목은 조나라 북쪽 국경인 대(代)와 안문(雁門)사이에서 흉노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흉노선우가 쳐들어오자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이목은 10만 명이 넘는 흉노기병을 죽이고 담람 부족을 없앴 다음, 동호(東胡)를 쳐부수고, 임호를 항복시키니 그 뒤 10년 동안 흉노는 조나라 국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⁵⁶⁾ 는 기록을 볼 때 동

호는 여전히 기원전3세기 중·후반까지 조나라 대(代)땅 주변인 태행산맥(太行山脈)북부지역과 연나라 사이에 계속 존재하였던 것이다.

『사기』 『흉노열전』에 진나라가 6국을 통일(기원전221년) 하던 시기에 “당시에 동호(東胡)가 강하고, 월지도 세력이 왕성하였다”⁵⁷⁾ 하였고, 그 이후인 “모돈(冒頓)이 선우(재위:기원전209~174)에 올랐을 당시 동호(東胡)가 세력이 강하여 동호의 요구에 의해 천리마도 주고, 선우의 부인도 주고 하다가 당시 동호와 흉노사이에는 1,000리에 걸쳐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동호는 사자를 목들에게 보내어 흉노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수비초소 이외의 황무지를 달라고 하자 목들은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며, 동쪽으로 동호를 습격하였다. “동호는 처음에 목들을 업신여겨 방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가 그 습격으로 인하여 왕이 죽고 백성과 가축을 빼앗겼다.”⁵⁸⁾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원전2세기까지 동호는 강한나라였던 것으로 보아, 연나라 장군 진개가 동호를 습격하여 패주시켜 1,000여리를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록에서 보듯이 동호는 연나라의 북쪽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행산맥 주변인 서북쪽지역에도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나라 진개의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공격으로 현재 북경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에 있던 동호를 쳐서 연산산맥의 아래 쪽인 조양(현 하북성 회래현)부터 양평(현 노룡현 서남)까지 장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그림2참조)

아울러 연장성의 축성목적은 흉노나 동호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북경을 중심으로 짧은 구간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호가 현재의 요하동쪽이나 한반도까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하동쪽인 요양까지 쌓았다는 것은 누구나

54) 其後燕有賢將秦開。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55) 惠文王。二十六年。取東胡陂代地。인용자 강조.

56) 李牧多為奇陳。張左右翼擊之。大破殺匈奴十餘萬騎。滅襜褕。破東胡。降林胡。單于奔走。其後十餘

歲。匈奴不敢近趙邊城。인용자 강조.

57) 當是之時。東胡彊而月氏盛。

58) 冒頓既立。是時東胡彊盛。遂與之千里馬。遂取所愛閼氏予東胡。東胡王愈益驕。西侵。與匈奴間。中有棄地。莫居。千餘里。東胡使使謂冒頓曰。匈奴所與我界。陂脫外棄地。匈奴非能至也。吾欲有之。於是冒頓大怒曰。地者。國之本也。奈何予之。遂東襲擊東胡。東胡初輕冒頓。不為備。及冒頓以兵至。擊。大破滅東胡王。而虜其民人及畜產。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로 현 요서(遼西)지역에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믿을 수 있는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사기』 「흉노열전」에 “모든 좌방의 왕들과 장수들은 동쪽에 거주하고 상곡(上谷)군에서부터 동쪽을 맡아 예맥, 조선과 접했다”⁵⁹⁾ 라고 되어있다.

『사기』 「흉노열전」의 동호에 대한 주석인 사기색은에서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동호는 오환의 선조이며, 후에 선비가 되었다. 흉노의 동쪽에 있어 동호라 했다”⁶⁰⁾ 위 열전의 기록은 흉노는 상곡군의 동쪽으로 조선과 접했으며, 동호는 후에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진서』 권109 ‘재기 제9 모용황(慕容皝)’조에 “모용황의 자는 원진으로 모용외의 셋째아들이다…모용외가 요동공이 되면서 세자로 세웠다. 건무(317~318)초기에 관군장군·좌현왕으로 삼았고 망평후에 봉하였다. 군대를 이끌고 정토(征討)에 참가하여 수차례 공을 세웠다. 태녕(323~325)말기에 평북장군이 되고 조선공에 봉해졌다. 모용외가 죽자 모용황이 계승했다.”⁶¹⁾ 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선비족인 모용외를 조선공에 봉한 것은 옛 조선 땅 거주 등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기에 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에 모용황은 전연(前燕)(337~370) 건국시 최초 도읍지는 용성(龍城)(지금의 요령성 조양)으로 요서지역에 있다.

『요사』49권 〈예지〉조에 “요(遼)나라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며, 기자8조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풍속과 관습이 모두 남아있고 대부분 존재한다”⁶²⁾고 되어 있으며, 요나라의 도읍지 상경임황부는 지금의 내몽고자치주 파림좌기(巴林左旗) 부근이다.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운나라이며, 거란족은 선비족의 한 갈래로 고조선의 후예로 스스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諸左方王將居東方，直上谷以往者，東接穢貉、朝鮮。

60) 東胡，烏丸之先，後為鮮卑。在匈奴東，故曰東胡。

61) 慕容皝字元真，廆第三子也。龍顏版齒，身長七尺八寸，雄毅多權略，尚經學，善天文。廆為遼東公，立為世子。建武初，拜為冠軍將軍、左賢王，封望平侯，率眾征討，累有功。太寧末，拜平北將軍，進封朝鮮公。廆卒，嗣位。 인용자 강조

62) 遼本朝鮮故壤，箕子八條之教，流風遺俗，蓋有存者。

이 기록 모두를 살펴볼 때 고조선은 하북성 북부와 요서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된다.



그림 2 전국시대 연나라 장성과 5군 위치

3. 다른 학자들의 견해

노태돈은 연·진장성 동단에 대해 요동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기 몽염전에서, 진의 장성이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며, 만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사기중 흉노전에서, 연의 장성이 동으로 양평에 이르고 연이 요동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어 진의 장성이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서 흉노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전한다. 양평은 요양의 치소로서, 오늘날의 요양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의 요하는 오늘날의 난하이요 연·진장성의 동단은 난하의 동편인 요서지방의 갈석이었다는 반론이 요서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 견지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그러한 반론이 제기한 논거들을 일일이 검토하기 보다는, 연·진의 장성의 유지에 대한 조사보고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

다.”라면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원거리에 축조된 장성의 유지로 보아야만 한다. 사기에서 전하는 연·진의 장성의 동단이 오늘날의 요하선에 이르렀음은 실물 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⁶³⁾

노태돈은 먼저 연·진장성의 동단을 그 당시의 문헌사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장성의 유지, 유물들을 우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요서와 요동지역의 성이나 요새 등 쌓은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조에 고구려도 “태조왕3년에 요서에 10개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를 방비토록 했으며”⁶⁴⁾, 또한 중국에서도 한사군 설치(기원전108년)이후인 서한후기나 동한시대에 이후에도 이 지역에 성을 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성이 꼭 연장성과 진장성의 축조시기인 연·진시대에 쌓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성터나 요새에서 발견되는 일부 유물이 연·진·한시대의 유물이라고 해도, 그것은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한(韓)〉조에 주석으로 실린 위략에 보면 “진나라가 전국시대 6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진제국 때 진승과 오광 그리고 항우 등이 일어나자 고조선과 경계에 가까운 연·제·조나라 등의 유민들이 난리의 혼란과 어수선한 소용돌이를 피해 고조선 지역으로”⁶⁵⁾ 올 때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올수도 있고 아울러 정착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집이나 무덤들을 조성하였을 수도 있으며, 교역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런 비판도 없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시대의 유물은 사실상 해당도 안 되는 것이다. 진장성은 진나라가 6국을 통일(기원전221년)이후에 진나라 시대에 쌓은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요동을 현재의 요동과 같이 보는 착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연·진장성 동단이 난하의 동편인 요서지방의 갈석이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제

기한 논거들을 일일이 검토하기 보다는 연장성의 유지에 대한 보고서가 먼저라고 한다. 학자로서 위치비정에 있어 그 당시의 해당사료 검토가 먼저 우선인데, 그 것을 제껴두고 중국학자들이 조사한 불확실한 장성 유지만이 맞다고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 “중국학자들은 만주지역이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만주에 성터가 발견되면 그것을 진장성 즉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⁶⁶⁾라고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의 요동은 난하 유역 갈석산 인근지역이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기』 「진시황본기」를 보면 “땅은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렀고 조선(朝鮮)에 미쳤다. 서쪽은 임조(臨洮)·강중(羌中)에 이르렀고, 남쪽은 북향호(北嚮戶)에 이르렀으며, 북쪽은 황하(黃河)에 의하여 요새(要塞)로 삼고 음산(陰山)과 나란히 요동(遼東)에 이르렀다. 여기서의 바다(海)에 대해서 ‘사기정의’에는 발해 남쪽의 양주, 소주, 태주 등에 이르는 동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동북쪽에 조선국이 있다”⁶⁷⁾고 했다.

여기서 바다는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 등지가 된다. 그리고 동북쪽에 조선이 있다고 했으므로 하북성 등 발해지역의 어느 부분이 되는 것이다. 북쪽으로는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요동과 조선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요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봄에 2세가 동쪽으로 순행하니 이사가 따랐다.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를 따라 남쪽 회계산에 도착하여, 시황제가 세운 글 비석에 모두 글자를 새겼는데, 비석의 한쪽 측면에 수행한 신하들의 이름을 새기고 선제의 성공과 성덕을 밝혔다. 황제가 말했다. 금석에 새긴 것은 모두 시황제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제

63)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4, 50~51쪽.

64) 三年 春二月 築遼西十城 以備漢兵

65) 其子准立.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准

66) 윤내현, 앞의 책, 202쪽.

67)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並陰山至遼東.正義暨, 海謂渤海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 暨, 及也. 東北朝鮮國.

호칭을 이어받아 금석에 새긴 글귀에 시황제라 부르지 않는다면, 세월이 오래 흐른후에는 후대에 계승한자가 행한 것처럼 되니, 시황제가 이론공적과 성스러운 덕에 걸맞지 않게 될 것이요, 숭상이사, 신하 거질, 어사대부 덕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다. 신들이 청하옵건데 황제의 조서를 이 비석에 다 새겨, 이것으로 명백히 밝히겠습니다.(황제는) 명을 내려 재가하노라. 마침내 요동에 이르렀다가 돌아 왔다.⁶⁸⁾(『사기』「진시황본기」)

위의 인용문은 『사기』「진시황본기」다. 『사기』「효무본기」도 보자.

천자가 태산에서 봉선을 마칠때까지 비바람의 재앙이 없었다.……다시 동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도착 멀리 바라보면서……천자는 마침내 그곳을 떠났는데 해상을 따라 북쪽으로 갈석에 이르러 요서로부터 순행⁶⁹⁾하여 북변(北邊)을 거쳐 구원(九原)에 이르렀다. 5월 돌아가 감천에 도착했다⁷⁰⁾(『사기』「효무본기」)

위 두 기록을 보면 『사기』「진시황본기」에 진의 2세가 순행(巡行)한 곳은 갈석산을 요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요동은 동쪽경계를 말하므로 지금의 난하 유역인 것이다. 한무제는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치르고, 신선을 만나고자 동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도착하였으나 봉거 광자후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한루만에 죽는 바람에 길을 떠나 해상(海上)을 따라 북쪽 갈석에 이르렀고, 요서로부터 순행하여 북쪽변경을 거쳐 구원에 이른것으로서, 갈석은 지금의 난하하류 유역부근에 있

68)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成功盛德焉: 皇帝曰: 「金石刻盡始皇帝所爲也, 今襲號而金石刻辭不稱, 始皇帝, 其於久遠也, 如後嗣爲之者, 不稱成功盛德, 丞相臣斯, 臣去疾, 御史大夫臣德味死言: 「臣請具刻詔書刻石, 因明白矣, 臣昧死請, 制曰: 「可, 遂至遼東而還. 인용자 강조.

69) 인용자 강조.

70) 天子既已封禪泰山, 無風雨雷, 乃復東至海上望, …上乃遂去, 并海上, 北至碣石, 巡自遼西, 歷北邊至九原. 五月, 返至甘泉.

으므로 여기를 경계로 연결해 있는 요서군으로부터 순행 북쪽의 변경을 지나 구원(九原)에 이르렀고, 감천(甘泉)으로 돌아온것이라고 본다.

송호정은 연나라가 동호를 물리치고 설치한 5군의 위치를 모두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북평군은 난하와 노합하주변으로, 요서군은 대릉하와 의무려산 인근으로, 요동군은 현재 요하동쪽으로 하여, 이상 3군의 북부는 모두 연북장성을 경계로 하고 있다.⁷¹⁾라고(그림4) 하여, 중국역사지리학자 담기양이 주편으로 만든 중국역사지도집의 위치⁷²⁾와(그림3) 거의 비슷하고 보고 있다.



그림 3 담기양의 중국역사 지도집 1책 p. 41-42



그림 4 송호정의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p. 247

71) 송호정,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루른역사, 2003, 247쪽.

72)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41-42쪽.

이는 중국학자들의 주장들을 세부적으로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송호정의 말을 더 들어보자.

기원전284년(연소왕26) 연은 우수한 철제무기와 무장을 바탕으로 악의(樂毅)를 상장군으로 하여 제나라의 70여성을 함락하였으며...연소왕은 강화된 국력과 제나라 정벌의 승세를 타고⁷³⁾ 북상하여 동호를 격파하였고, 비로서 남만주 지구를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요동 및 서북한 지역의 조선 후 세력을 공격하여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까지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⁷⁴⁾.

이 근거로 『사기』 「흉노열전」의 연나라 진개가 동호를 습격하여 천여리를 물러나게 했다 것과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한〉조에 주석으로 실린 위략에 조선을 침략하여 2천 여리를 취하고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것을 근거로 보았으나, 송호정이 전후 사정을 근거 없이 확대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연소공세가」를 보면 연소왕28년(기원전284년경)에 진·초·한·위·조 등 5개국과 연합해 제나라를 치고 6년간 연속 하에 두었다고 되어있어 연나라만 강화된 국력과 우수한 철제무기를 가지고 침공해서 연나라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으로 침공한게 아니고 6개국이 함께 제나라를 친 것이며, 또한 제나라 정벌의 승세를 타고 북상하여 동호를 치고, 이후 계속하여 요동 및 서북한지역의 조선후세력을 공격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연나라가 그럴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

송호정교수 말대로 기원전284년에 제나라를 쳤는데, 이것이 금방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기(史記)』 「악의열전(樂毅列傳)」을 보자.

73) 인용자 강조.

74) 송호정, 앞의 책, 291쪽.

악의는 조·초·한·위·연 다섯 나라의 병사들을 통솔하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제나라군사를 제수(濟水) 서쪽에서 격파하였다. 제후들은 싸움이 끝나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으나, 악의는 연나라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임치(臨淄)까지 들어갔다. 악의는 홀로 제나라에 머물면서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나, 제나라의 모든 성은 계속 수비태세를 갖추었다. 악의는 임치로 진공한 후에 제나라의 보물과 제사용기를 연나라로 실어 보냈다……연소왕은 제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두어 연나라로 돌아가고, 악의를 시켜 군대를 이끌고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제나라의 각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악의는 제나라에 머무르면서 근거지를 점거한지 5년 만에 제나라의 70여 개성을 함락시켜 모두 연나라의 군현으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거(莒)와 즉묵(即墨)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때마침 연소왕이 붕어하고 그 아들이 즉위하여 연혜왕이 되었다.”⁷⁵⁾(『사기(史記)』 「악의열전(樂毅列傳)」)

위 상황은 악의(樂毅)가 연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5년 이상을 제나라에서 각성들을 항복시키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직도 함락되지 않은 2개의 성이 있는 와중에 연소왕이 죽게 되는데, 다음왕인 연혜왕(기원전278~272)은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모함으로 인하여 소환 당하자 악의는 조나라로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연혜왕 초에 제나라 전단(田單)의 반격으로 연나라가 점령하였던 성을 모두 다시 빼앗기고, 역으로 연나라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언제 병력을 동원해서 동호와 조선을 치고 장성을 쌓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75) 樂毅於是并護趙、楚、韓、魏、燕之兵以伐齊，破之濟西。諸侯兵罷歸，而燕軍樂毅獨追，至于臨菑。樂毅獨留徇齊，齊皆城守。樂毅攻入臨菑，盡取齊寶財物祭器輸之燕。於是燕昭王收齊鹵獲以歸，而使樂毅復以兵平齊城之不下者。樂毅留徇齊五歲，下齊七十餘城，皆為郡縣以屬燕，唯獨莒、即墨未服。會燕昭王死，子立為燕惠王。

송호정은 연의 연북장성 수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연군은 동호를 1,000여리 밖으로 물리쳐 시라무렌 유역이북으로 쫓아냈다. 동호를 물리친 후 연은 동북지방을 견고하게 통치하기 위해 연북장성을 수축하였다. 서쪽 독석구에서 시작하여 동쪽 요하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완만히 곡절된 연북장성은 수천km에 이른다.⁷⁶⁾

이 근거로 『사기』 「흉노열전」의 연나라 진개가 동호를 습격하여 천 여리를 물리나게 했다는 것으로 그걸 근거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사료에 동호가 시라무렌강 유역 이북으로 물러갔다고 했는가?

『사기』 「조세가」와 「염파인상여열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연소왕(기원전311~279)사후인 조혜문왕(기원전298~266)26년(기원전273년경)에 “동호에게 점령당했던 대(代)땅을 도로 빼앗았다.”⁷⁷⁾라고 하였고, “조도양왕(기원전244~236)때 이목은 안문(雁門)과 대(代)사이에서 수비중 흉노가 쳐들어오자, 이 싸움에서 이목은 10만명이 넘는 흉노기병을 죽이고 담람 부족을 없앴다음, 동호(東胡)를 쳐부수고, 임호를 항복시켜 크게 이겼다고 한다”⁷⁸⁾는 기록을 볼 때 동호는 여전히 기원전3세기 중·후반까지 조나라 대(代)땅 주변인 태행산맥(太行山脈)북부주변과 연나라 서쪽에도 계속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동호가 연나라의 북쪽 뿐만 아니라 서쪽지역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연북장성이 요하유역까지 수천km에 이른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1천km

만해도 대략2,500리인데, 수천km라니? 이는 동호가 시라무렌강 북쪽으로 가야만 담기양이 편찬한 중국역사 지도집의 연장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면 “연장성이 수천km에 이른다”는 것도 연장성을 청천강 유역인 박천까지 그린 담기양의 『역사지도집』과 같이 짜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혀 비판도 없이 그대로 모두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다. 꼭 한반도까지 경계를 끌어 들여 고조선을 소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아울러 연장성의 동단을 말하면서 “문헌기록상 연북장성은 ‘조양에서 양평에 이른다’고 하고, 오늘날 하북성 회래에서 요령성 요양을 말한다”⁷⁹⁾고 했는데, 이는 양평이 현재의 요동에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요동군에 양평현이 있으니 양평이 요양이라는 생각으로 전혀 관련 사료도 무시하고 추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4. 맺음말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경계는 지금의 난하 유역이었다. 전국시대(기원전403~221) 연나라의 상황은 전국7웅 중 가장 약소국으로 연역왕(기원전332~321)때는 제나라의 공격을 받아 10개성을 빼앗겼으며 연쾌왕(기원전320~312)때는 왕이 재상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신하가 되는등 어리석은 정치로 내분이 일어나 제나라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여 왕이 죽는등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소왕(기원전311~279)때 잠깐 중흥기를 맞아 진·초·한·위·조의 나라와 연합하여 제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의 많은 지역을 예속하였으나, 연소왕이 죽은 뒤 연혜왕(기원전278~272)초에 다시 제나라의 공격으로 모두 빼앗기고

76) 송호정, 앞의 책, 303쪽.

77) 주50과 같음. 인용자 강조.

78) 주51과 같음. 인용자 강조.

79) 송호정, 앞의 책, 304쪽.

연나라까지 공격을 받고 왕이 대신에게 살해되는 등 어수선했던 혼란이 계속되었으며, 진(秦)·조(趙)·제(齊)나라의 지속된 침공 속에서 체제유지조차도 어렵게 되다가, 기원전 222년에 진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연나라의 위치는 현재의 북경을 중심으로 남쪽은 창주(滄州)와 보정(保定)시를, 서쪽으로는 태행산맥을 넘지 못하였고, 북쪽은 연산산맥, 동쪽은 갈석산과 난하 유역 주변까지로 보인다. 연장성은 기록상 조양에서 양평까지로 되어있다.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⁸⁰⁾에 연장성의 기점인 조양은 현재 하북성 회래현지역(관청수고 주변)에 표시하였다. 사료검토 결과 서쪽은 현재 탁록 부근인 회래현을 기준으로 연산산맥 아래쪽인 노룡새를 거쳐 난하 하류 유역인근인 갈석산까지였다고 본다. 그 안쪽 내외에 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요서군·요동군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은 연장성의 동단을 현재 요하 동쪽인 요양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대의 요동을 현재의 요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서와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확실하지도 않은 장성유지나 유물을 연·진·한대의 것이 맞다고 맹종하고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유물이나 유지가 연·진대의 것이 맞다고 해도 그것은 “전국시대 말기와 진제국시대 만리장성 수축, 진승과 항우의 봉기, 위만조선 건국 시에도 중국과 고조선의 인근에 있는 연(燕)·제(齊)·조(趙)의 많은 사람들이 망명이나 유이민으로 들어 올 때”⁸¹⁾ 사용하던 유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며, 일부 요새나 성을 그들의 방식으로 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원전108년 한나라의 침입으로 위만조선 멸망 시 요서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할 때 한족들이 전국시대나 진제국 때의 사용하던 유물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성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당시의 문헌사료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성을 현재 요양까지, 영향력과 경계는 한반도 북부까지로 보고 있다.

또한 송호정은 연나라의 연북장성이 수천km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사기』 「흉노열전」과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나오는 동호와 조선을 물리친 기록보다도 더 확대해서 주장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일고(一考)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80)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p33-34

81) 주60과 같음.

참고문헌

『史記』, 「秦始皇本紀」, 「孝武本紀」, 「燕召公世家」, 「齊太公世家」, 「田敬仲完世家」, 「趙世家」,
「匈奴列傳」, 「朝鮮列傳」, 「貨殖列傳」, 「樂毅列傳」, 「廉頗藺相如列傳」, 「鯨布列傳」,
『漢書』, 「地理志」, 「佞幸列傳」
『後漢書』, 「袁紹劉表列傳」
『三國志』, 「烏桓鮮卑東夷傳」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晉書』, 「載記」, 「志」
『新唐書』, 『舊唐書』, 「地理志」
『遼史』, 「禮志」
『戰國策』, 「燕策」
『呂氏春秋』, 「有始覽」
『鹽鐵論』, 「險固」, 「備胡」
『說苑』, 「辯物」
『淮南子』, 「人間論」
『通典』, 「鵠州郡」
『水經注』, 「濡水」

구자성, 『상고사를 찾아서』, 이엘씨미디어, 2003.

권오현 역해, 『사기열전』(Ⅰ, Ⅱ), 일신서적출판사, 1991.

김병기, 「고조선중심지이동 비판」, 『바른역사학술원』 제1호, 2017.

김성구 발췌번역, 『중국정사조선열국전』, 동문선, 1996.

김운회, 『우리가배운 고조선은 가짜다』, 역사익아침, 2012.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4.

문성재, 『한국고대사와 한중일 역사왜곡』, 우리역사연구재단, 2014.

송호정,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심백강, 『잃어버린상고사 되찾은고조선』, 바른역사, 2018.

우실하, 『동북공정넘어 요하문명론』, 소나무, 2007.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 『한국고대사신론』, 만권당, 2017.

이덕일, 「낙랑군조선현의 위치」, 『바른역사학술원』 제1호, 2017.

, 『한국사 그들이숨긴진실』, 역사익아침, 2009.

정범진의 옮김, 『사기세가』(전2권), 까치, 1994.

옮김, 『사기열전』(전3권), 까치, 1995.

潭其驤,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82.

臧勵齋,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書店出版社, 2015.

[Abstract]

Border of Gojoseon and Yan of Warring States Period

Choi, Won-tai

The border issue between Gojoseon and the nation - era Yan is very important. The eastern boundary of ancient China is the first of all to look at the river of our ancient history, Gojose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history of the late Gojoseon, the first country in our country,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Chinese historians are now working on turning the history of other ancient peoples into their own history based on their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Chinese at that time, the Yan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is ranked as the weakest nation among the 7th nationwide.

Colonial historians have recognized the ancient Liao-dong as the present east of the Liao-ho, and the eastern side of the Yon great-walls, Yangpyeong as Liaoyang,

It is claimed that the boundary has exerted influence over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Cheongcheon river (Pyeongangbuk-do Pakchon).

It is a fact that colonial historians, who inherited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colonial rule, follow the claims of Chinese historians without any criticism and follow their claims.

If you look at the ancient records, it is completely unfounded.

Key words : Gojoseon, Yan of Warring States Period, Yan great-walls, Liao-dong, Jing-gae(秦開)

『역사와융합』 제 3집(2018. 12)

가야 불교의 전래시기에 관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장 재 진(동명대)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가야불교란 어떤 불교인가?
3.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에 대한 기준
4. 가야문화와 가야불교 연구방법의 문제점
5.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와 전승루트
6. 마치는 말

【국문초록】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와 전승주체에 관련해서 분분하게 논의되어 왔다. 문헌과 유적 및 유물이 부족한 이천여 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건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니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없다.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는 ‘가야불교’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정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어떤 종류의 불교가 전래되었는지가 모호하다.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문헌과 고증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것인지, 인문학적 방법론을 토대

로 한 관점인 것인지에 따라서 연구방법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야에 전래된 불교가 어떤 종류의 불교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래되었는가? 어떤 인물이나 전승집단을 통해서 전래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전래되었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 가야불교 전래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다.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를 고찰해 볼 때, 불교의 수용과 공인 그리고 불교의 융성에 따른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래시기’라고 하는 것이 초기의 전래에서 어느 시기까지를 규정할 것인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래 시기와 수용된 시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래되어 민간에서 유포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전래된 시기로 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만한 문헌상의 정확한 기록은 없다. 불교의 시작점을 기록한 공식적인 입장을 국가에서 공인된 시점으로 전래의 시기를 삼고 있지만, 가야불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문헌과 사료에만 의존했던 연구의 한계를 문화교류사의 관점에서 폭 넓은 시각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종합해서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불교 전래설을 따르든지 남방불교 전래설을 따르든지 상관없이 왕후사 창건을 역사적 사실의 시작점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AD 452년)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의 순서로 공식적인 불교의 공인이 정해진다. 둘째, 김수로왕이 즉위하고 도읍을 정할 때(즉위 2년)를 가야불교의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AD 44)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가야불교 전래설(AD 452년)보다 불교전래의 시발점을 372년 올려 잡을 수 있다. 셋째,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를 왕후사 창건의 시기(AD 452년)나 김수로왕 즉위 후 도읍을 정하는 시기(즉위 2년)로 보는 견해는 왕이나 ‘국가에 의해서 불교가 공인’된 시기를 시발점으로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불교가 전래되어 민간에 유포된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훨씬 이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허왕후의 한반도 도래와

동시에 불교가 전래(AD 48)되었다고 본다면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는 허왕후와 함께하게 된다.

[주제어] 가야불교, 전승루트, 전래시기, 북방불교, 남방불교, 실크로드해로

1. 시작하는 말

가야불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전래시기에 관한 의견은 더욱 분분하게 논의되었다. 이천여 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건을 현재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정의하고자 하니 시간성에 있어서부터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없다.

‘가야불교 전래시기’는 ‘가야불교’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정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불교의 개념을 한정지어서 ‘가야불교’에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가야불교’를 규정한다면 이 또한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문헌과 고증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것인지, 인문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 관점인 것인지에 따라서 연구방법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¹⁾

이때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가야불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가

1)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회과학적 방법’이란 실증적 사료 고증을 통한 연구 방법을 의미하며, 인문학적 방법이란 실증적 사료 고증뿐만 아니라 고증되지 않은 사료라 할지라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융합적·복합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무엇보다 실증적 사료에만 위배되지 않는 해석학적인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장우(1997), 『실증사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사시민강좌』 20, 일조각, 39-40참조; 박양식(2013), 『서양 사학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 실증사학』, 『송실사학』 31, 송실사학회 참조.

야에 전래된 불교가 ‘어떤 불교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²⁾ 대부분 북방불교의 전승인지 남방불교의 전승인지에 아니면 두 가지가 혼재된 성격의 불교인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따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문헌부족에 따른 열악한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김수로왕 이전에 불교가 전래 되었는가? 허왕후의 도래시기와 함께 유입된 것인가? 왕후사 창건을 가야불교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신라시대 김유신 계열의 가야후손들에 의해 운색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신화나 전설 또는 가공된 이야기로 치부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남긴 채 ‘가야불교’에 대한 정체성과 전래 시기는 여전히 과제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야에 전래된 불교가 어떤 종류의 불교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래되었는가? 어떤 인물이나 전승집단을 통해서 전래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전래되었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 가야불교 전래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를 고찰해 볼 때, 불교의 수용과 공인 그리고 불교의 융성에 따른 흐름도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래시기’라고 하는 것이 초기의 전래에서 어느 시기까지를 규정할 것인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래 시기와 수용된 시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래되어 민간에서 유포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전래된 시기로 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만한 문헌상의 정확한 기록은 없다. 불교의 시작점을 기록한 공식적인 입장을 국가에서 공인된 시점으로 전래의 시기를 삼고 있지만, 가야불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문헌과 사료에만

의존했던 연구의 한계를 문화교류사의 관점에서 폭 넓은 시각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인문학적 사고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회과학적 방법 중에서 고증만을 중심으로 하는 의 접근에 의한 판단이라면 ‘가야불교 전래시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방법에 의한 접근이라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천여 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힌다는 것은 ‘가야불교’에 대한 문헌이나 유물 유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추측과 상상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가야불교를 언급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주장의 중심에는 ‘종교적인 성향’이나 ‘학문하는 방법론’이 선행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오래 전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장하는 근거와 방법 그리고 문헌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는 전래된 지역이나 전승루트와 중요한 상관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북방불교 전래설을 중심으로 그 장소와 전승루트가 근간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남방불교 전래설은 불교가 전래된 시기와 전승루트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남방의 해로와 관련된 주장이다. 가야사의 연구에 남겨진 자취와 가야문화와 가야불교에 대한 모색을 통해서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와 전승루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가야불교의 전래에 관한 연구는 가락국의 국명이나 전래 시기 및 지역을 재검토 한 황정일(2018)의 「가야불교 전래 관련 쟁점 재검토」(『구산논집』 보조사상연구원)가 있고, 가야불교의 전래시점을 중심으로 남래설에 초점을 맞춘 이거룡(2017)의 「한국불교남래설(南來說) 고찰 : 가야불교의 전래 시점을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있다. 그리고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를 가락국 제8대 질지왕에 의한 452년의 創寺를 역사적 사실로 보고자 한 조정옥(2006)의 「가야불교 전래에 관한 재검토」(『인제대학교 석사논문』)가 있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와 「파사석탑」조를 중심으로 가락국의 불교 전래와 성격을 둘러싼 일연(一然)의 인식과 현대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한 석길암(2016)의 「가락국(駕洛國)의 불교(佛敎) 전래(傳來) 문제와 성격에 대한 검토」(『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있다.

2. 가야불교란 어떤 불교인가?

통상적으로 불교를 정의할 때 다양한 정의가 따른다. 지역별로는 지금의 인도 지역을 불교의 발생지로 보고, 중국불교, 일본불교, 한국불교, 동남아불교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대승불교(북방불교)와 소승불교(남방불교, 장로불교, 테라와다불교, 상좌부불교)라는 개념이 같이 한다. 그리고 초기불교, 부파불교, 중관불교, 유식불교, 밀교, 선불교 등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시대와 지역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어 왔다. 너무나 보편적인 이러한 분류를 굳이 나열한 이유는 가야시대에 전래된 불교가 과연 어떤 종류의 불교인지 대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야에 전래된 불교가 어떤 종류의 불교인가에 대해서 가정해 보면, 특정 성향의 불교발생과 관련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에 대한 견해를 보면 대체로 김수로왕 이전, 김수로왕 때, 허왕후의 도래와 함께, 왕후사가 창건된 때로 주장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떤 종류의 불교가 전래되었는가? 이다.

김수로왕 이전이라면 ‘석가모니 시대부터 아소카왕(阿育王) 재위인 BC 272? ~ BC 232? 시대’까지를 일컫는 초기불교와, 석가모니 입멸 후 100년경에 원시 불교가 분열을 거듭하여 20여개의 교단(敎團)으로 갈라지고 200~300년에 걸쳐 다시 분파가 생겨나 기원전 200년경에는 총 2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는 불교를 총칭하는 부파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 인도의 중관불교와 유식 불교 그리고 초기밀교 역시 김수로왕 재위 이전부터 재위기간과 유관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불교전래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의 이면에는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학자가 역사적 관점에서 논거와 논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추론과 상상력에 바탕을 둔 주장은 다음 연구를 위한 논의의 선편이 되

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써 가야불교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었다.

다만 충분한 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 제기와 이에 따른 새로운 연구에 대한 논의의 선편을 제시한 의의 있는 연구들이 있다.³⁾ 이를 선편으로 가야에 전래된 초기의 불교가 어떤 종류의 불교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에 대한 기준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한 논의는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있는 이후에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래된 불교의 성격이나 종류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반 백성들에게 전래된 구복적인 불교인지, 왕실이나 귀족집단에 전승되어 율령의 반포로 이어질만한 성격의 불교인지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가락국이나 가야연맹체에 전래 또는 성행한 불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가야불교를 정의하기 힘들게 한다.

김수로왕 이전에 불교가 전래 되었다면 연대를 약 AD 42년 이전으로 거슬러

3) 황정일(2018)은 「가야불교 전래 관련 쟁점 재검토」(『보조사상』, 보조사상연구원)에서 가락국 국명과 전래 지역 그리고 전래시기에 대해 삼국유사의 「어산불명」과 「파사석탑」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한지연(2018)은 「가야불교 출발선에서 본 아요디아의 위치에 대한 재고 -허황후 이동경로 추정을 통해서-」(『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허황후가 어떤 방식으로 왜 가야에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허황후의 출신지역과 이동경로를 문화교류사의 측면에서 상정해 본 연구이다. 석길암(2016)은 「駕洛國의 佛敎傳來 문제와 성격에 대한 검토」(『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와 「파사석탑」조를 중심으로 가락국의 불교 전래와 성격을 둘러싼 일연(一然)의 인식과 현대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불교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거룡(2017)은 「한국불교남래설(南來說) 고찰 -가야불교의 전래 시점을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남래설의 중심에 있는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에 대하여 고찰했다.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래하는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불교가 가락국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영섭(2009)은 「부파불교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 테라와다 불교의 전래와 관련하여」(『한국선학』, 한국선학회)에서 고종세의 한국에 전래된 비바사(毗婆沙)와 마하연(摩訶衍)과 현대에 새롭게 전래해온 ‘테라와다’(上座, 上座部) 불교의 접점과 통로에 대해 논구하며, 고운 최치원(857~?)의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는 “사(성)제를 역설하는 소승의 비바사가 먼저 왔고, 일(불)승을 역설하는 대승의 마하연이 뒤에 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불교의 남래설이 가능했음을 주장했다.

올라가서 불교전래의 가능성과 전래루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수로왕이 수도를 정할 때를 불교전래의 시기로 삼는다면 『三國遺事』권2 「紀異」편 「駕洛國記」조에서 수로왕이 언급한 ‘16나한(羅漢)’과 ‘칠성(七聖)’⁴⁾ 그리고 ‘일(一)’에서 삼(三)을 이루고 삼에서 칠(七)을 이루니’라는 용어나 구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허왕후의 도래와 함께 불교가 전래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불교가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 김해지역으로 전래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허왕후의 고향에 대해서도 북인도와 중인도 남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⁵⁾ 고대의 해상루트를 통한 교역의 과정에서 허왕후와 불교의 전래를 주장한 한지연은 그의 논문 「고대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파의 가능성과 의미」(2016)에서 “허왕후가 실제 보주로 이동이 된 것인지, 혹은 인도 아유타국에 조상을 둔 보주출신의 아유타국 공주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허왕후가 인도 혹은 중국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야와의 해상교역이 필요조건으로 부상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결합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상황의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된 허왕후를 통해서 전래된 불교에 대한 주장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

첫째, 아유타국 출신의 공주인 허왕후와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해진 불교와 둘째,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이분화해서 어떤 성격의 불교가 들어왔는가라는 문제보다 중국의 변용된 불교가

아닌 인도불교의 직접적인 전파라는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인도에서의 불교가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허왕후가 남쪽 바다 건너 일본(왜)에서 왔다는 주장을 근거로 불교의 전래를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으로 전래된 불교의 성격을 모색해 볼 수 있다.⁶⁾

왕후사 창건은 늦어도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가 전래되자마자 바로 사찰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불교가 이미 수용되어 있었다면 국가불교의 성격을 지닌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⁷⁾

신라시대 김유신 계열의 가야후손들에 의해 윤색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야시대의 불교전래를 완전히 부정하고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는 추측과 상상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 가야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고 수로왕이나 허왕후와도 관련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 또는 가공된 이야기로 치부될 것들이라는 주장 역시 사료와 문헌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한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잡을 수 있는가?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가설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기술에 근거한 융·복합적 연구방법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6) 한지연은 그의 논문 「고대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파의 가능성과 의미」(2016)에서 “허왕후가 실제 보주로 이동이 된 것인지, 혹은 인도 아유타국에 조상을 둔 보주출신의 아유타국 공주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허왕후가 인도 혹은 중국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야와의 해상교역이 필요조건으로 부상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결합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상황의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된 허왕후를 통해서 전래된 불교에 대한 주장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 첫째, 아유타국 출신의 공주인 허왕후와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해진 불교와 둘째,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이분화해서 어떤 성격의 불교가 들어왔는가라는 문제보다 중국의 변용된 불교가 아닌 인도불교의 직접적인 전파라는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인도에서의 불교가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 석길암은 「駕洛國의 佛敎傳來 문제와 성격에 대한 검토」(2016)에서 ‘왕후사의 창건’시기에 가야지역에 불교가 수용되고 있었다면, 동아시아 불교의 전파와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왕실의 조상추선을 위한 사찰 건립이라는 점에서 보면 ‘국가불교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아함경(阿含經)』과 소승율장에서 수행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자로 일컫는 아라한은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자(聖者)로 이해되었다. 대승불교 국가에서 아라한은 나한(羅漢)신앙의 형태로 존속하였다. 16羅漢이 정확하게 아라한을 일컫는 것인지 칠성(七聖)이 칠불(七佛)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수로왕이 사용한 용어가 불교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수로왕대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허왕후의 고향이라고 믿어지는 아요디야가 북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의 고대도시인지 남인도의 첸나이부근인 꾸뽀야요디아 등 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4. 가야문화와 가야불교 연구방법의 문제점

가야불교를 논하기에 앞서 가야문화를 살펴보면 ‘伽倻史’ 자체의 문헌기록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그 공백이 크다. 가야가 부족분립의 시대에서 신라에 복속되어 통일된 역사의 전승을 이루지 못했던 관계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고분을 제외하고는 고증된 사료를 통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부족한 문헌의 고찰만으로 고대사를 규정한다는 것은 추론이나 유추 그리고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문화를 고대 가야사의 고증적 방증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남겨진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국문헌에서 초기자료를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으로『日本書紀』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三國史記』와『三國遺事』가 대표적인 자료이고 중국의 문헌으로는『三國志』『後漢書』『晉書』『宋書』『南齊書』『梁書』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료이다. 가장 신뢰성을 부여하는『三國史記』의 경우 고려시대에 원본이 어떻게 유포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알려져 있는 최초의 印行本이 조선 태조 2년(1393) 甲戌에 慶州에서 印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조선 초에 경주에서 간행되어 유포된 이『三國史記』本은 현재에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중종 7(壬申, 1512)년 明의 年號를 따서 지어진 正德本을 희귀본으로 보고 있다.『三國遺事』의 간행도 처음 간행된 것은 전하지 않고 지금 극히 희소한 판본으로 되어 있는 正德(임신, 1512)本이 있다. 이후 憲宗(乙巳, 1845) 때에 改刊한 것이 韓末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⁸⁾『三國遺事』임신본(壬申本)의 저본(底本)이 어떤 책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율분을 터트린 최남선의 발언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檀君古記』는 광범한 고기록(古記錄)을 지극히 간략하게 요약하여 놓은 것이므로 그 편언척자(片言隻字)에도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가령 한 자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문(全文)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크다.『三國遺事』의『檀君古記』중에 석유환국(昔有桓國)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석유환인(昔有桓因)이라고 고친 천인(淺人) 이마니 류(今西龍)의 망필(妄筆)을 인용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다.⁹⁾

이는 비단 환인(桓因)과 환국(桓國)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변조와 날조를 한 사서(史書)에 대한 비판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학계에서 정사(正史)로 간주하는『三國史記』와『三國遺事』조차도 그 판본에 적혀있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기에는 판본의 간행시기가 제작 당시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불교의 전래를 부정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헌의 부재나 가야불교를 상징하는 유적과 유물을 윤색이나 각색 또는 조작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야불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를 방증할 만한 사료의 부족과 문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초기의 판본이 아닌 중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려운『三國史記』와『三國遺事』의 판본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다 보니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반한 유추와 추론은 여지없이 무시되어 온 상황이다.『三國史記』와『三國遺事』의 특정판본을 중심으로 특정사안을 주장하는 견해 역시 판본이 지니는 한계와 유적과 유물에 대한 견해가 시간성을 넘어서 명쾌한 해석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한다고

8) 丁仲煥(2000), 『加羅史研究』, 해안, pp.18-23

9) 성삼재(2009),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p.161

하더라도 결국 연구자의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가야불교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적 연구방법의 도입과 함께 폭넓은 차원에서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와 전승루트

1) 문헌의 해석에 따른 전래시기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는 북방불교 전래설과 남방불교 전래설에 의거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AD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이다. 북방불교 전래설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AD 372년 이전으로 불교전래 시기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바로 접근방식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가야지역에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말해주는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린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의 재구축 내지는 재구성을 통해서 원래의 것들이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야불교의 역사가 실재했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트로이의 목마’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라는 상상력이 결국 트로이가 10개가 넘는 실재했던 도시임을 확인하게 하는 전초가 된 것처럼 가야라는 도시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밝혀낼 전거가 될 것이다.

남방불교 전래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인도 공주로 알려진 허왕후의 도래에 관한 것이다. 허왕후가 김해지역으로 시집을 때 불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사

실이라면 허왕후의 도래시기가 불교전래의 시기가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5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허왕후가 48년에 가야로 왔으므로 불교전래의 시기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시기보다 400여년 앞당겨 진다.¹⁰⁾ 그리고 왕후사 창건 이후 500년 뒤(952)에 장유사가 창건된다. 왕후사의 창건과 장유사의 창건을 중심으로 가야불교의 시작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시조모인 허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원가(元嘉) 29년 임진년에 수로왕과 허왕후가 합혼한 곳에 절을 지어 왕후사라 하였으며, 사자를 보내어 그 근처의 평전 10결로써 삼보에 공양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이 절이 생긴지 5백년 후에 또 장유사를 두어 절에 바쳐진 밭과 초재지가 모두 3백결 이었다. 이에 장유사의 삼강(三綱)이 왕후사가 이 절 초재지의 동쪽 지역에 있다고 해서 왕후사를 폐하고 전장을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마굿간으로 만들었으니 슬픈 일이다.¹¹⁾

허왕후의 불교전래설과 관련된 ‘야요디아’라는 지역과 불교에 관해 살펴보면,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玄奘)스님이 7세기 전반(629-645)에 쓴 『大唐西域記』와 동진의 스님 법현의 『불국기』 그리고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서 야요디아가 모두 아유타국¹²⁾으로 기록되어 있다. 『大唐西域記』를 보면 아유타국이 불교를 숭상하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아유타국은 주위가 5천여 리이고 나라의 대도성은 둘레가 20여 리이며 가람

10) 김경복 · 이회근(2010), 『이야기 가야사』, 청아출판사, p.73

11) 앞의 책, p.73

12) ‘아유타’에 관한 연구는 황정일의 「가야불교 전래 지역 아유타에 대한 연구 -한역 경전에 나타난 음역을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다.

이 1백여 군데나 되고 승려가 삼천여 명이다. 그 성의 북쪽 갠지스 강가의 대
가람에 아소가 왕(BC 270-230)이 세운 2백여 척 높이의 탑이 있으며 그 탑
옆에 과거 사불이 앉았던 자리와 수행하였던 유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전래 시기를 이 보다 더 앞당겨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대표
적으로 인도 델리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철학자인 S.R. Bhatt는 “한반도에 불교
가 전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방불교 전래설과 남방불교 전래설인데 불교
가 공식적으로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공인한
시기만으로 불교전래를 확정지을 수 없다.”¹³⁾고 주장한다.

S.R. Bhatt 교수의 주장은 어떤 특정 종교가 전파되어 민간에 유포된 시기를
오랫동안 거치고 난 이후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불교가 수용되어 자리매김을 하
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사례를 볼 때 나름대로 설
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고등종교 전파의 과정을 볼 때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를 거쳐서 형성된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야불교가 수로왕 때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은 『三國遺事』에서 기록되어 있다.

(수로왕) 즉위 2년 癸卯 春正月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고자 한
다.” 하고, 이어 假宮의 남쪽 신답평에 가서 서방의 산악을 바라보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비좁기가 여귀(水蓼) 잎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
해서 16나한(羅漢)이 살 만한 곳이다. 더구나 일(一)에서 삼(三)을 이루고 삼에
서 칠(七)을 이루니 칠성(七聖)이 살 곳으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여기에 의
탁해서 강토(疆土)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어땠겠느냐?”¹⁴⁾

수로왕이 황후(皇后)를 맞아서 같이 1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해동(海東)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佛法)을 신봉하는 일이 없
었다. 대개 상교(像敎)가 전해오지 않아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러던 것이 제8대 질
지왕(質知王) 2년 임진(壬辰)년(452)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
(王后寺)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다. 또 겸해서 남쪽 왜국(倭
國)을 진압시켰으니, 『駕洛國本紀』에 자세히 실려 있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16나한(羅漢)”과 “칠성(七聖)”이다. 나
한(羅漢)을 아라한(阿羅漢)으로 불 것인지 칠성(七聖)을 칠불(七佛)로 불 것인지
가 관건이다. 그리고 “해동(海東)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佛法)을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째, 절을 세우지도 않았고 불법을 신봉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전
래는 되었지만 수용되어 전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불교
가 전래되어 수용되었지만 ‘절을 세워서 신봉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절이라는 유형의 건물을 매개로 불교를 신봉하지는 않았지만 불교
가 수용되어서 신봉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 구절인 “상교(像敎)가 전해오지 않아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本紀』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에 대
한 해석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상교(像敎)를 불교(佛敎)로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
하면 불교가 전래도 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상교(像敎)라는 단어를 ‘불상(佛像)과 교법(敎法)’으로 해석해 보면
¹⁶⁾, 불교는 전래되었지만 ‘불상과 경전이 없어서 절을 짓지 못했다.’로 해석할 수

13) S. R. Bhatt(2016), “CULTURAL ENCOUNTERS AND CONFLUENCES BETWEEN INDIA AND KOREA”,
한국 · 인도 문화교류의 역사와 미래,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 추계국제학술대회, pp.5-9

14) 『三國遺事』 권2, 「紀異」편, 「駕洛國記」

15) 『三國遺事』 권3, 「興法」편, 「金官城婆娑石塔」

16) 황정일(2016), 「가야불교 전래지역 아유타에 대한 연구 -한역 경전에 나타난 음역어를 중심으로-」, 『동
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있다. 이 때의 불교가 어떠한 불교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가야불교의 전래시기가 가야국 성립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다음으로 “그 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王后寺)를 세워 [이것은 阿道와 訥祇王의 시대에 해당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있다.”는 구절을 해석해 보면, 왕후사의 창건시기를 불교전래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간의 세주를 중심으로 이를 해석해보면 “중간의 세주 부분은 절의 창건이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보다 더 빠른 시기임을 부기한 것이다. 이 세주에 의해서 일연이 가락국의 불교 수용이 신라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지만 동일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비문에 나오는 ‘마하연과’ ‘비바사’의 개념에 대해 고영섭은 불교사에서 ‘비바사(毘婆沙)’가 ‘비담(毘曇)’이나 ‘구사(俱舍)’와 ‘성실(成實)’로 표현되는 아비달마불교의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접해 있던 지역에 아비달마 계통의 부파불교가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와 달리 황정일은 ‘비바사(毘婆沙)’라는 표현이 북방불교 계통에서 아비달마 논사를 지칭하던 용어이지 바로 남방불교계의 대표하는 용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고대에 불교가 비바사(毘婆沙)와 마하연(大乘)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도래의 장소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불교 전래를 AD 372년 이전으로 올려 잡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실재하지도 않았을 사실들에 대한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수로왕과 허왕후를 불교의 전래와 연결시켜 윤색 또는 각색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와 연계하여 수로왕과 허왕후를 신성화하는 과정에서 윤색이나 각색 또는 아예 허구를 사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

고 하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으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부족으로 구성된 소단위의 집단들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王即佛’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교의 윤색과 각색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에 관한 상반되는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이렇다고 할 확실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논자가 보기에 결국 하나의 정황을 보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증할 만한 주장들을 근거로 전래의 시기를 추론해보자면 가야불교의 전승루트를 모색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전승루트가 북방계를 통한 것인가 남방계를 통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적인 판단의 전거라고 하겠다.

북방계를 통한 전승루트가 북방불교 전래설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의 순서로 자리가 매겨 진다. 다시 말하자면 대승불교의 전래를 중심으로 믿어지는 상황이다. 남방계를 통한 전승루트에 대한 주장을 보면 대부분 해로를 통한 전래를 주장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고 융성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바닷길을 통한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장들이다.

2) 전승루트를 통해서 본 전래시기

가야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불교가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가 시작된 지점에서 전래가 수용된 지역까지의 전승루트를 통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불교전래 시기는 북방불교전래설에서 주장하는 루트이다. 두 번째로 불교가 허왕후가 올 때 함께 전래되었다는 전제

17) 석길암(2016), 『駕洛國의 佛教傳來 문제와 성격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에서 전래의 시기를 유추해 보면 이 또한 육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래경로와 해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래경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김병모 교수가 주장하는 인도 갠지스강 상류의 아요디아 지역¹⁸⁾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보주(普州)지역 그리고 육로를 통한 이동을 통해서 중국 동해와 우리나라 서해안을 가로지르는 루트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가설이다.¹⁹⁾ 중국의 보주(普州) 지역은 사천성의 가룽강 유역에 있었다고 한다. 허왕후가 이곳에 살던 소수민족인 파족(巴族) 출신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허왕후를 파족의 중심세력인 허씨 가문의 공주로 보는 견해는 허씨(許氏)들이 한나라에 반기를 들다가 실패하여 추방당해서 양자강을 따라서 상해지방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해류를 따라서 다시 김해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남방 해로를 통한 전래의 경로를 모색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인도양과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오가던 상인들과 스님들의 이동경로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국

18) 아요디아국은 인도 갠지스강 중류에 있는 아요디아라는 고을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요디아는 인도 태양왕조의 옛 도읍지로서 서기전 5세기쯤에 그 나라 왕자가 태양신의 화신으로 숭배됐다고 한다. 이들 왕가는 다른 왕조에 점령당해 도읍지를 잃고 어디론지 떠나갔다는 인조 쪽의 기록이 전해진다. 이 시기는 공주가 김해로 오기 28년 전에 해당한다. 태국에도 아요디아라는 고도가 있다. 이 나라는 메남강 언저리에 있었는데 아요디아가 망할 적에 이곳으로 망명했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추정이다. 그리고 공주가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고도 한다. 이 둘은 김해 지방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약돌이라고 한다. 이 탑은 지금도 허왕후릉 옆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약돌은 인도와 중국의 남해 연안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이어 가락 또는 가야라는 이름도 고대 인도어의 ‘물고기’라는 말과 음이 유사하다고 한다.(이이화(2002),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산처럼, pp.53-56)

19)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허황옥 관련 내용을 보면 “공주가 처음 바다에 나타날 적이나 수로왕을 만나 대화를 나눌 적에 통역이 끼어들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들의 대화내용은 상당한 지식과 교양이 어우러져 있다. 왕은 신랑으로서 궁궐에 나가 신부를 맞이했고 신부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혼례를 치른다. 유교식 혼례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또 공주 신분에 걸맞은 많은 혼수품을 가져온 것도 혼례의 의례에 맞는다. 신부가 데리고 온 종자(從者)들에 대한 후한 대우도 유교식 신행 절차에서 보여주는 관행이다. 공주가 타고 온 배의 돛과 매단 깃발의 색깔은 붉은색과 주황색이었다. 인도의 종파들은 자기 집단을 알리기 위해 많은 깃발을 내거는데 그 색깔은 붉은색과 주황색을 쓴다고 한다. 이런 색깔을 쓴 것은 자신들을 가락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였을 것이다. 공주일행이 예물로 가져온 물건은 비단이나 능라 같은 옷감과 금은 보옥과 같은 보배였다. 초기 철기문화가 시작되고 후진적 농경사회가 열리고 있던 가락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물건들이었다. 이는 그 무렵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실크로드를 거쳐 오는 사라센 지방의 산물이었다.”(이이화(2002),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산처럼, pp.53-56)

의 ‘아요디아’라는 도시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아요디아가 망하고 이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도시라면 그럴듯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중국을 통한 변용된 불교가 아니라 인도불교가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에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불교의 남래설을 주장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이거룡은 남래설이 하나의 학설이 되려면 “문헌이나 사료에 의존을 넘어서 그 전파과정에 대해 문화교류사적인 입장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불교를 하나의 “종교적인 종합문화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⁰⁾ 고영섭은 고운 최치원(857 ~ ?)의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 “사(성)제를 역설하는 소승의 비바사가 먼저 왔고, 일(불)승을 역설하는 대승의 마하연이 뒤에 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비달마불교의 다른 표현인 ‘비바사’의 전래가 불교의 남래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방불교 전래설을 중심으로 불교전래의 시기를 유추해 보면 그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허왕후가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서 김해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교에서 말하는 천도복숭아를 찾아서 왔다고 했으며, 파사석탑을 가지고 와서 불법을 전파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식의 예법과 의식을 익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허왕후가 어디에서 왔던지 이동 경로를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하겠다.

20) 초기 남인도불교의 거점은 안드라(Andhra)지역이었으며, 이미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불탑승배를 중심에 두는 대중부(Caitika- Mahasamghika)가 유행했다. 실론 테라바다(Theravada)불교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마힌다(Mahinda)비구의 남인도 행적은 또한 이 지역에 테라바다불교가 성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실론과 가까운 타밀(Tamil)의 남부지역은 마힌다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6. 마치는 말

가야문화와 가야불교에 대한 연구방법의 재인식에 따른 문제제기와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가야불교의 전래시기와 전승루트를 고찰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종합해서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김수로왕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면 전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성행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침체되었다가 특정한 계기가 되어 다시 융성하게 되어 공인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첫째, 생각보다 이른 시기(BC 1세기 경)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교는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고 의례적으로 구체화가 이루어져서 국가불교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율령반포의 수준에까지 도달한 불교가 아니라, 민간에 유포되어 구복의 성격이 농후한 신앙중심의 불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학문이나 교리체계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불교가 아니라 깨달음과 수행이 동반된 수행적인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인도에서 전승된 남방불교 수행의 전통인 위빠사나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수행체계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실천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셋째, 문명의 교류차원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의 교류를 통해서 전래된 신앙적인 불교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넷째,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수용되고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상(佛像)과 교법(敎法)을 의미하는 상교(像敎)가 전해지지 않았기에 절을 짓는 일이 없었고 신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불교는 훨씬 이전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등의 가설을 두고 실제적인 연대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북방불교 전래설을 따르든지 남방불교 전래설을 따르든지 상관없이 왕

후사 창건을 역사적 사실의 시작점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AD 452년)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의 순서로 공식적인 불교의 공인이 정해진다.

둘째, 김수로왕이 즉위하고 도읍을 정할 때(즉위 2년)를 가야불교의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AD 44)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가야불교 전래설(AD 452년)보다 불교전래의 시발점을 372년 올려 잡을 수 있다.

셋째,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를 왕후사 창건의 시기(AD 452년)나 김수로왕 즉위 후 도읍을 정하는 시기(즉위 2년)로 보는 견해는 왕이나 ‘국가에 의해서 불교가 공인’된 시기를 시발점으로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불교가 전래되어 민간에 유포된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훨씬 이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허왕후의 한반도 도래와 동시에 불교가 전래(AD 48)되었다고 본다면 가야불교 전래의 시기는 허왕후와 함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확정적인 단서나 전체를 정리할 논리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확연한 단서와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가야사와 가야불교에 관한 논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신비에 쌓여 있다고 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가야사와 가야불교사는 더 큰 범주의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남겨 놓은 채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에 가야, 가야불교, 허왕후, 수로왕 등과 관련된 고대역사에 관련된 연구는 항상 논의의 선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섭, 『부파불교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 테라와다 불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2009.
- 김경복 · 이회근, 『이야기 가야사』, 청아출판사, 2010.
- 박양식, 『서양 사학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 실증사학』, 『송실사학』 31, 송실사학회, 2013.
- 석길암, 『駕洛國의 佛敎傳來 문제와 성격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9.
- 이거룡, 『한국불교남래설(南來說) 고찰 -가야불교의 전래 시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 이이화,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산처럼, 2002.
- 이장우, 『실증사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사시민강좌』 20, 일조각, 1997.
- 丁仲煥, 『加羅史研究』, 해안, 2000.
- 조정옥, 『가야불교 전래에 관한 재검토』,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5.
- 황정일, 『가야불교 전래 지역 아유타에 대한 연구 -한역 경전에 나타난 음역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황정일, 『가야불교 전래 관련 쟁점 재검토』, 『보조사상』, 보조사상연구원, 2018.
- 한지연, 『고대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파의 가능성과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한지연, 『가야불교 출발선에서 본 아요디아의 위치에 대한 재고 - 허황후 이동경로 추정을 통해서 -』,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 S. R. Bhatt, "CULTURAL ENCOUNTERS AND CONFLUENCES BETWEEN INDIA AND KOREA", 한국 · 인도 문화교류의 역사와 미래,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 추계국제학술대회, 2016.

[Abstract]

About the time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to Gaya

Centered on humanistic imagination

Jang, Jae Ji

The period of the "Gaya Buddhism" and the subject of the tradition have been discussed in detail. It is not a simple matter to define what is believed that occurred two thousand years due to the lack of remains, relics and artifacts. It is unclear that what kind of Buddhism was introduced, as it can be defined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Gaya Buddhism'. This is because the research methods and conclusions can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universal perception of how to study is based on the social science methodology focusing on literatures and historical evidence or on the basis of humanistic methodology.

What kind of Buddhism was introduced to Kaya? Which route did it pass through? Which person or tradition group came through it?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These questions lead to start considering the period of the Buddhist tradition. with regard to the period of Gaya Buddhism,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flow of Buddhism, the acceptance of Buddhism and the prosperity of Buddhism.

To summarize the research in relation to the time of Buddhist tradition, first, there is an opinion(AD 452) as to follow either the Northern Buddhist tradition theory or the Southern Buddhist prehistory theory. I would like to see the foundation of the reign as the starting point of historical facts. According to this view, official Buddhist accreditation is established in the order of Koguryo,

Baekje, Gaya, and Silla. Second, there is the view(AD 44) that the starting point of Gaya Buddhism is considered as the time when King Kim Soo-Ro ascended and appointed the city as its capital. According to this view, it is possible to assume the starting point of the Buddhist tradition in 372 years from the Gaya Buddhist tradition theory(AD 452). Third, there is the view th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Gaya Buddhism is regarded as the one of the foundation of the reign (AD 452) or the time of appointing the city after the reign of King Soo-Ro. This is seen as a starting point from when Buddhism was recogniz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f we consider the case where Buddhism was introduced and spread over the private sector, it can be assumed much earlier. Fourth, given Heohwanghu cam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Buddhism was introduced (AD 48), the Gaya Buddhism would come with Heohwanghu.

Key Words : Gaya Buddhism, transmission route, The time of the transmission, Northern Buddhism, Southern Buddhism, Seaway of Silk Road

『역사와 융합』 제3집(2018. 12)

【서평】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지배 이론을 위해 『삼국사기』를 거짓으로 만들다

—최재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만권당, 2016.—

황 순 중(고대사 연구가)

저자 최재석 전 고려대 명예교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고대 역사와 고대 한·일 관계사 분야에서 수많은 저작과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 오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에 의한 전반적인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해 왔다.

이 책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은 저자가 작고하기 직전인 2016년에 나온 것이다. 그는 평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일본 고대사와 고대 한·일 관계사 분야에서 실제와는 다른 많은 역사 왜곡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기본 사료가 되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사실로 만들고 아울러 그 내용과 대부분 상충되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허위로 몰아붙인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이른바 『삼국사기』 불신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최재석은 이 책의 서문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식민사학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대 한일관계사 왜곡의 큰 틀을 만든 산다 소키치가 『일본서기』에 있는 백제 중심의 기사를 개정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한 것은 중요한 시사임을 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및 경서대국대학 소속이었다. 일제 패전 후 귀국해 임

나의 강북을 기존의 경상도에서 전라도 및 충청도까지 확대시킨 스에마쓰 야스카르도 『일본서기』에 대해 "무진적(戊辰的)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게 된다."고 실토했는데, 이 말만큼 일본 고대사 및 고대 한일 관계사의 실체를 알게해 주는 말로 찾기 힘들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쓰다나 스에마쓰 모두 『일본서기』가 믿을 수 없는 역사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의 역사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3국사기』의 기록을 ??려 조작으로 몰아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2부로 나누어 제1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는가?, 제2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각론 심층비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1부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는가?" 라는 제목 아래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조작으로 몰아붙인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각 학자별로 그들의 논리를 분석하고 그 근거와 사료의 비판 태도를 비판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들의 불신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3국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19세기 말부터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정한론(征韓論)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 『3국사기』 초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처음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3국사기』를 허위로 몰아간 근본적 이유는 『일본서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먼저 『일본서기』의 잘못된 정체에 대해 『일본서기』는 귀신이 왕이 된 귀신 7대 시대와 사람이 왕이 된 신무(神武)부터 지도(指導)까지 46대의 합계 47대, 약 1,800년에 걸친 기록이다. 이 중 가장 뒷 부분인 약 100년 정도의 기록은 사실에 가까우나 나머지 1,500~1,600년간 (비다쓰 내지 스이고까지)의 기록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 『일본서기』의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서기』는 10여 명의 국왕이 연달아 100세 이상 140세까지 살았던 것으

로 기록되어 있고 그 체제도 '기(紀)'만 있고 '지(志)'나 '열전(列傳)'도 없다. 더욱이 저자의 이름도, 서문도, 발문도, 없는 책이다. 저자와 출처를 밝히는 동양사회의 일반적인 역사서 ?? 방식과는 동떨어진 책이다."

이와 같이 허구인 『일본서기』를 맞는 것으로 강변하기 위해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3국사기』는 포장된 것으로 취급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저자 최재석은 일본인들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수많은 예를 들어 비판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학계에서도 모두 무비판적으로 이러한 식민사관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사실을 학자들의 실명을 기록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1부에 대한 결론과 식민사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일본인들로서는 그 진위를 언급할 수 없는 일동의 성경이었다. 『일본서기』를 성스러운 경서로 신봉하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서기』를 구진적으로 연구할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일본서기』의 이념, 즉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을 점령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고대사나 고대 친일관계사, 일본 고대사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생각도 없다.

다음으로 이 책의 제2부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각론을 심층 비판한 내용인데 제1장에서는 이마니시류의 한국 고대사론을 비판하였고 제2장에서는 스에마쓰 야스키즈의 『신라상고사론』에 대해서 비판했다. 먼저 이마니시 류에 대해서는 그의 『신라사통설』·『신라골품고』·『백제사 강화』·『백제 5방 5부고』·『고구려 5족 5부고』 등을 비판함으로써 그가 신라·백제·고구려의 3국 모두에 대해 『3국사기』의 기록이 허위라고 부정한 데 대해 낱알이 그 부당함과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끝으로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대해서는 『신라상고사론』에 대해 그가 연구에 임한 기본 태도와 사료의 처리방식을 비판하고 아울러 그가 사료를 분석함에 사

용한 ‘언어학적 해석’을 분석하여 그 부당함을 밝히는 등 그의 상고사론이 전체적으로 『삼국사기』를 부당하게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음을 세밀하게 비판했다. 그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보면 그가 『신라3대고』·『신라건국고』·『신라상고세계고』·『신라 6부고』에 나오는 17가지 주장을 예로 들어 그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그 사용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본적으로 스에마쓰가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 없이 신라 상고사는 조작되었다고 무수히 반복한데 비해 이 17가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강력한 희망사항을 담은 것일뿐 자체 내의 모순과 논리의 비약·견강부회·허위 등에 의지한 주장으로서 학문적으로 하등의 고려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바른역사학술원(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 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 학제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회 기관지 『역사와 융합』 발간
2.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 교류
4.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4. 일반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연구활동 지원
5.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 출판
6.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4조 (회원의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생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 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박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

를 2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를 1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를 수령할 수 있다.
4. 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4.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5. 회원은 이 학회의 행사 및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제한)

이 학회의 회원 가운데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학술이사 2인, 홍보이사 2인, 학술정보이사 2인, 편집이사(편집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해외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이 학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 학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출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6. 홍보이사는 회원의 확대, 학회 유지 및 활동자금 확보 등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이사는 이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학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통솔 아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9.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과 학술지

에 게재 및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감독하고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0. 감사는 이 학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1. 자문위원은 이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문한다.

제12조 (총회)

이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기타 사업계획의 승인
- ④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이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의결권은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기관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이 학회의 기관지인 『역사와 융합』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회비의 액수 및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이전년도 총회로부터 이번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제16조 (행정)

이 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 (해산)

이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회칙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과반 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20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8항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영문명: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편집·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단이 위촉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정회원 중 학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6인 이상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여, 투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세부사항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 및 2차 심사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역사와 융합』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

『역사와 융합』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투고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내용)

『역사와 융합』에 실리는 글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미발표된 논문·비평논문·서평·번역·연구 동향 등을 포함하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비평논문과 서평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발행 회수 및 시기)

『역사와 융합』은 연 2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투고 자격 및 제한)

『역사와 융합』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며, 학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제5조 (원고 제출 및 투고신청)

투고자는 원고를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 형태의 원고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이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6조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

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의 영문 제목 및 필자의 영문 이름을 영문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마지막 쪽에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5. 투고 원고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① 원고 제목 ② 저자 이름 ③ 한국어 초록 ④ 한국어 주제어 ⑤ 참고문헌
⑥ 영어 제목 ⑦ 투고자 영문명 ⑧ 영문 초록(Abstract) ⑨ 영어 주제어

제7조 (원고 작성 요령)

1.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 3. 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어 표기 후 원어를 병기할 경우 ()를 사용한다. 『』나 『』와 병용할 경우는 기호 안쪽에 기재한다.

보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 저자 이름

저자 이름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필자를 앞에, 공동 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3. 본문

① 본문의 장절 표기는 1, 1.1, 1.1.1' 순서로 한다.

②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③ 본문에 인용된 문헌의 출처는 미주가 아닌 각주 달음으로 표기하며, 달음 양식은 다음과 같다.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보기)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24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쪽수.

보기) 김병기, 「의열단원 우산 남정각의 독립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제11집, 2010,

271-300쪽.

〈서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이탈릭),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이탈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ex)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101-102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쪽수.

ex) Evelyn Pluhar, “Animal Right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 Academic Press, 1998, 165쪽.

4. 원고 형식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판짜기를 한다.

－ 용지 크기 : 사용자정의 - 폭 152, 길이 224

－ 용지 방향 : 좁게

－ 용지 여백 : 위 10, 아래 10, 왼쪽 10, 오른쪽 10, 머리말 10, 꼬리말 5

② 논문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제목 \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논문 제목		14	신명 태명조	170%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및 소속		11	신명 태명조	165%	하지 않음	오른쪽
장 제목 : l		12	신명 태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절 제목 : 1		11	신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소 제목 : 1)		10	신명조	175%		
세부 제목 : (1)						
미세 제목 : ①						
본문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인용문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인용문헌	제목	8.5	산돌 고딕	175%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표 / 그림	제목	9	산돌 고딕	140%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	산돌 명조	145%	하지 않음	양쪽 정렬
각주		8.5	산돌 명조	14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제목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초록 : 산돌명조, 10pt, 175%	제목	15	산돌 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10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오른쪽
	내용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공통	자간 : 한글-2%/영문-3%					

〈기타〉

-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줄고나 줄저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 신문과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 연. 월. 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표는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도면이나 지도, 사진 등도 위의 〈 〉 표시를 따른다.

제8조 (심사)

1. 심사 내용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3. 심사위원 제한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심사 절차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하

고,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밀로 한다.

5. 심사 기준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 적합성 정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등 각 항목에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의 성적을 〈별지 1〉과 같은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 ②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별지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7. 심사료

투고자는 투고와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추가 소요비용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 매수가 120매가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나, 최대 17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 내역은 분량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편집)

『역사와 융합』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별쇄본)

『역사와 융합』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해당호 3부와 별쇄본 10부를 우송한다.

제12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효력)

이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연구 윤리 규정**제 1 장 총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9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의 준수와 부정행위 금지**제2조 (투고)****1. 논문의 독창성**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게재될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저자는 같은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2. 표절 금지

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연구 내용(아이디어나 가설, 주장, 이론,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 변형,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저자 표시의 정당성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꾸로 학술적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

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

1.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 사실과 내용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위반 사실 통보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편집)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 및 수합된 결과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연구윤리 문제 발생 시 대응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신속히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대응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 또는 보고받았을 때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사안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보고된 사안을 조사한다. 이 경우, 제보자 · 해당 저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 중 해당 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 · 심의 ·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소명의 기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제소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저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심의 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해야 한다.

4. 사안의 처리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위반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보자 및 보고자와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저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를 비밀로 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재심의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조치)

1. 게재 취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역사와 융합』에 게재를 취소한다.

2. 위반 사실 공지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와 『역사와 융합』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5년간 투고 금지

해당 저자는 향후 5년간 『역사와 융합』에 투고할 수 없다.

4. 기관 통지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지한다.

제 4 장 부 칙

제9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바른역사학술원

『역사와 융합』 논문 심사 신청서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소속		전공	직위
논문명 및 분야			
현주소	(집)		
	(학교)		
전화	(직장)	(주택)	(이동)
E-mail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술대회발표 (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_____ 해당사항없음 _____ ()년 ()차 (준계/주계) 학술대회		
<div>1.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동화와번역』 제30호에 투고합니다.</div> <div>2. 본인은 투고한 논문이 『역사와융합』에 수록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div> <div>3. 본인은 귀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div>			
<div>이 름 :</div> <div>2017년 월 일</div> <div>바른역사학술원 원장 귀하</div>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논문제목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결함
학술지 성격 정합 정도	–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제간 대화와 소통에 힘쓰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한다는 학술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논문의 독창성	–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과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언어 표현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충분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대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 논문의 구성 형식이 학술지의 편집 기준에 맞는가?				
게 재 여 부	총 합 평 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 평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 쓰셔도 좋습니다.)					

심 사 자 : (소속)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심사일 :

년

월

일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최종판정 결과	조치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2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 판정
3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4	수정 없이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부 심사 의뢰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판정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7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9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역사와 융합』심사의견서

글쓴이	밝히지 않음	소속	밝히지 않음
논문제목			

총평 :

수정 사항 :

알 림

■ 『역사와 융합』 제4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바른역사학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자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출 판 일 : 2019년 6월 30일

2) 원고 마감 : 2019년 4월 30일

3) 원고 내용 :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

4) 투고 방법 :

가. 보내실 곳 : hgr1379@naver.com

나. 반드시 학술원에서 정한 투고 형식을 지켜주십시오.(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이지 ‘학술이야기 – 한국바른역사이야기’의 자료 참조 <http://historyin.org>)

다. ‘논문 심사 신청서’를 같이 보내주십시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5) 심 사 료 : 6만원(우리은행 1002-947-402494 이덕일)

6) 원고 분량 : 200자 원고 120매 내외

※ 투고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홈페이지 심사 규정 참조)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 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 저희 학술원은 외국어 논문의 투고를 적극 장려합니다.

■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 <http://historyin.org>

역사와 융합 제3호

2018년 12월 25일 인쇄

2018년 12월 30일 발행

지은이 바른역사학술원

발행인 이덕일

펴낸곳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교4라길 8 2층(마포동 223)

Tel. 02-711-1379 Fax. 02-704-1390

인쇄 모든인쇄문화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50번길 58(삼성동)

Tel. 042-632-0308 Fax. 042-632-0309

『역사와 융합』은 모든인쇄문화사의 기부로 발간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historyin.org>